

보험동향 2015년 겨울호

총괄	임준환 (선임연구위원)
경제금융 동향	경제총괄 조용운 (연구위원) 세계경제 이아름 (연구원) 국내경제 채원영 (연구원) 금융경제 이해랑 (연구원)
국내보험시장 동향	보험총괄 조용운 (연구위원) 생명보험 김진억 (수석담당역) 이해랑 (연구원) 손해보험 최 원 (선임연구원) 채원영 (연구원)
해외보험시장 동향	미 국 이해랑 (연구원) 영 국 김진억 (수석담당역) 일 본 이아름 (연구원) 중 국 이소양 (연구원)

■ 목차

I. 테마진단

- 일본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교육과 시사점 / 1
- 국·내외 생명보험회사 부동산 투자 현황 비교 및 시사점 / 18

II. 경제금융 동향

- 1. 세계경제 / 39
- 2. 국내경제 / 57
- 3. 금융경제 / 72

III. 국내보험시장 동향

- 1. 보험산업 총괄 / 78
- 2. 생명보험 / 81
- 3. 손해보험 / 94

IV. 해외보험시장 동향

- 1. 미국 동향 / 115
- 2. 영국 동향 / 122
- 3. 일본 동향 / 133
- 4. 중국 동향 / 141

부 록 I. 통계표 / 150

부 록 II. 글로벌 이슈 발간 목록 / 157

I. 테마진단

◆ 일본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교육과 시사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 · 이상우 수석연구원

1. 검토 배경

우리나라보다 먼저 퇴직연금의 문제점을 경험하고 제도를 개선해 온 일본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 교육 강화배경, 교육관련 규정, 그리고 교육의 특징 등을 살펴봄으로써 국내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최근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가시화, 저금리·저성장 기조는 DC형 퇴직연금중심으로 시장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지난 2014년 8월 정부가 발표한 사적연금 활성화대책 중 DC형 퇴직연금 규제완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기반으로 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등은 DC형 퇴직연금시장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¹⁾

○ 또한 DC형 퇴직연금의 추가납입허용,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대한 별도의 세액공제 혜택(300만 원 한도)은 DC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증대로 이어지는 상황임.

■ 따라서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스스로가 투자상품을 적절히 선택하고 적립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가입자 교육의 중요성이 보다 증대되는 실정임.

○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규제 완화조치 등은 투자상품의 다양화를 유도하고 근

1) 정부가 도입예정인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는 근로복지공단이 퇴직연금사업자가 되지만 기본적으로 퇴직연금가입자 스스로 투자상품의 선택 및 운용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시장의 규모 확대가 예상됨.

로자의 운용 선택폭을 확대시킬 수 있지만 자칫 운용에 따른 리스크 증대로 손실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임.

- 따라서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다양한 투자상품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자신의 니즈에 부합한 운용상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투자지식 향상은 필수적임.

■ 현재 우리나라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서 가입자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 형식적 교육에 그치고 있으며, 가입자 교육체계 또한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함.

- 금융감독원 실태조사(2012년)결과, 가입 근로자의 약 35%가 가입자 교육을 경험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교육을 받는 경우에도 가입자 교육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고 있음.

- 이에 반해 일본은 DC형 퇴직연금시장중심의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2011년 이후 가입자 교육²⁾ 관련 법률을 재개정하는 한편, 실질적 가입자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함.

- 즉, 가입자 교육을 통한 투자활성화(실적배당형상품투자), 가입자의 투자인식 제고, 규제완화에 따른 투자상품 다양화 등으로 인해 가입자 교육의 강화 필요성을 재인식함.

■ 이에 본고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의 문제를 일찍이 경험한 일본의 가입자 교육 사례 및 특징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기초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일본의 가입자 교육 강화 배경, 가입자 교육 관련규정, 가입자 교육의 특징 등을 살펴 봄.

2) 일본은 '투자교육'이라고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가입자교육'으로 용어를 통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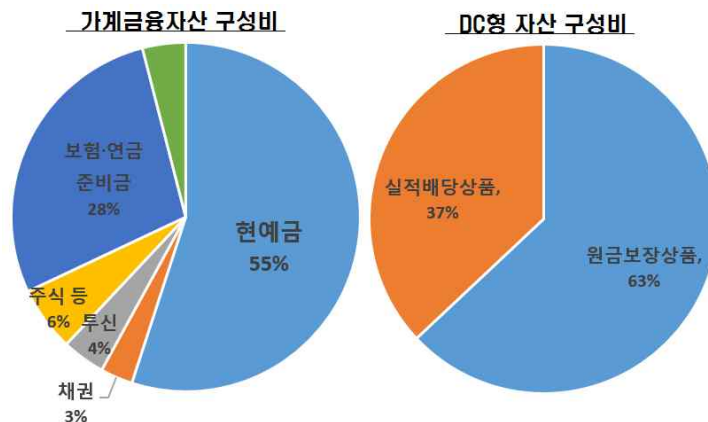
2. 가입자 교육 강화 배경

교육 강화 배경은 일본 아베정부의 가입자 교육 강화를 통한 퇴직연금 적립금의 투자활성화 정책 추진, 퇴직연금 가입자의 자산운용에 대한 이해부족, 퇴직연금 운용규제 완화에 따른 투자상품 다양화 등에 따라 투자상품 특성을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퇴직연금 지식 강화가 필요하게 됨.

가. 가입자 교육을 통한 투자 활성화

- 일본은 원금보장자산 선호 성향을 개선하여 가계자산이 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강화와 자산운용 활성화 등이 포함된 정책을 추진함.

〈그림 1〉 일본 가계자산 및 DC형 가입자 자산 구성비



자료: 日本銀行(2011. 3); 厚生労働省(2011. 3).

- 특히, DC형 가입자의 원금보장상품 편중은 수익률의 저하로 이어져 DB형 등 다른 퇴직급여제도보다 안정적인 노후소득확보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됨.

- 이에 따라 일본은 가입자 교육 제고가 퇴직연금 자산운용의 투자비중에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결과를 기초로 가입자의 투자 활성화 유도차원에서 가입자 교육 강화를 추진함.
- 일본 후생노동성(2010)은 DC형제도 적립금 운용을 원금보장상품으로만 운용한 가입

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결과, 원금보장상품의 운용비율이 약 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가입자 교육의 필요성을 재인식함.

나. DC형 가입자의 투자이해도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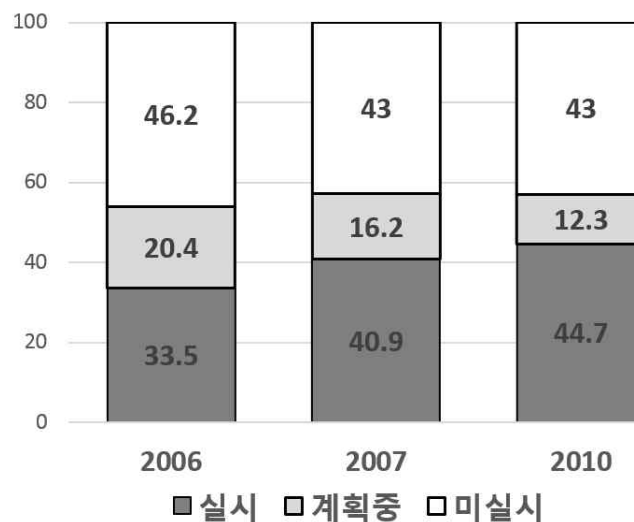
■ DC형제도³⁾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가입자 수는 증가하였지만 제도 이해도와 자산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하게 됨.

○ DC형제도 실태조사 결과, 가입자 중 약 29.5%가 DC제도 자체를 알지 못하고, 현재 어떠한 운용상품에 가입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가입자비중이 약 44%에 이름.

○ 또한 가입자가 DC형제도 가입을 후회하는 이유 중 DC형제도 이해도 부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약 30%에 달하는 등 제도 및 자산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적립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DC형제도에 대한 가입자 이해 부족으로 상당수 기업은 가입자에게 적립금 운용 방법을 암묵적으로 제안하는 사례도 나타남.

〈그림 2〉 일본기업의 DC형제도 계속교육추이(%)



자료: 企業年金連合會(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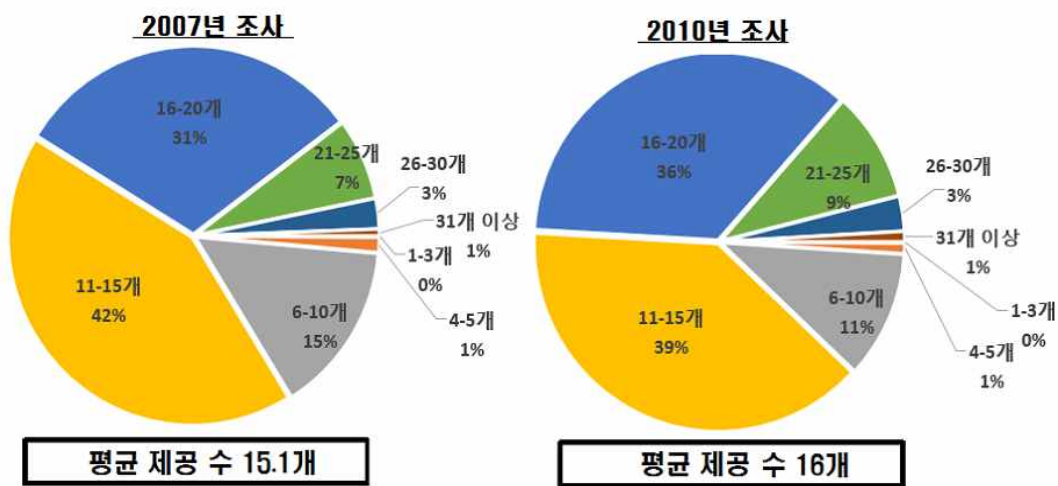
3) 일본의 확정각출형 연금제도를 우리나라 용어인 확정기여형 연금제도로 변경하여 표기함.

- 특히 DC형제도 가입자 실태조사 결과(2010), 지속적으로 가입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기업이 약 43%로 나타나 가입자 교육의 미흡이 투자 인식부족을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됨.
- 이러한 원인은 연금규약상에 계속교육 실시대상을 교육 희망자로 명시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규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임.

다. 운용규제완화에 따른 투자상품의 다양화

- 운용규제 완화 등으로 DC형제도 가입자의 운용상품 니즈가 보다 다양화됨에 따라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투자상품(운용상품)의 수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DC형 가입기업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2007년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운용상품 수는 평균 15.1개에서 2010년 16개로 증가함.

〈그림 3〉 일본 DC형 가입기업의 투자상품 제공 수



자료: 企業年金連合會(2007, 12~2010, 12), 『確定拠出年金に関する實態調査 調査結果』.

- 또한, 사전에 정해진 자산배분 비율에 따라 자동으로 운영되는 디폴트펀드에 대한 니즈와 상품 종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이에 따라 다양한 투자상품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절히 운용하기 위한 가입자 교육의 제고가 더욱 필요하게 됨.

3. 가입자 교육 관련 규정

2013년 4월에 개정된 확정각출연금법은 사업주에게 가입자의 자산운용에 관한 기초지식 함양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노력과 배려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법령 및 자율규제로 규율하고 있음.

가. 법률개정

■ 일본은 사업주의 가입자 교육에 대한 책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2011년 8월에 제정된 연금확보지원법⁴⁾에 의해 확정각출연금법을 개정함.

○ 기존의 확정각출연금법에 계속적인 가입자 교육 실시와 함께 배려의무를 규정하여 DC형 가입자의 자산운용 지식을 향상시켜 효율적인 운용 지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즉, 2011년 법률 개정을 통해 계속교육에 대하여 사업주의 배려의무를 명문화함.

〈표 1〉 연금확보지원법상 확정기여형 연금관련 개정 내용

개정 내용		시행일
DC형 연금	사업주의 근로자 계속적 가입자 교육 실시의무 명문화	2011. 8. 10
	종업원 매칭각출 허용 및 소득공제 적용	2012. 1. 1
	가입 연령 상향조정(60세에서 65세)	2014. 1. 1
	중도탈퇴요건 완화	
	자동이관자를 70세 시점에 강제 제정	

자료: JP Actuary Consulting(2011. 8).

■ 또한 ‘저축에서 투자로’를 강조하고 있는 일본 아베 정부의 ‘일본 재생전략(2012. 7)’의 일환으로 2013년 4월 확정각출연금법의 일부를 개정하기에 이룸.

○ 디폴트운용상품 등 투자상품의 다양화에 따른 투자관련 정보제공 확대에 초점이 맞추어져 법률 개정이 이루어짐.

4) 공적연금 개혁 및 퇴직연금 개선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일종의 공·사연금개혁관련법.

- 디폴트 운용상품 설정 시 연금규약에서 디폴트 운용상품을 설정한 목적, 수동으로 운용지시가 불가능하다는 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가입자에 귀책사유가 있다는 점을 명시하는 등 정보를 정기적으로 가입자에게 제공할 것을 규정함.
- 또한 가입자에게 매칭 기여를 실시한 사업장의 경우 기여한도액과 그 효과, DC형제도를 포함한 노후설계의 필요성과 운용리스크별 자산배분 예시를 하도록 함.

나. 법적 근거

1) 확정각출연금법 및 시행령

■ 가입자 교육은 확정각출연금법 제22조에 사업주의 노력의무와 배려의무로서 규정되어 있음.

- 확정각출연금법 제22조 제1항은 우리나라의 가입자 교육 내용과 유사하지만 가입자 투자교육 위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주의 충실의무와 주의의무에 입각한 가입자 교육의 노력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표 2〉 확정각출연금법상 가입자 교육관련 규정

구분	확정각출연금법 제22조 제1항	확정각출연금법 제22조 제2항
규정	사업주는 기업형연금의 가입자 등에 대해, 이들의 운용지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자산운용에 관한 기초적인 자료의 제공,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법22조 1항의 조치를 계속적으로 실시하여 기업형연금가입자 등의 자산운용에 관한 지식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운용지시가 유효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의무	노력의무	배려의무

- 특히 확정각출연금법 제22조 제2항에서는 가입자의 운용지식 향상을 위해 제도 도입 후 계속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사업주에 대해 배려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이처럼 확정각출연금법에는 가입자 교육의 일차적 책임을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지만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가입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확정각출연금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

○ 즉 확정각출연금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교육 및 컨설팅 업무는 운영관리기관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이에 따라 대부분의 사업장은 가입자 교육을 사업자에 위탁하여 실시함.

〈표 3〉 확정각출연금법 시행령상 가입자 교육관련 규정

구분	운용업무위탁	관련 규정
시행령	사업주는 가입자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업무를 운영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제2항

2) 하위 규정(법령해석 통지)

■ 구체적인 가입자 교육 사항은 후생노동성의 법령해석통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주 등 관계자에 대해서는 퇴직연금과 관련한 충분한 설명과 지도의무를 부과함.

○ 가입자교육에 대한 법률과 하위 법규에 대한 법령해석⁵⁾을 2005년 제정·공포함.

○ 법령해석에서는 확정각출연금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행정해석과 이에 근거한 세부적인 가입자 교육 내용을 제시함.

■ 일본 DC형제도의 가입자 교육 제공방법 등은 사실상 후생노동성의 승인이 요구됨.

○ 시행령 제3조 제3호에 의하면 가입자 교육 제공 방법 등이 연금규약의 기재사항이며, 법률 제3조는 노사합의 절차에 따라 작성된 연금규약을 후생노동대신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연금규약에 기재되는 가입자 교육은 후생노동성의 법령해석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가입자 교육의 기본 취지, 가입자 교육 주요 내용, 제공방법 등이 연금규약에서 기재가 요구됨.

5) 정식 명칭은 ‘確定拠出年金法並びにこれに基づく政令及び省令について(法令解釈)’임.

가) 가입자 교육 방향성

■ 법령해석 제2조 제1항에서는 DC형제도가 적절히 운영·정착되고 노후소득확보를 위한 연금제도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입자가 적절한 자산운용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정보와 지식 제공을 요구하고 있음.

○ 이에 따라 DC형제도를 실시하는 사업주와 그들로부터 위탁을 받아 가입자 교육을 실시하는 운영관리기관 등은 법 제22조에 따라 가입자 교육에 대한 매우 무거운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

- 제도 가입은 물론 가입 후에도 개별 가입자 등의 지식수준과 요구 등을 반영하여 가입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가입자교육 실시를 하여야 함.

■ 또한 법령해석 제2조에서는 DC형제도의 운용지시 의미를 이해하고, 구체적인 자산배분과 운용수익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입자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사업주 등은 가입자교육이 형식적으로 실시되지 않도록 가입자의 지식수준과 학습능력 등을 감안하여 내용, 시간, 제공방법에 대해 충분히 배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제도가입 후 교육은 가입 시 기본사항을 학습하지 못한 자의 재교육과 제도에 대한 관심이 적은 가입자에게 관심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교육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금융상품의 특징 및 운용 등에 대해서도 운용실적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가입자 교육을 제공할 것을 요구함.

○ 가입자 교육은 최초교육과 계속교육의 특성 차이에 유의하여, 실시목적을 명확히 하되 계획적으로 시행할 것을 요구함.

나) 가입자 교육 내용

■ 가입자 교육내용은 연금제도 개요, 확정기여형 연금 내용, 금융상품 구조 및 특징, 자산운용 기본지식, 노후설계 필요성 등으로 구분됨(〈표 4〉참조).

○ 일본 연금제도의 개요·개정 등의 동향, 전체 연금제도에서 DC형제도가 의미하는 점 등을 교육하도록 명시함.

〈표 4〉 가입자 교육관련 규정(법령해석 통지)

구분	세부 내용
연금제도의 개요	• 전체 연금체계 및 확정기여형 연금제도의 의미 등
확정기여형제도 등의 구체적인 내용	• 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 자와 기여 한도액 • 운용상품의 범위, 가입자 등에게 운용상품을 제시하는 방법 및 운용상품의 변경 • 급여 종류, 지급요건, 급여의 개시시기 및 급여의 수령방법 • 가입자가 전직 또는 이직했을 경우 자산의 이전 방법 • 부담금 납입, 운용 및 퇴직급여의 각 단계별 세제 조치 내용 • 사용자, 국민연금기금연합회, 운용관리기관 및 자산관리기관의 역할 • 사용자, 국민연금기금연합회, 운용관리기관 및 자산관리기관의 행위 준칙 내용(책무 및 금지행위)
금융상품 구조와 특징	• 예·적금, 신탁상품, 투자신탁, 채권, 주식, 보험상품 등 각각의 금융상품에 대한 다음 사항 - 성격 또는 특징, 종류,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 예상되는 리스크 - 투자신탁, 채권, 주식 등의 유가증권이나 변액보험 등에 대해서는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 등
자산운용 기초지식	• 자산운용 시 유의점(즉, 금융상품의 구조나 특징을 충분히 인식한 다음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 • 리스크의 종류와 내용(금리리스크, 환율리스크, 신용리스크, 가격변동리스크, 인플레이 리스크 등) • 리스크와 리턴의 관계 • 장기운용의 방식과 효과, 분산투자의 방식과 효과 등
노후설계 필요성	• DC형제도를 포함한 노후생활설계의 필요성 명시 - 재직기간 중 재산형성의 필요성, 장기적인 노후대비 필요성 -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총액 예시 및 부족한 노후비용추정 - 재직기간 중 생활설계를 감안하여 노후자산형성계획 - 운용리스크에 따른 자산배분 예시 등
기타사항	• 공적연금제도의 개혁동향 • 다른 퇴직급여제도 등에 관한 정보제공 • 자기자신의 노후대책에서 DC형의 위치

○ 확정기여형 연금제도에서는 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 자와 기여한도액, 운용상품의 범위, 가입자 등에게 운용상품을 제시하는 방법, 급여의 수령방법, 수탁기관의 역할 등을 교육하도록 명시함.

- 예·적금, 신탁상품, 투자신탁, 채권, 주식, 보험상품 등 금융상품 구조와 특징에서는 상품 성격, 종류, 기대 수익률, 예상되는 리스크, 투자신탁·채권·주식 등 유가증권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교육함.

- 자산운용 기초지식에서는 자산운용 시 유의점, 리스크 종류와 내용(금리리스크, 환율리스크, 신용리스크, 가격변동 리스크, 인플레이 리스크 등), 리스크와 리턴 관계, 장기운용 방식과 효과, 분산투자 방식과 효과 등을 교육함.

■ 특히 DC형제도를 포함한 노후생활 설계 필요성과 공적연금제도 개혁 동향, 다른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정보제공에 대해서도 교육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임.

- 노후설계 필요성에서는 재직 중 재산형성 필요성,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후대비 필요성,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 총액 예시 및 부족한 노후자금 추정, 노후자산형성 계획 및 운영 등에 대해 교육함.
- 기타사항에서는 공적연금제도 개혁 동향, 다른 퇴직급여제도 등에 관한 정보제공, 자기 자신의 노후대책에서 DC형의 위치 등을 교육함.

다) 가입자교육 제공방법

■ 사업주는 자료, VTR, DVD, 설명회의 개최를 통해 가입자 등에게 가입자 교육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가입자별 자산운용 관련 지식 및 경험에 맞추어 최적 교육방법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함.

- 사업주 등은 가입자가 교육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실시할 책무가 있고 가입자로부터 자산운용에 대한 질문이나 조희가 있을 경우 콜센터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도록 규정함.
- 계속교육의 경우 특별한 주제를 정하여 사내게시판, 인터넷 등을 통해 정보제공을 하고 기존 직원의 사원연수 중에 실시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

4. 가입자 교육 특징

일본 기업연금연합회가 작성한 가입자교육 핸드북(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은 후생노동성의 법령 유권해석, 가입자 교육의 방법과 범위, 기업의 가입자교육 모범사례 등을 제시하고 있음. 또한, 일본은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가입자 교육 전문가(DC planner 등)를 양성하여 체계적으로 교육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교육 개선을 위해 교육 실시 후 가입자 교육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으며, 기업의 특성별 가입자 교육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기업에 전파하고 있음.

■ 자산운용규제 완화에 따른 투자상품 다양화 추세에 따라 가입자 투자지식을 제고하기 위해 가입자 교육 관련 법률을 재개정하고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자 교육의 질을 제고하도록 유도함.

○ 가입자 교육 특징으로는 가입자 투자지식 향상을 위한 계속교육 수행, 실질적인 가입자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투자가이드라인 설정 및 가입자 교육모범사례 발굴, 가입자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교육 전문가 양성 등을 들 수 있음.

가. 가입자 투자지식 향상을 위한 계속교육 실시

■ 확정기여형 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들은 자기 책임하에 운용지시를 하고 운용리스크를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가입자의 투자지식 향상이 매우 중요함.

○ 특히 운용규제 완화로 디폴트옵션상품, 라이프사이클 펀드상품 등과 같은 다양한 운용상품이 개발되고 있어 이들 상품에 대한 운용방법 교육 등이 중요하게 됨.

○ 따라서 일본은 DC형제도 도입 시 가입자 교육 이외에 가입자의 투자지식 이해도 향상을 위해 계속교육 중심으로 가입자 교육의 패턴을 변화시킴(〈표 5〉 참조).

- 제도 도입 시 한 번의 가입자 교육보다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다양한 투자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임.

<표 5> DC형 가입자의 계속교육 방향

구분	세부 내용(요약)
교육내용	• 법령상에 예시된 교육사항 재교육 원칙 • 연금제도 전반 및 은퇴설계 추가 • 가입자가 원하는 특정한 내용(자산운용 등): 선별 교육
교육방식	• 집합교육 또는 가입자별 차등교육(필요 시) • 테마별 교육 등을 지향
교육시기	• 제도도입 후 시기설정(연단위 등): 회사규모별 고려
참가형식	• 업무시간 외에도 실시 검토 • 휴일개회, 부부참가 방법 병행
사후조치	• 모니터링 및 앙케이트조사(이해도 조사)

■ 기업연금연합회가 중심이 되어 가입자 교육의 내용 및 시기, 교육방법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이 방향에 기초하여 실질적인 가입자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함.

○ 특히 기업연금연합회는 가입자 교육을 시행하는 데 있어 유의할 점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가입자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함.⁶⁾

○ 또한 일본은 가입자 교육 등을 통해 노후설계 및 연금제도 이해, 금융상품의 구성과 특징, 자산운용 기초지식을 가입자에게 제공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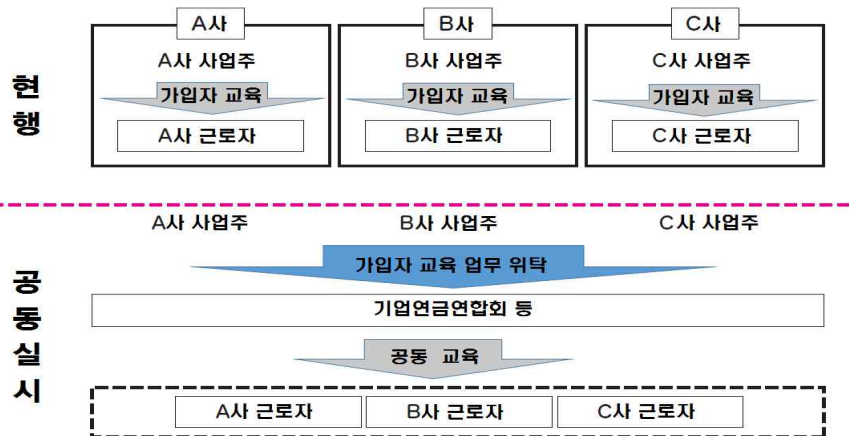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경우 노후자산관리방법, 노후대책관련 내용 등이 없어 가입자교육내용이 매우 제한적인 것과 대조적임.

나. 교육전문기관 등을 통한 가입자 교육의 질 제고

■ 일본은 소규모 확정기여형 가입기업 근로자들의 투자지식 제고차원에서 기업연금연합회 등을 통해 가입자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그림 4> 참조).

6) 企業年金連合会(2015, 1).

〈그림 4〉 교육 전문기관(기업연금연합회)에 의한 가입자 교육



자료: 第12回 社會保障審議會企業年金部會(2014. 11).

■ 또한 일본은 DC Planner 및 DC Advisor 등 교육 자격자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가입자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여 가입자 교육의 질을 제고함.

○ 가입자가 정확하게 퇴직연금제도를 이해하고 다양한 운용상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가입자 교육의 전문가를 통한 정보제공과 교육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는 가입자 교육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이 미흡한 실정임.

○ 실제 일본의 퇴직연금 교육현장에서는 DC Planner 및 DC Advisor 등 전문자격 유무를 확인한 이후에야 비로소 가입자 교육이 이루어짐.

- 이 자격은 법적 구속력은 지니지 않지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임.

다. 가입자 교육 가이드라인 등을 통한 교육 내실화

■ 확정각출연금법 등에 규정된 가입자 교육내용이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가입자 교육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따르도록 권고함.

○ 가입자 교육이 알찬 내용으로 근로자 니즈에 따라 제공될 수 있도록 각 기업의 가입자 교육 실태를 파악하는 동시에 필요에 따라 DC형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가입자 교육 가이드라인을 설정함.

○ 특히, 대부분의 가입자 교육 문제가 상당부분, 교육을 어떻게 하면 될지 그 방법을 잘

몰라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기업형 확정각출형연금 투자교육 핸드북 등을 통해 가입자 교육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투자교육 핸드북에 가입자교육사항의 가이드라인(세부지침)을 제시하여 가입자 교육의 내실화를 유도함.⁷⁾

■ 또한 후생노동성의 확정각출연금연락회의 등에서 모범적인 가입자 교육사례를 발굴·제공하고 있으며 신문 등 각종 언론에서도 확정기여형 연금 우수교육 사례를 발굴·소개함.

○ 가입자 교육의 모범사례 중의 하나인 이온사는 DC 트레이너를 양성해 기업들이 DC형제도 도입 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CSK그룹은 강의교육보다 게임형식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근로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5. 시사점

■ 일본은 2002년 확정기여형 제도를 도입하면서 가입자 교육을 법령에 규정하였음에도 가입자 교육 실시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음.

○ 가입 시 교육 실시율은 높으나 계속교육의 실시율은 점점 낮아져 가입자들의 자산운용의 원리금보장상품 편중현상과 근로자의 투자지식 이해도 부족, 가입자 교육의 양극화, 무관심층의 대두 등의 문제점이 나타남.

■ 이런 상황에서 연금운용규제 완화에 따른 투자상품 다양화 등 가입자 교육의 환경변화는 가입자의 투자지식 이해도를 향상시켜 적절히 운용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가입자 교육의 필요성을 증대시킴.

○ 이에 일본은 가입자 교육 관련 법률을 적극 개정하고 퇴직연금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실질적 가입자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정비함.

7) 第12回社会保障審議会企業年金部会(2014, 11).

- 우리나라도 사적연금 활성화대책으로 DC형 운용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가입자 선택폭이 넓어지고 투자상품이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사례를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가입자 교육 검토가 요구됨.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시행령 등에 가입자 교육의 범위를 퇴직연금중심으로 한정하지 않고 연금제도 이해, 노후설계 등으로 보다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제도 도입 시 일시적인 가입자 교육이 아닌 지속적인 가입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가입자의 투자지식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 실질적인 가입자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차원에서 가입자교육 가이드라인(교육지침)을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가입자 교육의 모범사례를 발굴·전파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현재는 어느 수준으로, 어느 내용으로 가입자 교육을 하여야 하는지 구체적인 지침 등이 제시되지 않아 형식적인 가입자 교육에 그치고 있기 때문임.
 - 일본처럼 가입자 교육의 모범사례를 상시 발굴하여 제시함으로써 가입자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투자지식이 부족한 자영업자 및 영세사업장 근로자를 위해 별도의 가입자 교육전문기관을 설립·운영하거나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한 가입자 교육 실시가 요구됨.
 - 또한, 가입자 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일본의 DC Planner 및 DC Advisor 등과 같은 가입자 교육 전문자격제도의 도입 검토가 필요함.

〈참 고 문 헌〉

강창희(2015. 2), 「DC형 퇴직연금시장의 확대와 연금·투자교육」,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 통권 165호.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2. 4. 20), “퇴직연금설문조사결과 및 가입자가 꼭 알아야 하는 10가지 유의사항”.

김성일(2015. 10),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개선 방안”, 한국연금학회, 2015년 추계학술대회 및 좌담회 자료.

조혜진(2011. 5), 「퇴직연금제도가입자교육을 활용한 근로자 금융교육 방안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제4권 2호.

岡本裕介(2015. 9), 確定拠出年金法等改正: 年金制度の一層の拡充に向けて, 資本市場研究会.

国民年金及び企業年金等による高齢期における所得の確保を支援するための国民年金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2011年 法律 第93号.

企業年金連合会(2010), 『確定拠出年金に関する実態調査 調査結果』.

_____ (2014), 確定拠出年金(制度)に関する実態調査.

_____ (2015. 1), 確定拠出年金制度運営ハンドブック.

NPO確定拠出年金総合研究所(2014), 確定拠出年金企業担当者意識調査.

野村資本市場研究所(2015. 11), 衆議院を通過した確定拠出年金法改正法案-運用改善の鍵を握る「指定運用方法」の基準策定: アセット・マネジメント.

日本銀行(2011. 3), 資金循環統計速報, 2011年第1四半期.

日本証券業協会(2014. 4), 社会保障審議会 企業年金部会関係団体ヒアリング説明資料.

第12回社会保障審議会企業年金部会(2014. 11), 確定拠出年金における運用について.

JP Actuary Consulting(2011. 8), 年金確保支援法の解説.

確定拠出年金法並びにこれに基づく政令及び省令について(法令解釈).

厚生労働省(2011. 3), 「確定拠出年金における運用について」.

厚生労働省(<http://www.mhlw.go.jp/>).

◆ 국·내외 생명보험회사 부동산 투자 현황 비교 및 시사점

박선영 연구위원 · 이선주 연구원

1. 검토 배경

저금리 기조 속에 대체투자 수요 확대로 인해 글로벌 보험회사들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 투자 확대가 이어지고 있음. 이같은 글로벌 추세와는 달리 국내에서는 과거 개발 시기 보험회사의 부동산 투자제한 규제 정책이 일부 남아있어 국내 보험회사들의 다양한 수익성 부동산 투자 발굴이 제한적임. 이에 따라 본고는 국내·외 생명보험회사들의 부동산 투자환경 및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 부동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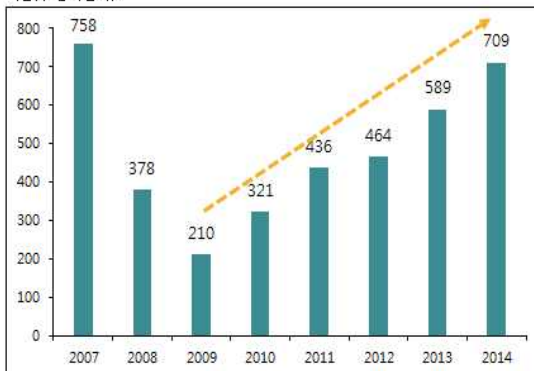
저금리 기조 속에 기관투자자들의 대체투자 수요가 확대되면서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투자 확대가 이어지고 있음.

○ 전세계 상업용 부동산 투자규모는 2014년 기준 7,090억 달러로 2013년 대비 20.4% 증가하였음.

○ 지역별로는 미국이 2014년 기준 2,691억 달러로 최대 규모를 기록한 반면에 한국은 106억 달러에 그쳤음.

〈그림 1〉 전세계 상업용 부동산 투자규모

(단위: 십억달러)



국가	상업용 부동산 투자규모 (십억 달러)	국가	상업용 부동산 투자규모 (십억 달러)
미국	269.1	홍콩	7.2
영국	106.5	이탈리아	7.0
독일	46.3	노르웨이	7.0
일본	43.4	아일랜드	5.4
프랑스	33.1	뉴질랜드	4.5
호주	26.9	폴란드	4.3
중국	19.2	벨기에	4.1
캐나다	19.1	오스트리아	3.6
스웨덴	16.3	태국	3.5
한국	10.6	스위스	3.1
스페인	9.8	체코	2.6
네덜란드	9.3	인도	2.3
싱가폴	8.1		

자료: Jones Lang Lassalle; 안남기·김윤선(2015),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현황의 배경 및 전망」, 국제금융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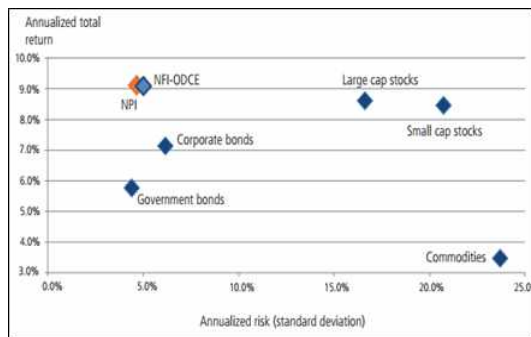
전세계 기관투자자들은 저금리 시대 자산운용 수익률 제고 차원에서 대체투자 확대의 일환으로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을 확대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부동산 투자의 경우 주요 선진국의 대도시에 위치한 오피스 빌딩 등 안전자산 위주로 투자할 경우 임대수익률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보장되어 대체투자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음.

- 지난 10년간 미국 NCREIF Property Index(NPI)를 분석한 결과 부동산은 주식, 채권 등 전통자산 대비 저위험-고수익 자산군으로 분류됨.

○ 지난 5년간 미국 오피스 시장 투자수익률은 10%에 이르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5% 내외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나타냄.

〈그림 2〉 자산 유형별 위험-수익 분포



주: Data from 1993Q3~2013Q2.

자료: Thomson Reuters Datastream; Metlife(2013), "US Core Real Estate: A Past, Present, and Future View", p. 6.

〈그림 3〉 한국과 미국 상업용 오피스 투자수익률 비교



자료: 국토교통부; NCREIF(National Council of Real Estate Investment Fiduciaries).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중국의 부동산 투자 관련 규제완화 움직임이 두드러짐.

○ 중국은 2009년 보험회사들의 국내 부동산 투자, 2012년 10월부터는 해외 부동산 투자를 허가하는 한편 부동산 투자제한 요건도 현행 자산 대비 20%에서 30%로 확대함.

○ 부동산 컨설팅 그룹인 CBRE는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향후 중국 보험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금액이 14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함.⁸⁾

이와 같은 글로벌 부동산 투자 규제 완화 기조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으로 일관되었던 규제의 잔재가 남아있어 보험회사의 부동산 투자 관련 규제 준비가 요구되고 있음.

8) CBRE(2013), "Chinese Capital Tapping into Overseas Real Estate Markets".

-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의 제한적인 부동산 투자는 과거 개발 시기에 보험회사의 부동산 투자를 투기 제한 목적에서 접근한 감독정책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음.
- 1990년 재무부의 금융기관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 조치 지시로 2,122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매각한 사례가 있음.

■ 본고는 장기투자가 가능한 기관투자자로서 생명보험회사들의 자본시장에서의 역할 및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 보험사와 기관투자자의 사례를 근거로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부동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재무건전성 규제와 수익성 악화로 인해 은행들이 자본시장에서 자금 공급처로서의 역할이 크게 축소된 가운데 비은행계 기관투자자로서 보험회사의 역할 제고 필요성이 국제적인 공감대를 얻고 있음.⁹⁾
- 글로벌 보험회사들의 부동산 투자전략을 점검해보고 해외 사례를 통해 국내 보험회사들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국내 부동산 투자환경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함.

2. 부동산 투자 현황

■ 부동산 투자는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로 나뉨.

- 직접투자(Direct Investment)는 투자자들이 직접 실물 자산인 건물을 보유하여 임대수익을 올리거나 매매각에 따른 평가 차익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투자 행위로 정의함.
- 간접투자(Indirect Investment)는 전문(금융)기관을 통해 투자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매매에 따른 평가 차익보다는 부동산 자산 연계 금융상품에 투자해 이에 따른 수익배당을 주로 받는 투자 행위를 일컫음.
 - 부동산펀드, 리츠(REITs), 상업용 부동산 대출 등이 이에 해당됨.

9) Oliver Wyman(2013), "Funding the future: Insurers' role as institutional investors".

가. 국내 부동산 투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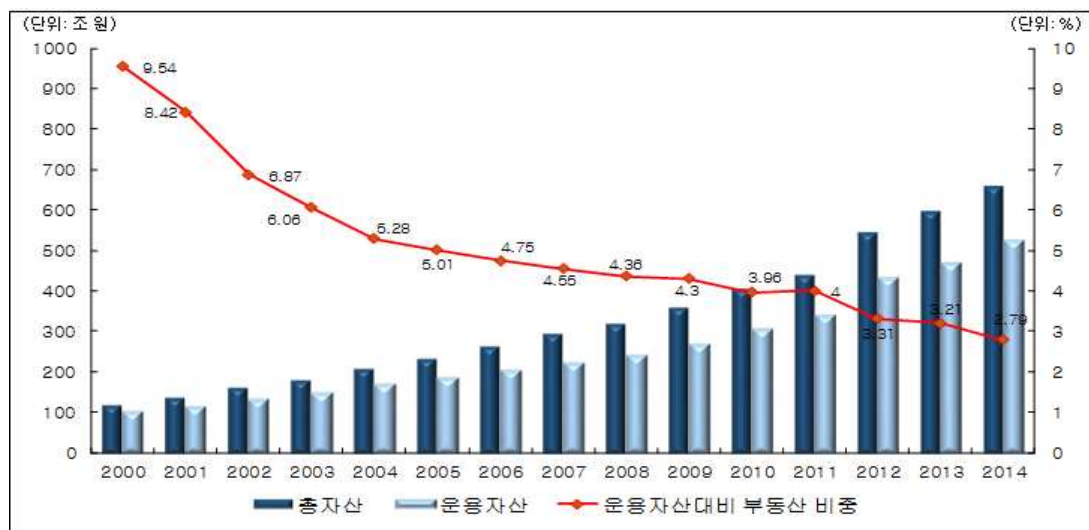
1) 직접투자

■ 국내 보험회사의 운용자산 대비 부동산 직접투자 비중은 높지 않은 편임.

○ 우리나라 생명보험 회사의 부동산 직접투자 비중은 2014년 기준 운용자산 대비 2~3% 수준으로 나타남.

-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총자산과 운용자산의 증가로 인해 운용자산 대비 부동산 직접투자 비중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 왔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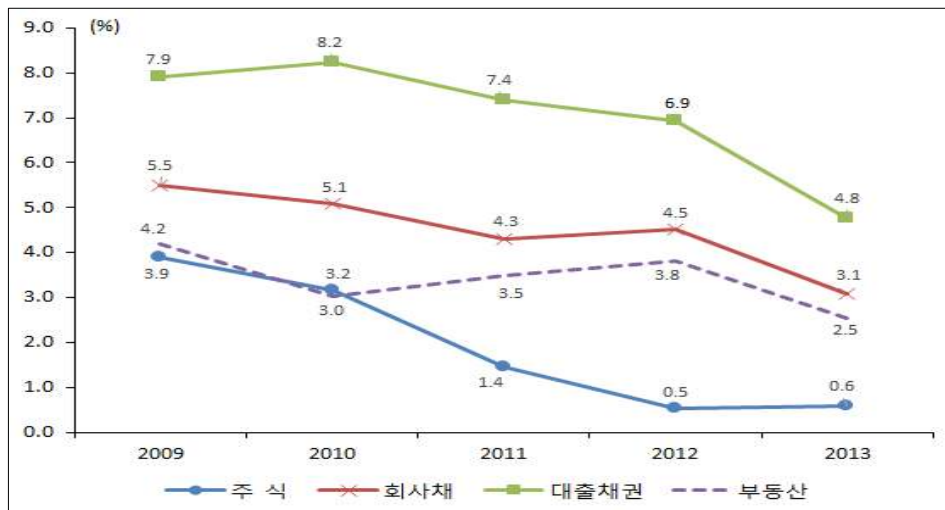
〈그림 4〉 국내 생명보험회사 부동산 투자 추이



자료: 월간생명보험통계.

■ 우리나라 보험업계의 운용자산별 수익률 추세를 보면 부동산은 3% 내외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는 데 반해 주식, 회사채, 대출채권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5〉 국내 생명보험회사 운용자산별 수익률 추세



자료: 생명보험협회.

2) 간접투자

■ 최근 들어 저금리 기조 속에 대체투자 발굴에 주력하고 있는 국내 보험회사들이 서서히 부동산 간접투자에 눈을 돌리고 있음.

○ 동부화재, 신한생명, 동부생명 등 7개 금융사는 2015년 메자닌금융(Mezzanine) 형태로 2조 4,000억 원 규모의 오피스빌딩 인수에 참여기로 함.¹⁰⁾

○ 한화생명은 자산운용 다각화를 위해 2015년 8월 ‘한화 Debt Strategy 사모부동산투자 신탁 6호(가칭)’에 약 3,000억 원을 출자해 미국 우량 인프라 및 수익성 부동산 선순위 대출에 투자함.

○ 최근 정부의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2014년 일부 국내 보험회사들은 국토부 주선의 임대주택 리츠 사업에 3,100억 원을 투자한 바 있음.¹¹⁾

■ 생명보험회사들이 부동산 간접투자(수익증권, 대출채권)를 고려할 경우 회사채와의 상

10) 지상 41층, 연면적 11만 1,486㎡ 규모인 쓰리 브라이언트 파크'는 뉴욕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건물 중 하나로 메트라이프, 버라이즌 등 글로벌 기업들이 장기 임차하고 있음. 총 투자규모는 전체 거래대금의 약 10%인 2,400억 원이며, 투자기간은 10년, 투자수익률은 운용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5.15%가 될 전망이다.

11) 서울지역 이외에는 6%대의 수익률을 올리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어 임대주택리츠 사업이 활성화되기에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라는 분석도 있음.

관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국내 생명보험사들의 운용자산별 수익률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부동산의 경우 대부분의 자산과 네거티브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일반적으로는 실물 부동산의 수익률이 주식, 채권 등 전통자산과는 낮은 상관관계를 보여 포트폴리오 다각화 차원에서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인식되어 왔음.¹²⁾

〈표 1〉 운용자산별 수익률 상관관계 분석

구분	현금 및 예금	주식	국공채	회사채	수익 증권	해외 유가증권	대출 채권	부동산
현금 및 예금	1	—	—	—	—	—	—	—
주식	0.65*	1	—	—	—	—	—	—
국공채	0.87*	0.74*	1	—	—	—	—	—
회사채	0.89*	0.71*	0.95*	1	—	—	—	—
수익증권	0.04	0.24	-0.05	-0.04	1	—	—	—
해외 유가증권	0.43	0.45	0.48	0.56*	-0.19	1	—	—
대출채권	0.74*	0.83*	0.87*	0.79*	0.2	0.38	1	—
부동산	-0.05	-0.11	0.08	-0.03	-0.24	-0.33	0.29	1

주: 2000년~2013년 운용자산별 수익률.

나. 해외 부동산 투자 현황

1) 직접투자

■ 해외의 경우도 부동산 자산 가격 변동성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 생명보험회사 전체 운용자산에서 부동산 직접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낮은 편임.

○ 2013년 기준 생명보험업계 부동산 직접투자 비중은 스위스(12.3%), 호주(10.5%), 영국(4.0%), 프랑스(3.5%), 한국(3.1%), 일본(1.9%) 등으로 나타남.

- 유럽 전체(2011년 기준)로는 유럽 보험사들의 운용자산 중 4%를 부동산 직접투자가 차지함.

12) Galtner et al.(2007), "Commercial Real Estate Analysis & Investments", pp. 134~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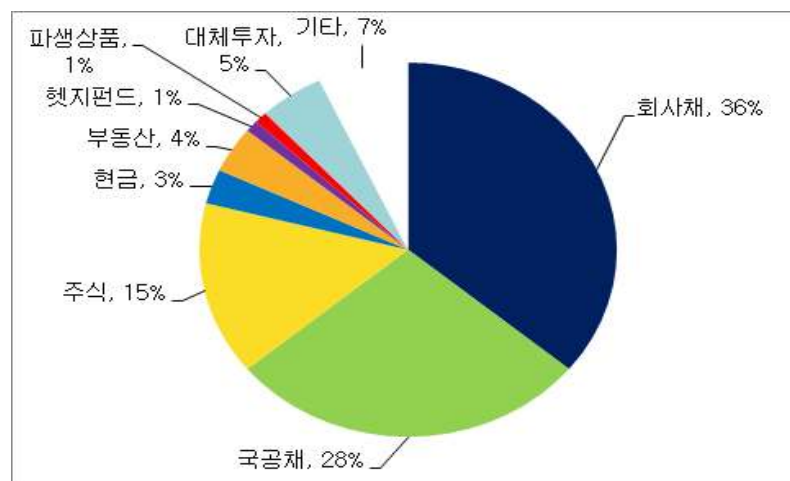
〈표 2〉 주요국 부동산 직접투자 현황

(단위: %)

국가명	채권(%)	주식(%)	부동산(%)	기타(%)
스위스	62.29	1.92	12.34	23.45
노르웨이	64.29	13.08	12.15	10.48
호주	70.89	14.95	10.51	3.65
영국	60.91	14.47	3.96	20.67
프랑스	75.93	19.46	3.47	1.14
핀란드	27.86	16.27	3.14	52.73
한국	55.22	5.10	3.10	36.58
스웨덴	52.31	36.86	2.81	8.02
일본	68.40	6.96	1.86	22.78
그리스	66.61	1.14	1.84	30.41
독일	38.69	3.70	1.84	55.77
네덜란드	36.75	7.40	1.72	54.13
오스트리아	72.93	9.53	1.51	16.03
벨기에	63.79	12.40	1.25	22.56
스페인	75.14	3.39	1.25	20.22
미국	74.00	3.82	0.63	21.55

자료: OECD(2014), "Global Insurance Market Trend".

〈그림 6〉 유럽 보험회사들의 자산운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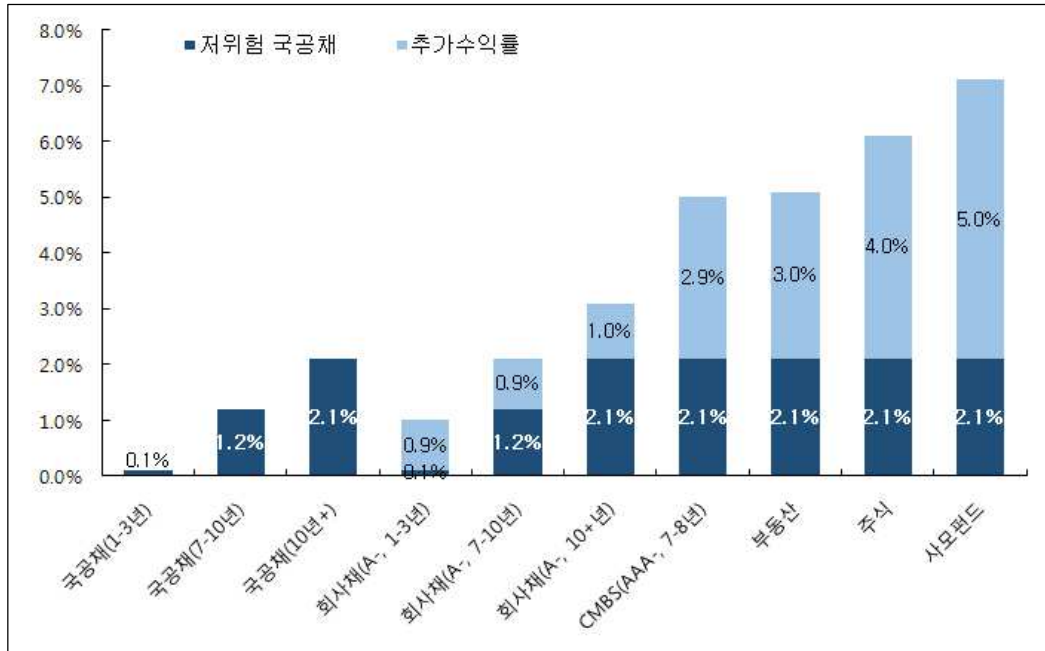


자료: Oliver Wyman(2013), "Funding the future; Insurer's role as institutional investors", pp. 19-21.

■ 수익률 분포(2011년 기준) 측면에서도 부동산 투자는 국공채나 회사채에 비해 양호한 추가 수익률 분포를 보이고 있음.

○ 투자자산 유형별 수익률 분포를 보면 부동산 투자의 경우 3% 가량의 추가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됨.

〈그림 7〉 자산유형별 투자수익률 비교



자료: Oliver Wyman(2013), "Funding the future; Insurer's role as institutional investors", pp. 19~21.

■ 아시아계 생명보험회사들의 부동산 투자비중도 최근 들어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2~4% 내외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2011년 기준 아시아계 생명보험회사들의 운용자산 대비 부동산 직접투자 비중은 대만이 4.7%로 가장 높았고 싱가포르는 3.8%, 한국과 일본은 각각 2.8%와 2% 수준이었음.

〈표 3〉 아시아계 보험회사의 부동산 투자 규모

2011년 기준	생명보험업계 운용자산(AUM) (십억 달러)	부동산(직접) 투자 비중(%)	부동산 직접투자 제한(%)	주요투자자
일본	3,257.5	2.0	20	닛세이생명보험, 메이지야쓰다생명, 다이치 생명보험
한국	438.7	2.8	15	삼성생명, 교보생명
대만	381.5	4.7	19	케세이생명보험, 차이나생명보험, 푸본생명, 난산 생명, 신콩생명
싱가포르	106.5	3.8	20	NTUCIncome생명보험, 그레이트이스턴 생명보험

자료: CBRE(2013), "An Expanding Horizon: Chinese Capital Tapping into Overseas Real Estate Markets", p. 12.

2) 간접투자

■ 미국, 영국 등은 일찍부터 부동산 자산을 기초로 한 금융시장이 발달한 결과 해외 보험 회사의 부동산 간접투자가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활발한 편임.

가) 미국

■ 미국의 경우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및 간접투자 상품시장이 발달하면서 직접투자에 비해 상업용 부동산 대출 및 상업용 부동산 저당채권 유동화증권(Commercial Mortgage-Backed Securities, 이하 'CMBS') 시장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

○ 미국 전체 부동산 투자 중 부동산 대출이 전체 시장의 57.4%, CMBS(26.2%), REITs, 조인트 벤처 투자 등은 각각 10% 미만을 차지하고 있음.

〈표 4〉 미국 생명보험회사의 상업용 부동산 투자 현황

구분	생명보험(백만 달러)	비중(%)
상업용 부동산 대출	324,390.20	57.40
CMBS	148,159.90	26.22
REITs	39,427.20	6.98
부동산보유	23,935.50	4.24
조인트 벤처투자	29,241.00	5.17
총합	565,153.80	100.0

자료: NAIC(2013), "Capital Markets Special Report: Insurance Industry's Exposure to Commercial Real Estate".

나) 영국

■ CMBS 관련 부동산 투자가 발달한 미국과는 달리 영국에서는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Commercial Real Estate Debt, 이하 'CRE Debt') 시장 중심으로 보험회사의 부동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 영국 보험회사의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 투자가 증가한 배경은 다음과 같음.

○ 첫째, Basel III 도입 등 은행권 자본규제 강화로 인해 은행의 자금 공급이 위축되면서 이들의 빈자리를 보험회사가 대체하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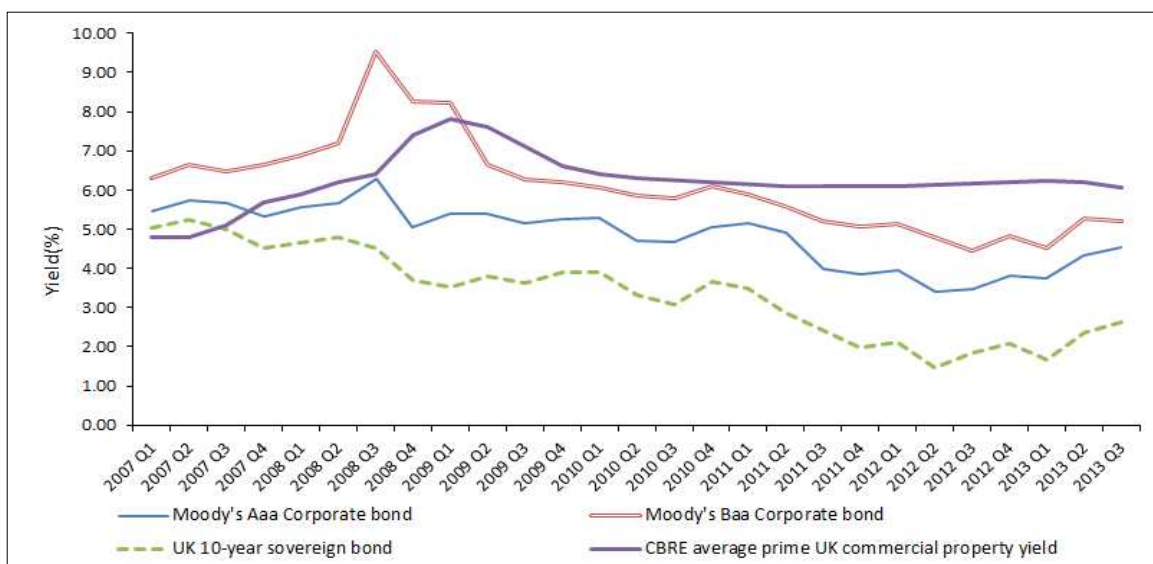
- 둘째, 장기 듀레이션에 노출된 보험회사의 부채 구조는 비유동성 프리미엄을 겨냥한 부동산 투자에 은행산업보다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음.
- 셋째, 부동산 담보대출(CRE debt)의 경우 급격한 신용위험 하락이 발생하더라도 담보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자금을 회수할 수 있고 최근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채권의 투자 프리미엄이 확대된 측면도 수익률 제고에 기여하였음.

■ 최근 영국의 보험회사들은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음.

- 2012년 메트라이프는 런던의 2억 6,400만 달러의 Broadgate West office complex를 포함하여 431억 달러를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함.
- 2013년 7월 Friend 생명은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 푸르덴셜 금융과 함께 5억 파운드의 투자지침서를 발표함.
- 2013년 9월 Standard 생명보험은 상업용 부동산에 2억 5,000 파운드를 투자함.

■ DLA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금융위기 이후 영국 우량 상업용 부동산의 평균수익률은 회사채나 국채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8〉 2007년 금융위기 이후 회사채 · 국채 대비 상업용 부동산 투자수익률 추이



주: CBRE average prime UK commercial property yield의 경우 2009년 3분기, 2010년 3, 4분기, 2011년 1분기, 2012년 1, 2, 3분기의 데이터가 없어 추세를 반영하여 연결함.

자료: DLA PIPER(2012), "Searching for Investment: Insurers as Lenders", p. 38;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US); CB Richard Ellis; <http://www.investing.com>.

다) 중국

■ 중국의 보험회사들은 정부 규제가 풀린 2012년 이후 미국과 유럽 등 해외 부동산에 투자 규모를 늘리고 있음.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CIRC)는 2012년 보험회사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부동산 비중 상한선을 15%에서 30%로 확대하였고, 2014년 2월에는 종목별 해외자산 비중 상한선 규제를 폐지하였음.

○ 중국 보험회사들의 해외 부동산 총 투자규모는 2014년 136억 달러, 2015년 4월 기준 25억 달러에 달함.

- 연합뉴스¹³⁾에 따르면 중국 생명보험과 평안보험은 미국 부동산 개발업체인 티시먼 스파이어가 추진 중인 보스턴 재개발 사업에 5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임.

■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 회사인 존스 랑 라살(JLL)에 따르면 2014년 중국 기업의 해외 부동산 투자규모는 165억 달러(약 18조 3,000억 원)로 그중 70%인 112억 달러는 오피스텔과 호텔 등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함.

○ 부동산 컨설팅 자문업체 나이트프랭크(Knight Frank)는 중국의 해외 부동산 투자규모가 2009년 6억 달러에서 2013년 128억 달러로 급증했다고 발표함.

○ 이같이 급격한 해외 부동산 진출 증가의 배경에는 시장 개방으로 인한 해외 투자기회 확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부동산 투자수익률 등이 손꼽힘.

다. 글로벌 보험회사들의 부동산 투자전략

■ 저금리 시대에 글로벌 보험회사들은 비유동성 프리미엄(illiquidity premium)에 대한 기대감 속에 다양한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나서고 있음.¹⁴⁾

○ 파이낸셜타임스¹⁵⁾에 따르면 유럽의 생명보험회사들은 안정적인 장기임대료 수입을 목적으로 학생기숙사, 건강요양시설 등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음.¹⁶⁾

13) 연합뉴스(2015. 4. 8), “중국 양대보험사들, 미국 부동산 투자 첫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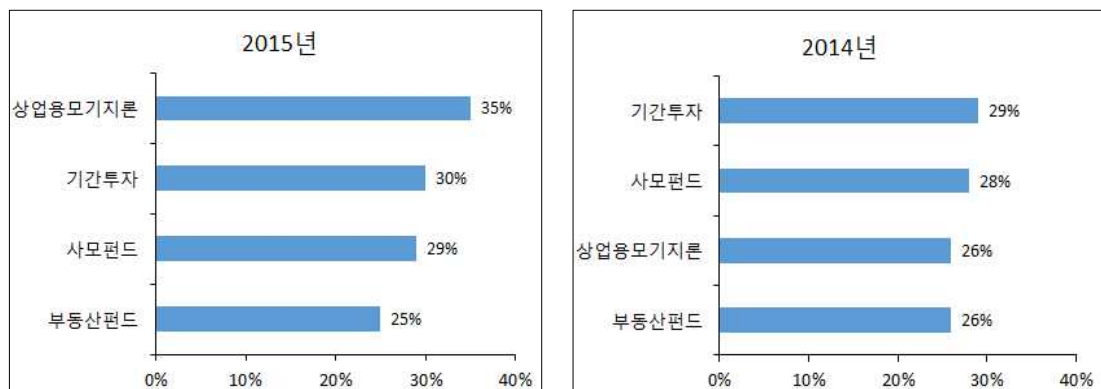
14) 박선영(2015. 3. 2), 「보험회사 부동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언」, 『KIRI Weekly』, 보험연구원, pp. 3~4.

15) 파이낸셜타임스(2014. 5. 27), “M&G and ING push insurance cash into real estate investment”.

- 독일계 생보사인 알리안츠는 고속도로, 경기장, 대체에너지 개발 등 대체투자 사업에 2013년 이후 4억 달러를 투자했음.

■ 골드만삭스가 2015년 글로벌 보험회사 CFO·CIO 2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향후 대체투자 가운데서도 상업용 모기지론, 부동산 펀드 등 부동산 관련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그림 9〉 글로벌 보험회사 대체투자 전망



주: “향후 1년 이내에 해당 자산의 투자 비중을 증가, 감소, 유지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비중 가운데 증가(%)와 감소(%) 응답률 차이.

자료: Siegel M.H. & Athans A.L. (2014), 「Goldman Sachs Asset Management Insurance Survey: Risk On ... Reluctantly」, p. 20 재정리함.

■ 글로벌 보험회사들은 수익률 제고와 대체투자 확대의 일환으로 부동산 펀드에 대한 투자 규모를 점차 늘려가고 있음.

○ Towers Watson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펀드 상위 투자자 목록에 보험회사 계열 부동산 자회사 및 투자회사들이 상위에 오름.

- 2014년 기준 보험회사 계열 부동산 투자전문 자회사 가운데 AXA Real Estate 경우 부동산펀드 운영자산 규모가 609억 달러, Prudential, Aviva 등도 300억 달러 내외의 부동산펀드를 운영 중에 있음.

- 16) 영국계 푸르텐셜의 투자운용 자회사인 M&G는 2013년부터 2014년 사이에 장기임대계약 매물에 집중 투자하는 부동산펀드에 총 9억 파운드를 투자해 상업용 오피스에서 상가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투자를 다각화하고 있음. 네덜란드계 ING 투자운용은 보험회사 Nationale-Nederlanden 등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7억 5,000만 유로의 상업용 부동산 펀드를 조성했음.

〈표 5〉 유럽 주요 보험회사 투자규모

순위	투자자	국가	총 운영자산 (AUM) (백만 달러)	자산 유형
5	AXA Real Estate	프랑스	60,936.19	Direct Real Estate Funds
33	Prudential Real Estate Investors	미국	35,774.60	Direct Real Estate Funds
43	Aviva Investors	영국	30,742.61	Direct Real Estate Funds
88	Legal and General Property	영국	19,877.00	Direct Real Estate Funds

자료: Towers Watson(2014), "Global Alternatives Survey 2014", pp. 20~23.

■ 일부 글로벌 보험회사들은 부동산 관련 자회사를 설립해 모회사의 투자용 부동산 관리 뿐 아니라 부동산 관련 해외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지만, 보험회사 계열의 부동산 자회사는 보험회사 자산운용상의 특징을 반영해 부동산 전문투자회사와는 차별화된 투자전략이 필요함.¹⁷⁾

○ 글로벌 보험회사의 부동산 자회사들은 핵심자산(Core Asset) 위주로 안정성 위주의 투자전략을 취하는 데 반해 독립된 부동산 전문투자회사들은 향후 부동산 개발이익 창출을 목표로 현재 저평가된 상업용 부동산을 적극 발굴해 고수익을 추구하는 가치 창출자산(Value-Added Asset) 위주의 투자전략을 선보이고 있음.¹⁸⁾

○ 글로벌 보험사인 Prudential과 MassMutual은 업무용 부동산의 경우 In-House 조직에서 관리하는 반면에 투자용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전문 자회사를 설립해 위탁관리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독자적인 수익창출 기관으로 변모하고 있음.

17) 박선영(2014. 6. 23), 「글로벌 보험회사의 부동산 투자전략과 시사점」, 『KIRI weekly』, 보험연구원, pp. 5~6.

18) 핵심자산(Core Asset)은 장기적인 임대료 상승과 자산 가치 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부동산 자산으로 주로 입지 및 시설용도, 임대수입의 안정성 면에서 높은 등급을 받는 상업용 부동산을 말함. 반면에 가치창출자산(Value-Added Asset)은 용도 및 시장성 측면에서 현재 상태로는 가치가 낮지만 재개발 혹은 임차인 갱신을 통해 잠재적 가치를 창출할 경우 핵심자산으로서의 위상을 획득할 가능성이 있는 자산을 의미함. 일반적으로 가치창출자산은 핵심자산에 비해 변동성이 높고 투자의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개발 사업이 성공할 경우 고수익을 올릴 수 있음. LaSalle의 "ISA 2013" 보고서에 따르면 핵심자산의 평균 수익률(금융부채 제외)은 6%(표준편차는 2%)인데 반해 가치창출자산의 평균 수익률(금융부채 제외)은 12.4%(표준편차는 7%)였음.

〈표 6〉 보험회사와 독립 부동산 전문 투자회사의 투자전략 비교

비교	보험회사 계열 부동산 자회사	독립 부동산 전문 투자회사
특징	• 핵심자산(Core Asset) 중심 투자 • 고수익보다는 투자 안전성 위주 • 모회사의 자산포트폴리오 운용전략에서 자유롭지 못함	• 가치창출(Value-Added Asset) 중심 투자 • 고수익 추구 가능 • 다양한 투자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자유로운 포트폴리오 운용
사례1	• PREI(Prudential Real Estate Investors) - Prudential의 부동산 자회사 - 초기에는 모회사의 투자용 부동산 관리 업무와 모회사의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부동산 자산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 - 최근에는 모기업 위탁운용규모가 전체 운용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고 독자적인 수입 창출 기관으로 모회사 수익증대에 기여	• LaSalle Investment Management - 전세계 18개국에 걸쳐 2013년 3분기 기준 476억 달러 규모의 부동산 펀드 및 부동산 관련 채권 투자 - Real Estate Transparency Index 및 전세계 부동산 투자관련 동향을 정기적으로 발표
사례2	• Cornerstone Real Estate Advisers - MassMutual의 부동산 자회사 - 초기에는 주로 모회사의 투자용 부동산을 관리하는 조직으로 출범하였으나 최근에는 독자적인 수입창출 기관으로서의 견지 확보	• CBRE - 전세계 42개국 진출, 831억 달러 규모의 부동산 임대사업 영위 - 건물임대 관리, 대출 및 대출관련 부대 업무, 부동산 관련 투자 및 자문서비스,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다양한 부동산 투자업무 수행

자료: 박선영(2014, 6, 23), 「글로벌 보험회사의 부동산 투자전략과 시사점」, 『KIRI weekly』, 보험연구원, p. 6.

3. 부동산 투자 관련 규제환경

가. 국내 부동산 투자 규제환경

■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직접투자와 관련해서는 보험회사의 투자목적별로 업무시설용과 투자사업용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음.

○ 우리나라 보험업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 공공성 사업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투자사업용으로 인정돼 보험회사의 투자용 부동산의 경우에도 사실상 공공성 사업으로 제한되어 다양한 수익형 부동산 사업에 투자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부동산 간접투자와 관련해서는 위험기준 자기자본(RBC) 기준상 부동산 투자의 경우 다양한 위험요인별 위험계수가 세분화되어 있지 못해 부동산 간접투자 시 제약요건이 존재함.

○ 2015년 5월 발표된 재무건전성 규제 제도 개선안¹⁹⁾에 따르면 그동안 수익증권 투자금액 전체에 대해 12%의 일괄적인 위험계수를 적용했던 방식을 수정해 자산별(채권, 주식 등) 위험계수 구분을 적용기로 하였음.

- 담보대출의 경우 금융자산의 담보인정금액만큼 차감하고 차주의 위험계수 적용기로 함.
- 아울러 업무시설용 부동산에 적용되는 위험계수는 6%, 투자사업용 부동산의 경우 9%를 적용기로 함.

○ 이번 개선안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 위험 측정 시 보다 다양한 위험측정 지표들을 활용해 여전히 일률적인 위험계수를 보다 전문화하고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 국내와는 대조적으로 미국은 개별 모지기 채권의 상환 스케줄 및 현금흐름 등을 상세하게 반영한 세분화된 위험계수 조정 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그림 10〉 보험회사 부동산 투자 관련 규제 현황

보험업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RBC 제도(변경안)
<용도에 따른 부동산 구분> ① (업무시설용) - 영업장 - 연수시설 - 임원 또는 직원의 복리후생시설 및 이에 준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토지·건물과 그 부대시설. ② (투자사업용) - 사회복지사업: 주택사업, 부동산임대사업, 장묘사업 - 공공성 사업: 도시재개발사업, 사회기반시설사업 - 해외부동산업을 위한 토지·건물 및 그 부대시설	<신용리스크> (자산 항목별 신용위험계수) - 부동산: 투자사업용 9%, 업무시설용 6%¹⁾ - 사회기반시설 관련 부동산: 4.5%²⁾ - 사회기반시설 관련 주식: 6% - 부동산프로젝트 관련 주식, 부동산: 12% * 사회기반시설 및 부동산프로젝트에 대하여 주식(equity) 형태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위험계수 별도 적용

주: 1) 투자사업용 부동산의 경우 2015. 12. 30까지는 6%, 2015. 12. 31부터 2016. 12. 30까지는 7.5%, 2016. 12. 31부터는 9%의 신용위험계수를 적용하며, 업무시설용 부동산은 2015. 12. 30까지는 4%, 2015. 12. 31부터 2016. 12. 30까지는 5%, 2016. 12. 31부터는 6%를 적용함.

2) 사회기반시설 관련 부동산의 경우 2015. 12. 30까지는 3%, 2015. 12. 31부터 2016. 12. 30까지는 3.75%, 2016. 12. 31부터는 4.5%의 신용위험계수를 적용함.

자료: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표 7〉 부동산 투자 관련 자산운용 규제완화 비교

구분	개정 이전	개정 이후
한도확대	• 해외투자: 총자산의 20% • 부동산 소유: 총자산의 15% • 선물거래 위탁증거금: 총자산의 3%	• 해외투자: 총자산의 30% • 부동산 소유: 총자산의 25% • 선물거래 위탁증거금: 총자산의 5%

주: 법상 한도를 확대하였으나, 시행령으로 이전과 동일하게 한도 유지.

자료: 생명보험협회(2010), 「생명보험협회 60년사」.

19)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5. 5. 8),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 등 관련제도 개선 추진”.

나. 해외 주요국의 규제환경

■ 해외 주요국의 부동산 직접투자 관련 규제의 경우 총자산 기준 제한 규정의 존재 유무가 국가별로 상이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 국가별로는 캐나다(부동산과 주식을 합쳐 25% 이내), 핀란드(40%), 독일(25%), 일본(20%), 네덜란드(10%), 영국(제한한도 없음) 등임.

○ 미국의 경우 주(state) 별로 규정이 상이해 델라웨어주는 부동산 최대 25%, 뉴저지주는 부동산 최대 10%, 부동산담보대출은 10%까지 투자 한도를 제한하고 있음.

〈표 8〉 주요 OECD 국가의 생명보험 자산운용 한도 규제

(단위: %)

국가	채권		주식	모기지	부동산	대출	현금
	회사채	국공채					
한국	100	100	40	100	25	100	100
호주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네덜란드	N	N	N	N	10	8	3
영국	N	N	N	N	N	N	3
미국	주별로 상이한 규제를 두고 있으며, 주로 주식, 부동산, 모기지대출에 대해 비율규제 있음						
프랑스	65	100	65	10	40	10	N
독일	50	50	30	50	25	50	N
일본	10	100	30	N	20	10	N
노르웨이	30	100	35	30	100	1	100
폴란드	5	100	30	5	25	N	100
포르투갈	60	60	50	25	45	25	20
스페인	100	100	100	45	45	5	3
스웨덴	50	100	25	25	25	N	3
스위스	N	N	30	N	N	N	
터키	2	N	25	N	15	5	3

주: 1) 음영으로 표시된 국가는 선관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이며, 나머지 국가는 비율규제를 채택하고 있음.

2) N: 규제 없음, Y: 규제 존재, NA: not available.

자료: OECD Directorate for Financial, Fiscal and Enterprise Affairs Insurance Committee, *Investment Regulation of Insurance Companies and Pension Funds: Issues for Discussion*, 2001, 6, p. 25; 김재현 외(2001), 「생명보험산업의 자산운용규제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 p. 33 재인용.

■ 미국은 부동산 금융위기 이후 모기지 채권에 대한 신용위험을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해 기존의 평균치 적용 방식의 위험계수 적용 방식을 탈피해 개별 모지기 채권의 상환 및 신용등급 등을 상세하게 반영한 세분화된 위험계수 조정 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 기존의 방식은 기준 자기자본(RBC) 위험계수에 모기지 경험조정치(MEAF)를 적용해 평균 예상손실이나 극단손실을 예상해 계산됨.
 - 원리금 상환이 제대로 이뤄지는 모기지의 경우 기준 자기자본 위험계수는 2.6%, 경험 조정치는 2008년 이전 모기지는 50~350%, 2009~2012년은 80~175%를 적용함.
- 2000년 이래로 부동산 직접투자에는 15%의 위험계수²⁰⁾가 적용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 NCREIF Property Index(이하 'NPI')를 기준으로 한 과거 부동산 투자수익률을 감안할 때 이같은 위험계수를 8%까지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었음.²¹⁾
- 미국 생명보험협회(American Council of Life Insurers)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지난 5년간 생보업계의 부동산 투자 누적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평균 3.5%의 누적손실을 기록해 위험계수 8%보다는 낮은 수치를 기록했음.

- NAIC에 의해 2013년 7월 채택되어 2013년 새로 개편된 방식에서는 회사채와 유사하게 신용도, 부채상환가능비율(Debt Service Coverage, 이하 'DSC'),²²⁾ 담보비율(Loan-To-Value, 이하 'LTV') 등을 고려해 매트릭스를 적용, 위험도에 따라 서로 다른 위험계수를 적용받게 됨.
-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DSC가 높고 LTV가 낮아 건전성이 높고 부도 위험성이 낮은 모기지론의 경우에는 RBC기준 위험계수가 위험도 반영에 따라 낮아짐.

〈표 9〉 DSC-LTV 반영 매트릭스 예시

NAIC	CM	RBC	기준
1	—	0.40%	AAA,AA,A
—	1	0.90%	DSC ≥ 1.5x, LTV < 85%
2	—	1.30%	BBB
—	2	1.75%	0.95x ≤ DSC < 1.5x, LTV < 75%
—	3	3%	DSC < 0.95x, LTV < 85%
3	—	4.6%	BB
—	4	5%	DSC < 1.15x, LTV < 100%
—	5	7.5%	DSC < 0.95x, LTV ≥ 105%
4	—	10%	B

자료: SOA(2013), Annual Meeting 발표자료.

20) 부동산의 경우 일반 주식의 변동성의 60%라는 가정하에 도출됨.

21) 95% 손실가능성을 감안한 누적 수익률, 평균 2.25년의 보유기간 등을 감안하여 계산된 결과임.

22) DSC = Net Operating Income / Debt Services

■ 미국에서는 DSC, LTV에 따른 모기지론의 신용도 계수 차등화로 인해 신용위험에 따른 적절한 리스크 측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함.

- 평균 위험계수 적용방식과는 달리 개편안의 경우 비즈니스 환경과 거시 경제 변화에 따른 시장 변화를 적시에 반영하며 기타 자산, 특히 회사채 평가기준과 일치하는 일관된 자본요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4. 개선방향 및 시사점

국내 생명보험회사들은 부동산 가격 등락에 따른 투자위험이 상대적으로 크고 축적된 투자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직접투자보다는 간접투자를 중심으로 부동산 투자 확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간접투자 확대에 따른 위험관리를 위해 부동산 자산 리스크 측정 기준을 다양화하여 상업용 부동산 투자 관련 위험계수를 보다 세분화하고 전문화할 필요성이 있음. 아울러 보험회사들의 부동산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부동산 투자 수익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상업용 부동산 시장 관련 다양한 수익성 지표 개발에 나서야 함.

■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및 간접투자 상품시장이 발달하면서 생명보험회사들의 부동산 간접투자가 활발한 편임.

- 미국의 경우 전통적으로 상업용 부동산 저당채권 유동화증권(Commercial Mortgage-Backed Securities, 이하 'CMBS') 시장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다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CMBS 시장이 붕괴되면서 상업용 대출시장이 큰 폭으로 늘었음.
- 영국의 경우 CMBS 시장보다는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Commercial Real Estate Debt, 이하 'CRE Debt') 시장 중심으로 보험회사의 부동산 투자가 이루어짐.

■ 국내 보험회사들의 경우 글로벌 보험회사들과 같이 다양한 수익형 부동산 사업에 대한 노하우와 전문성이 축적되기 전까지는 부동산 펀드나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 등 부동산 간접투자 중심의 투자 전략에 나서야 함.

- AXA, Prudential, Aviva 등의 경우 부동산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음.

○ Prudential과 MassMutual은 부동산 전문 자회사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음.

■ 직접투자 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수익성 제고와 대체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보험회사가 다양한 수익형 부동산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용 부동산의 적용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미국, 영국의 경우 보험회사들이 주택사업, 신사옥 건설 프로젝트, 요양사업 등 다양한 부동산 수익사업에 투자하고 있음.

■ 간접투자 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장기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핵심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 투자 목표 수익률과 물건별 특성에 따른 위험계수 조정이 요구됨.

○ 핵심 부동산 자산(Core Asset), 가치창출 부동산 자산(Value-Added Asset) 등 부동산 투자유형과 위험에 따라 적절한 위험계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해 보임.

- 이번 재무건전성 규제 제도 개선안에 따라 상당수 부동산 관련 투자 위험계수가 차등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여전히 부동산 담보대출 등의 경우 리스크 측정 기준의 세분화가 요구되고 있음.

- 차주의 신용도뿐 아니라 담보대출 상환 일정에 따른 현금흐름 및 부채상환가능비율(DSC) 등을 통해 리스크 측정 기준을 보다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음.

■ 생명보험회사의 부동산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부동산 투자 수익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상업용 부동산 시장 관련 다양한 수익성 지표 개발에 나서야 함.

○ 미국의 경우 NPI, NCREIF 등 다양한 인덱스가 존재해 부동산 가격 예측성 증대

○ 최근 국내에서 미국의 Case-Shiller Index에 준하는 부동산 거래 지표 개발에 나서기로 한 점 등은 향후 수익률을 예측하고 표준화된 수익성 측정을 통한 성과측정에 민감한 생명보험회사의 부동산 투자 활성화를 가져오는데 고무적인 현상으로 평가됨.

<참 고 문 헌>

- 강형구 · 이창민 · 이상엽 (2012), 「영미 선진기업의 부동산투자 사업전략」, 『영미연구』, 제27집.
- 고광수 · 김근수(2005), 『한국 일본 중국의 기관투자자 비교 연구』, 한국증권연구원.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5. 5. 8),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 등 관련제도 개선 추진”.
- 김재현 · 이경희(2001), 『생명보험산업의 자산운용규제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
- 남재우 · 조훈(2007), 『국민연금 부동산투자의 공정가산출 및 성과평가방안』, 국민연금연구원.
- 박선영 (2014. 6. 23), 「글로벌 보험회사의 부동산 투자전략과 시사점」, 『KIRI weekly』, 보험연구원.
- _____ (2015. 3. 2), 「보험회사 부동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언」, 『KIRI Weekly』, 보험연구원.
- 생명보험협회(2010), 『생명보험협회 60년사』.
- 안남기 · 김윤선(2015),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활황의 배경 및 전망』, 국제금융센터.
- 이투데이(2015. 3. 9), “상업용 부동산, 글로벌 유동성 빨아들이는 블랙홀”.
- Towers Watson(2014), 『우체국예금 해외대체투자 운용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
- 파이낸셜타임스(2014. 5. 27), “M&G and ING push insurance cash into real estate investment”.
- CBRE(2013), “An Expanding Horizon: Chinese Capital Tapping into Overseas Real Estate Markets”.
- DLA PIPER(2012), “Searching for Investment: Insurers as Lenders”.
- Metlife(2013), “US Core Real Estate: A Past, Present, and Future View”.
- NAIC(2013), “Capital Markets Special Report: Insurance Industry's Exposure to Commercial Real Estate”.
- OECD Directorate for Financial, Fiscal and Enterprise Affairs Insurance Committee(2001. 6),
Investment Regulation of Insurance Companies and Pension Funds: Issues for
Discussion.
- OECD(2014), “Global Insurance Market Trend”.
- Oliver Wyman(2013), “Funding the future; Insurer’ role as institutional investors” .
- Siegel M.H. & Athans A.L.(2014), “Goldman Sachs Asset Management Insurance Survey: Risk On
Reluctantly”.
- SOA(2013), Annual Meeting 발표자료.
- Towers Watson(2014), “Global Alternatives Survey 2014”.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fss/fsi/id/fssmain.jsp>).

Bloomberg(<http://www.bloomberg.com>).

Eurostat(<http://ec.europa.eu/eurostat>).

Jones Lang LaSalle(<http://www.us.jll.com/united-states/en-us>).

Macrobond Financial(<https://www.macrobond.com>).

Moody's(<https://www.moody's.com>).

NCREIF(National Council of Real Estate Investment Fiduciaries)(<https://www.ncreif.org>).

Thomson Reuters Datastream(<http://financial.thomsonreuters.com>).

Ⅱ. 경제금융 동향

1. 세계경제

2015년 3/4분기 선진국 가운데 미국과 유로 지역의 경우 전분기보다 경제성장률이 하락하였고, 일본의 경우 상승함. 한편, 신흥국 중 중국 경제성장률은 전분기와 동일함.

■ 2015년 3/4분기 주요국 경제성장률은 일본의 경우 개선되었으나 유로 지역과 미국은 둔화되었음.

○ 미국 경제는 민간소비 및 수출 감소로 2/4분기보다 2.0%(연율) 성장하는데 그쳤고, 유로 지역의 경우 전분기대비 1.2%(연율)의 성장률을 기록함(〈표 5〉 참조).

○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 및 수출 증가 등으로 전분기대비 1.0%(연율)의 성장률을 나타냄(〈표 13〉 참조).

○ 중국의 전분기대비 경제성장률은 고정자산투자 부진, 수출 감소 등으로 1.8% 성장에 그침(〈표 16〉 참조).

〈표 1〉 세계경제 성장률¹⁾

(단위: %)

구분	2013	2014	2014				2015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세계 ¹⁾	3.4	3.4	n.a.	n.a.	n.a.	n.a.	n.a.	n.a.	n.a.
선진국 ¹⁾	1.4	1.8		1.5		2.1		1.9	n.a.
신흥국 ¹⁾	5.0	4.6		4.6		4.6		3.8	n.a.
미국 ²⁾	1.5	2.4	-0.9	4.6	4.3	2.1	0.6	3.9	2.0
유로 ³⁾	-0.3	0.9	0.9	0.2	1.2	1.5	2.2	1.6	1.2
일본 ⁴⁾	1.4	0.0	5.0	-7.2	-2.8	1.8	4.4	-0.5	1.0
중국 ⁵⁾	7.8	7.4	1.6	1.8	1.9	1.7	1.3	1.8	1.8

주: 1) 분기 경제성장률은 계절조정계열(계절 요인이 제거된 시계열) 전분기대비 증가율, 연간 경제성장률은 원계열(계절조정하기 전 원래의 시계열) 전년대비 증가율임.

2) 세계: 미국, 한국, 중국 외 183개국 / 선진국: 미국, 영국, 타이완 외 32개국 / 신흥국: 멕시코, 이란 외 149개국.

3) 국가별 분기성장률은 전분기대비 연율. 단, 중국은 전분기대비 증가율.

자료: 1)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2015, 10).

2) U.S. Department of Commerce(2015, 12).

3) Eurostat(2016, 1).

4) 일본 내각부(2015, 12).

5) 중국 국가통계국(2015, 10).

■ 2015년 3/4분기 세계경제 경기선행지수¹⁾는 미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의 경기선행지수 하락으로 전분기보다 0.1 하락한 99.9를 기록함.

○ 미국 경기선행지수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과 달러화 강세 등이 미국경기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전분기와 동일한 100.6을 나타냄(〈표 5〉 참조).

○ 유로 지역의 경기선행지수는 내수 위축과 정부지출 감소에 따른 주요 유로국의 성장 모멘텀 약화로 2/4분기보다 하락한 99.9를 기록함(〈표 9〉 참조).

○ 일본 경기선행지수는 정부지출 및 공공투자 부진에 따른 일본 경제성장세 둔화 예상으로 2/4분기보다 소폭 하락한 99.5로 집계됨(〈표 13〉 참조).

○ 중국 경기선행지수는 고정자산투자 감소 등으로 인한 중국 경제 둔화 우려 등으로 2/4분기보다 0.2 하락한 98.3을 나타냄(〈표 16〉 참조).

〈표 2〉 OECD 경기선행지수¹⁾

구분	2013	2014	2014				2015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세계 ²⁾	100.7	100.4	101.2	100.4	100.0	99.9	100.0	100.0	99.9
선진국 ³⁾	100.4	100.6	100.5	100.7	100.7	100.6	100.3	99.9	99.4
미국	99.5	100.3	100.5	100.4	100.2	100.2	100.4	100.6	100.6
유로	100.1	100.4	100.4	100.4	100.4	100.4	100.3	100.2	99.9
일본	100.1	100.1	100.2	100.2	100.1	100.0	99.8	99.7	99.5
중국	100.8	99.8	100.4	100.1	99.7	99.1	98.7	98.5	98.3

주: 1) 2007.1=100, 월간자료를 분기는 3개월, 연간은 12개월 단순 평균하여 산출함.

2) OECD 국가와 6개 주요 신흥국.

3) OECD 국가.

자료: OECD.

■ 2015년 3/4분기 전년동기대비 세계 무역규모 증가율은 선진국 및 신흥국 모두 2/4분기와 유사한 수치를 나타내며 전체적으로 2/4분기와 동일한 2.1%를 기록함.

○ 선진국 무역규모 증가율은 2/4분기와 동일한 2.7%를 나타내었고, 신흥국 무역규모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1%p 상승한 1.4%를 나타냄.

1) 6개월 후의 경기흐름을 가늠하는 지표로 지수가 전월보다 올라가면 경기상승, 내려가면 경기하강을 의미함.

〈표 3〉 세계 무역규모 증가율^{1),2),3)}

(단위: %)

구분	2013	2014	2014				2015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세계	2.4	3.1	2.4	2.7	3.5	4.0	3.5	2.1	2.1
선진국	0.6	2.5	2.1	2.0	2.5	3.5	4.2	2.7	2.7
신흥국	4.8	3.8	2.6	3.3	4.7	4.6	2.2	1.3	1.4

주: 1) 2014년 현재 OECD 국가 중 Luxembourg를 제외한 23개 국가와 6개 주요 신흥국, 60개 신흥국을 대상으로 함.

2) 선진국과 신흥국은 IMF의 분류 기준과 동일.

3) 전년동기대비.

자료: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 2015년 3/4분기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0.1%p 높아진 2.8%를 기록하였고,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은 큰 폭으로 낮아짐.

○ 선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분기와 동일한 0.2%를 나타낸 반면, 신흥국의 경우는 동 기간 0.2%p 높아짐.

○ 두바이 현물지수와 WTI 현물지수는 미국 금리인상 불확실성,²⁾ 중국 경기불안,³⁾ 글로벌 추가급락⁴⁾ 등으로 전분기보다 각각 20.9%, 21.2% 하락하였고, CRB 상품지수⁵⁾도 에너지 및 농산물가격 약세⁶⁾로 10.0% 낮아짐.

2) 미국 기준금리가 2015년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동결된 가운데, 세계 경제 둔화, 중국 경제 및 금융시장 불안, 미국 고용지표 부진 등으로 미국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재논의됨.

3) 수출 및 투자 부진으로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며 중국 경기가 불안정해짐.

4) 중국증시로 인해 아시아 증시가 불안정한 가운데 유럽증시도 급락하는 등 세계 금융시장이 불안해짐.

5) 국제적인 상품가격 조사회사인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만든 지수로, 1956년에 첫 발표된 가장 오래된 상품지수임. CRB 지수는 2005년에 결정된 비중에 따라 서부텍사스산 중질유를 비롯해 천연가스, 금, 구리, 니켈, 설탕, 커피, 옥수수, 밀, 오렌지주스, 돼지고기 등 19개의 원자재 선물가격평균을 상품지수로 나타낸 것으로 농산물 비중이 가장 큼. 지수가 상승하면 인플레이션이 예견되거나 그 상품의 수요 증가를 의미함.

6) 옥수수와 대두의 경우 파종 면적이 기존 예상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었고, 소맥의 경우 기상 조건 개선에 따른 미국 작황 호조에 대한 기대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약세로 나타남.

〈표 4〉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구분	소비자물가 상승률 ¹⁾ (%)					구분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²⁾				
	2014		2015				2014		2015		
	연간	4/4	1/4	2/4	3/4		연간	4/4	1/4	2/4	3/4
세계	3.5	2.7	2.5	2.7	2.8	두바이 현물지수	95.1	69.0	52.3	61.1	48.4
선진국	1.4	1.0	0.2	0.2	0.2	WTI 현물지수	91.2	66.7	48.5	59.8	47.1
신흥국	5.1	4.3	4.7	5.0	5.2	CRB 상품지수 ²⁾	288.1	261.4	220.3	224.3	201.8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1967=100 기준.

자료: IMF WEO(2015. 10); 한국은행; Bloomberg.

가. 미국경제

2015년 3/4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은 소비 및 투자 둔화, 수출 감소 등으로 전분기보다 1.9%p 하락한 2.0%를 나타냄.

〈경제성장〉

■ 2015년 3/4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 및 투자 둔화, 수출 감소 등으로 2/4분기보다 1.9%p 하락한 2.0%를 기록함.

- 민간소비 증가율의 경우 전분기대비 0.6%p 하락하였지만 국제유가 하락 등에 따른 구매력 개선 지속으로 3.0%를 유지함.
- 민간투자의 경우 설비 및 주택 투자 둔화와 재고조정⁷⁾ 등으로 전분기대비 0.7% 하락하며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됨.
- 수출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5.8%p 하락한 0.7%를 나타내었고 수입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7%p 하락한 2.3%를 기록함.
- 정부지출은 전분기 2.6%보다 0.6%p 하락한 1.8% 증가함.

7) 재고는 2015년 1/4분기와 2/4분기에 각각 \$1,128억, \$1,135억 증가하여 과거 분기평균인 750억 달러를 상회하였으나 3/분기에는 증가폭이 축소됨.

〈표 5〉 미국의 지출 항목별 실질GDP 증가율

(단위: %)

구분	2013	2014	2014				2015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실질GDP	1.5	2.4	-0.9	4.6	4.3	2.1	0.6	3.9	2.0
민간소비	1.7	2.7	1.3	3.8	3.5	4.3	1.8	3.6	3.0
재화	3.1	3.3	1.1	6.7	4.1	4.1	1.1	5.5	5.0
서비스	1.0	2.4	1.4	2.4	3.1	4.3	2.1	2.7	2.1
민간투자	4.5	5.4	-2.5	12.6	7.4	2.1	8.6	5.0	-0.7
설비	3.0	6.2	8.3	4.4	9.0	0.7	1.6	4.1	2.6
주택	9.5	1.8	-2.8	10.4	3.4	10.0	10.1	9.3	8.2
수출	2.8	3.4	-6.7	9.8	1.8	5.4	-6.0	5.1	0.7
수입	1.1	3.8	2.8	9.6	-0.8	10.3	7.1	3.0	2.3
정부지출	-2.9	-0.6	0.0	1.2	1.8	-1.4	-0.1	2.6	1.8

주: 전분기대비 연율화.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2015, 12), Bureau of Economic Analysis.

〈내수부문〉

■ 2015년 3/4분기 전분기대비 소매판매 증가율은 낮아졌으며 소비자신뢰지수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6%p 낮아진 1.1%를 나타내고 있으며 10월과 11월에 각각 0.1%, 0.2%를 나타냄.

○ 3/4분기 소비자신뢰지수는 전분기보다 2.1 높아진 98.3을 기록하였으며 10월에도 99.1로 높아졌으나 11월에는 92.6으로 낮아짐.

■ 2015년 3/4분기 신규주택착공호수는 감소하였지만 주택가격지수는 주택수요 증가로 인해 높아지며 상승세가 지속됨.

○ 신규주택착공호수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18.3%p 하락한 0.1%를 나타내었으며, 10월과 11월에는 각각 -12.0%, 10.5%를 기록함.

○ 주택가격지수는 주택수요 증가로 전분기보다 1.9% 상승한 182.3을 기록하였고 10월에도 소폭 높아짐.

〈표 6〉 미국의 주요 내수부문 지표

구분	2013	2014	2014				2015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10월	11월
소매판매 증가율 ¹⁾ (%)	3.9	3.9	0.6	2.4	0.7	0.6	-1.1	1.7	1.1	0.1	0.2
소비자신뢰지수 ²⁾	73.2	86.9	80.5	83.4	90.9	92.7	101.4	96.2	98.3	99.1	92.6
신규주택착공호수 ³⁾ (%)	18.4	7.8	-7.7	5.4	4.6	2.6	-7.3	18.4	0.1	-12.0	10.5
주택가격지수 ⁴⁾	158.2	170.7	165.9	170.5	173.5	173.0	173.7	178.9	182.3	182.8	n.a.

주: 1) 계절조정, 전분기대비,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전월대비.

2) Conference Board 1985=100

3) 계절조정, 전분기대비,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전월대비.

4) S&P/Case-Shiller 20대 도시 주택가격 계절조정, 2000.1=100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Labor Statistics; The Conference Board; S&P Dow Jones Indices.

〈생산부문〉

■ 2015년 3/4분기 산업생산증가율과 설비가동률은 전분기대비 상승한 반면,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⁸⁾는 전분기와 동일한 수치를 유지하였고, 경기선행지수는 소폭 상승함.

○ 3/4분기 산업생산증가율은 전분기보다 1.3%p 상승한 0.7%를 나타내었으나, 10월과 11월에는 각각 -0.4%, -0.6%로 하락함.

- 설비가동률은 3/4분기 78.0을 기록하며 전분기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10월과 11월에는 둔화됨.

○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의 경우 3/4분기에는 전분기와 동일한 52.6을 나타내었으나, 10월과 11월에는 하락세가 지속됨.

○ 경기선행지수는 2/4분기대비 소폭 상승하며 3/4분기 123.4, 10월 124.1, 11월 124.6을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상승함.

8) PMI(Purchasing Managers' Index)를 구성하는 요인은 생산, 신규주문, 수출주문, 취업, 부품구매, 주문잔고, 납품업체 배송, 재고 등 11개 항목임.

〈표 7〉 미국의 주요 생산부문 지표

구분	2013	2014	2014				2015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10월	11월
산업생산증가율 ¹⁾ (%)	1.9	3.7	0.9	1.4	1.0	1.2	-0.1	-0.6	0.7	-0.4	-0.6
설비가동률 ²⁾	76.7	77.4	77.3	78.0	78.3	78.8	78.4	77.7	78.0	77.5	77.0
ISM제조업PMI	53.8	55.7	53.5	55.5	56.9	56.9	52.6	52.6	52.6	50.1	48.6
경기선행지수 ³⁾	111.1	117.5	114.5	116.5	118.7	120.5	121.2	122.8	123.4	124.1	124.6

주: 1) 전분기대비,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전월대비.

2) 2007=100

3) 2004=100

자료: 국제금융센터;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Labor Statistics; The Conference Board.

〈고용과 물가〉

■ 2015년 3/4분기 취업자 수는 전분기대비 감소하였지만 실업률은 소폭 하락세를 보임.

○ 비농업 취업자는 52만 1,000명으로 전분기보다 17만 1,000명 감소하였으며, 평균 실업수당 청구자 수는 27만 1,000명으로 전분기보다 7,000명 감소함.

- 2015년 10월과 11월 비농업부문 신규고용은 각각 29만 8,000명, 21만 1,000명으로 각각 전월대비 20만 명 이상 증가함.

○ 실업률은 전분기보다 0.2%p 하락한 5.2%를 기록하였고, 10월과 11월에도 5.0%를 유지함.

- 포괄적 실업률의 경우 3/4분기에는 10.2%, 10월과 11월에는 각각 9.8%, 9.9%를 기록함.

■ 2015년 3/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소폭 높아졌으나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와 동일함.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0.1%p 상승한 0.1%를 나타내었고, 10월과 11월 각각 0.2%, 0.5%를 기록함.

- 근원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1.8% 상승하였고, 10월과 11월에는 1.9%, 2.0%를 나타냄.

○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와 동일한 -3.3%를 나타내었고, 10월 -4.1%, 11월 -3.2%로 집계됨.

- 근원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대비 0.1%p 상승한 2.2%였으며, 10월과 11월 각각 1.7%를 기록함.

〈표 8〉 미국의 주요 고용·물가 지표

구분	2013	2014	2014				2015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10월	11월
실업률 ¹⁾ (%)	7.4	6.2	6.6	6.2	6.1	5.7	5.6	5.4	5.2	5.0	5.0
포괄적 실업률(u-6) ²⁾ (%)	13.8	12.0	12.6	12.1	12.0	11.4	11.1	10.7	10.2	9.8	9.9
비농업취업자 증감 ³⁾ (만 명)	238.8	311.6	57.9	85.2	71.2	97.3	58.6	69.2	52.1	29.8	21.1
실업수당 청구자 수 ⁴⁾ (만 명)	34.9	30.8	33.0	31.5	30.0	28.9	29.3	27.8	27.1	26.3	26.9
소비자물가 상승률 ⁵⁾ (%)	1.5	1.6	1.4	2.1	1.8	1.3	-0.1	0.0	0.1	0.2	0.5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 ⁵⁾ (%)	1.8	1.8	1.6	1.9	1.8	1.7	1.7	1.8	1.8	1.9	2.0
생산자물가 상승률 ⁶⁾ (%)	1.3	1.9	1.6	2.8	2.5	0.8	-3.2	-3.3	-3.3	-4.1	-3.2
근원 생산자물가 상승률 ⁶⁾ (%)	1.5	1.9	1.9	1.8	2.0	2.0	1.9	2.1	2.2	1.7	1.7

주: 1) 16세 이상, 계절조정.

2) 구직포기자, 비자발적 파트타임 취업자 포함, 16세 이상, 계절조정.

3) 전분기대비 증감.

4) 해당 기간의 청구자 수 평균.

5) 1982=100, 전년동기(월)대비.

6) 1982=100, 전년동기(월)대비.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Labor Statistics; Bloomberg.

나. 유로경제

2015년 3/4분기 유로 지역 경제는 프랑스를 제외한 모든 유럽 주요국의 경기 둔화로 2/4분기보다 소폭 하락한 성장률을 보임.

〈경제성장〉

■ 2015년 3/4분기 유로 지역 경제성장률은 프랑스의 경우 회복세를 나타내었지만, 그 외 모든 유럽 주요국의 경우 하락하며 전체적으로 2/4분기대비 0.1%p 하락한 0.3%를 기록함(〈표 9〉와 〈표 12〉 참조).⁹⁾

- 유럽 주요 5개국 경제성장률의 경우 프랑스는 전분기보다 0.3%p 상승한 반면,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은 전분기대비 각각 0.1%p에서 0.2%p 정도 하락함.
- 민간소비 증가율은 이탈리아의 경우 전분기와 동일하였고 영국의 경우 전분기보다 하락하였으나, 독일, 프랑스, 스페인의 경우 전분기보다 상승하며, 전체적으로 전분기보다 0.1%p 높아진 0.4%를 기록함.
- 고정자본투자 증가율의 경우 독일과 프랑스를 제외한 주요 유로 지역이 낮아지면서 전분기보다 0.1%p 하락한 0.0%를 나타내었으나, 정부지출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3%p 상승한 0.6%를 기록함.
- 유로 지역 수출 증가율은 스페인을 제외한 모든 주요 유로 지역의 수출 감소로 전분기보다 1.4%p 낮아진 0.2%를 기록하였지만, 수입 증가율은 전분기와 동일한 0.9%를 나타냄.

9) Commerzbank에 따르면, 유럽 여러 국가들은 가계부채와 자산시장 조정과정 진행에 따라 성장세가 약화되고 있으며 중국 등 신흥국에서의 수입 감소는 유로화 약세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상쇄한다고 평가됨.

〈표 9〉 유로지역의 지출 항목별 실질GDP 증가율

(단위: %)

구분	2013	2014	2014				2015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EA19 GDP	-0.3	0.9	0.2 (0.9)	0.1 (0.2)	0.3 (1.2)	0.4 (1.5)	0.5 (2.2)	0.4 (1.6)	0.3 (1.2)
민간소비	-0.7	0.8	0.0	0.2	0.4	0.5	0.5	0.3	0.4
고정자본투자	-2.6	1.3	0.4	-0.5	0.4	0.6	1.5	0.1	0.0
정부지출	0.2	0.9	0.2	0.2	0.3	0.2	0.5	0.3	0.6
수출	2.1	4.1	0.8	1.0	1.6	1.2	1.3	1.6	0.2
수입	1.3	4.5	1.2	1.1	1.5	1.2	1.9	0.9	0.9

주: 전분기대비이며, () 안은 계절조정계열 전분기대비 연율.
 자료: Eurostat(2016. 1).

〈생산 및 내수부문〉

■ 2015년 3/4분기 유로 지역 ESI(경기체감지수)는 104.6으로 전분기보다 상승하였으며, 10월과 11월에는 각각 106.1을 나타내었음.

○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3%p 높아진 0.7%를 나타내었으나 10월에는 낮아지며 -0.1%를 나타냄.

○ 유로 지역 소비자신뢰지수는 3/4분기 -6.9를 나타내며 둔화폭이 확대되었으며, 10월 -7.5를, 11월 -5.9를 기록함.

■ 2015년 3/4분기 유로 지역 산업생산 증가율의 경우 2/4분기보다 0.3%p 상승한 0.2%를 기록하였고 10월에는 0.6%를 나타냄.

〈표 10〉 유로지역의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13	2014	2014				2015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10월	11월
유로지역 ESI ¹⁾	93.8	101.6	101.9	102.6	101.2	100.9	102.6	103.7	104.6	106.1	106.1
소매판매 증가율 ²⁾ (%)	-0.8	1.2	0.6	0.3	0.2	0.7	0.9	0.4	0.7	-0.1	n.a.
소비자신뢰지수 ³⁾	-18.5	-10.0	-11.2	-7.7	-9.9	-11.2	-6.2	-5.1	-6.9	-7.5	-5.9
산업생산 증가율 ⁴⁾ (%)	-0.7	0.8	0.1	0.1	-0.3	0.4	1.1	-0.1	0.2	0.6	n.a.

주: 1) Economic Sentiment Indicator(경기체감지수), 1990~2000의 평균=100, 구성은 제조업(40%)+서비스업(30%)+소비자신뢰(20%)+건설업(5%)+소매거래(5%)

2) 계절조정 2005=100, 전분기대비,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전월대비.

3) 향후 경기에 대한 긍정 응답자와 부정 응답자 비율(%)의 차이.

4) 비계절조정 2005=100, 전분기대비,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전월대비.

자료: Eurostat; Bloomberg.

〈고용과 물가〉

■ 2015년 3/4분기 유럽 지역 실업률의 경우 주요국은 전분기와 동일한 수치를 유지한 반면, 북유럽은 전분기대비 소폭 상승하였고 동유럽과 남유럽은 전분기대비 하락함.

○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주요국의 3/4분기 실업률은 2/4분기와 동일한 6.9%를 기록하였으나, 북유럽의 경우 전분기대비 0.1%p 하락한 6.8%이었음.

○ 동유럽 실업률은 전분기대비 0.3%p 하락한 8.2%를 나타내었고 남유럽 실업률도 전분기대비 0.5%p 하락한 17.6%를 기록하며 하락세가 지속됨.

■ 2015년 3/4분기 남유럽을 제외한 모든 주요 유럽 국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하락 등으로 낮아짐(〈표 4〉 참조).

○ 유럽 주요국의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분기보다 0.2%p 상승한 0.0%를 기록하였으며, 북유럽의 경우도 전분기보다 0.2%p 낮아진 0.6%를 나타냄.

○ 또한, 동유럽의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0.4%p 낮아진 -0.6%를 나타내었으나, 남유럽의 경우는 0.1%p 상승한 -0.1%를 나타냄.

〈표 11〉 유럽 권역별 실업률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분기	실업률(%)				소비자물가상승률(%) ⁵⁾			
	주요국 ¹⁾	북유럽 ²⁾	동유럽 ³⁾	남유럽 ⁴⁾	주요국	북유럽	동유럽	남유럽
2015년 1/4	6.9	6.8	8.7	18.7	-0.1	0.6	-0.5	-0.9
2015년 2/4	6.9	6.9	8.5	18.1	0.2	0.8	-0.2	-0.2
2015년 3/4	6.9	6.8	8.2	17.6	0.0	0.6	-0.6	-0.1

주: 1) 주요국: 독일, 프랑스, 영국.

2) 북유럽: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3) 동유럽: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4) 남유럽: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5) 전년동기대비.

자료: Eurostat(2015. 12).

〈표 12〉 유럽 주요국 지출 항목별 실질GDP 증가율

(단위: %)

구분	2013	2014	2014				2015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독일 GDP	0.3	1.6	0.7	-0.1	0.2	0.6	0.3	0.4	0.3
민간소비	0.6	0.9	0.3	-0.1	0.6	1.0	0.4	0.1	0.6
고정자본투자	-1.3	3.5	2.4	-1.5	-0.7	1.3	1.7	-0.4	-0.3
수출	1.6	4.0	0.4	0.4	1.5	1.4	1.5	1.8	0.2
수입	3.1	3.7	0.6	0.9	0.4	2.3	2.1	0.5	1.1
프랑스 GDP	0.7	0.2	-0.1	-0.1	0.2	0.1	0.7	0.0	0.3
민간소비	0.4	0.6	-0.4	0.4	0.4	0.2	0.7	0.0	0.3
고정자본투자	-0.6	-1.2	-0.7	-0.6	-0.4	-0.2	0.2	-0.1	0.0
수출	1.7	2.4	0.3	-0.2	1.3	2.9	1.6	2.0	-0.6
수입	1.7	3.8	1.1	0.7	1.6	1.5	2.2	0.7	1.8
이탈리아 GDP	-1.7	-0.4	-0.1	-0.2	-0.1	-0.1	0.4	0.3	0.2
민간소비	-2.7	0.4	0.2	0.1	0.0	0.2	0.1	0.4	0.4
고정자본투자	-6.6	-3.5	-1.5	-0.7	-0.9	0.1	1.2	-0.1	-0.4
수출	0.8	3.1	0.4	1.3	0.7	1.9	1.0	1.3	-0.8
수입	-2.5	2.9	0.5	0.9	1.2	0.4	2.5	1.6	0.5
스페인 GDP	-1.7	1.4	0.4	0.5	0.6	0.7	0.9	1.0	0.8
민간소비	-3.1	1.2	0.0	0.5	0.5	0.8	0.7	0.9	1.0
고정자본투자	-2.5	3.5	0.4	2.1	0.9	1.4	1.5	2.4	1.1
수출	4.3	5.1	1.6	1.2	3.3	0.2	1.1	1.4	2.8
수입	-0.3	6.4	1.8	1.7	3.3	-0.2	2.2	1.6	4.0
영국 GDP	2.2	2.9	0.6	0.8	0.7	0.7	0.4	0.5	0.4
민간소비	1.9	2.5	0.5	0.8	0.5	0.5	0.7	0.9	0.8
고정자본투자	2.6	7.3	0.6	2.6	1.8	0.1	0.9	1.6	0.7
수출	1.2	1.2	0.9	1.2	0.4	3.8	0.0	2.8	-0.3
수입	2.8	2.4	-1.1	-0.5	2.0	2.8	3.0	-2.2	2.7

주: 전분기대비.
 자료: Eurostat(2016, 1).

다. 일본경제

2015년 3/4분기 일본 경제는 민간소비 및 수출 증가 등으로 전분기대비 성장률이 상승하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됨.

〈경제성장〉

■ 2015년 3/4분기 일본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 및 수출 증가 등으로 전분기대비 0.4%p 상승한 0.3%를 기록함.

○ 민간소비 증가율은 2/4분기대비 0.9%p 높아진 0.4%를 기록하였으며, 설비투자 증가율도 2/4분기보다 1.9%p 상승한 0.6%를 나타냄.

○ 반면, 주택투자 증가율은 민간주택투자가 소폭 하락하며 2/4분기보다 0.5%p 하락한 2.0%를 기록함.

○ 정부지출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소폭 낮아졌으며, 공공투자는 전분기대비 4.8%p 낮아진 -1.5%를 나타냄.

○ 수출과 수입 증가율의 경우 대내외 수요 증가 등으로 전분기보다 각각 7.0%p, 4.3%p 상승한 2.7%, 1.7%를 나타냄.

〈표 13〉 일본의 지출 항목별 실질GDP 증가율

(단위: %)

구분	2013	2014	2014				2015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실질 GDP	1.4	0.0	1.2	-1.9	-0.7	0.5	1.1	-0.1	0.3
			(5.0)	(-7.2)	(-2.8)	(1.8)	(4.4)	(-0.5)	(1.0)
민간소비	1.7	-0.9	2.3	-4.8	0.0	0.4	0.3	-0.5	0.4
설비투자	-0.5	3.1	4.4	-4.1	-0.4	0.2	2.7	-1.3	0.6
주택투자	8.4	-5.3	2.1	-10.5	-6.9	-0.7	2.0	2.5	2.0
정부지출	1.9	0.1	-0.1	-0.2	0.2	0.4	0.2	0.4	0.3
공공투자	8.0	0.4	-1.8	-2.5	1.6	-0.5	-2.0	3.3	-1.5
수출	1.2	8.3	5.8	0.4	1.6	2.9	1.9	-4.3	2.7
수입	3.1	7.2	6.0	-4.3	1.1	0.8	1.7	-2.6	1.7

주: 전분기대비이며, () 안은 계절조정계열 전분기대비 연율.
자료: 일본 내각부(2015. 12).

〈생산 및 내수부문〉

■ 2015년 3/4분기 광공업생산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2%p 상승한 -1.2%를 나타냄.

○ 광공업생산 증가율은 10월 1.4%로 증가하였으나, 對중국 수출 위축으로 11월 -1.0%로 나타남.

■ 2015년 3/4분기 소비자신뢰지수는 전분기대비 소폭 하락한 40.9로 집계되었으나, 10월과 11월 각각 41.5, 42.6을 기록함.

○ 소매판매 증가율은 2/4분기보다 1.7%p 상승한 1.9%이었으나, 10월과 11월 각각 1.2%, -2.5%를 나타냄.

■ 2015년 3/4분기 전년동기대비 주택착공호수 증가율은 전분기에 비해 1.4%p 낮아진 6.2%이었고 2015년 10월에는 -2.5%를, 11월에는 1.7%를 나타냄.

○ 민간기계수주액은 전분기대비 10.0% 감소하였으나 10월에는 10.7% 증가함.

〈표 14〉 일본의 주요 내수부문 경제지표

구분	2013	2014	2014				2015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10월	11월
광공업생산 증가율 ¹⁾ (%)	-0.6	2.1	2.3	-3.1	-1.3	0.8	1.6	-1.4	-1.2	1.4	-1.0
소매판매 증가율 ²⁾ (%)	1.0	1.7	3.8	-7.1	3.8	1.0	-2.1	0.2	1.9	1.2	-2.5
소비자신뢰지수 ³⁾	43.6	39.3	39.0	38.9	40.5	38.9	40.7	41.5	40.9	41.5	42.6
주택착공호수 증가율 ⁴⁾ (%)	11.0	-9.0	3.4	-9.3	-13.6	-13.8	-5.4	7.6	6.2	-2.5	1.7
민간기계수주액 증가율 ⁵⁾ (%)	5.8	4.0	1.2	-7.7	3.8	0.7	6.3	2.9	-10.0	10.7	n.a.

주: 1) 계절조정, 2005=100, 전기대비,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증가율.

2) 전기대비.

3) 기준치=50, 기간 중 평균.

4) 전년동기(월)대비.

5) 변동성이 큰 선박·전력 제외, 전분기대비.

자료: 일본 내각부; 경제산업성; 재무성; 총무성.

〈고용과 물가〉

■ 2015년 3/4분기 실업률은 2/4분기보다 0.1%p 상승한 수치를 기록하였지만, 유효구인배율¹⁰⁾은 소폭 상승하며 고용시장은 미미한 회복세가 지속됨.

○ 실업률은 2/4분기대비 소폭 상승한 3.4%를 기록하였으나 10월에는 3.1%를 나타냄.

○ 또한, 유효구인배율은 3/4분기 1.23으로 전분기대비 소폭 높아졌고, 2015년 10월과 11월에도 소폭 높아짐.

■ 2015년 3/4분기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대비 0.4%p 하락한 0.1%를 나타내었으며 10월과 11월에는 각각 0.3%이었음.

○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경우 3/4분기에는 전분기대비 0.3%p 상승한 0.8%였으며, 10월에는 0.7%를, 11월에는 0.9%를 기록함.

〈표 15〉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13	2014	2014				2015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10월	11월
실업률(%)	4.0	3.6	3.6	3.6	3.6	3.5	3.5	3.3	3.4	3.1	3.3
유효구인배율(배) ¹⁾	0.93	1.09	1.05	1.09	1.10	1.12	1.15	1.18	1.23	1.24	1.25
소비자물가 상승률 ²⁾ (%)	0.4	2.7	1.5	3.6	3.3	2.6	2.3	0.5	0.1	0.3	0.3
근원소비자물가 상승률 ²⁾ (%)	-0.2	1.9	0.7	2.3	2.3	2.1	2.1	0.5	0.8	0.7	0.9

주: 1) 구인 수/구직자 수

2) 2010=100, 전년동기(월)대비.

자료: 일본 내각부; 일본 후생노동성; 총무성; Bloomberg.

10) 유효구인배율=구인자 수/구직자 수

라. 중국경제

2015년 3/4분기 중국 경제는 전년동기대비 6.9% 성장하는데 그침.

〈경제성장〉

■ 2015년 3/4분기 중국의 전분기대비 경제성장률은 2/4분기와 동일한 1.8%를 기록하였지만 전년동기대비 경제성장률은 전분기대비 0.1%p 하락한 6.9%를 나타냄.

○ 고정자산투자는 제조업 및 부동산 관련 투자 부진¹¹⁾으로 전분기 증가율보다 0.8%p 하락한 10.8% 증가함.

○ 수출 증가율의 경우 전분기보다 3.8%p 하락한 -5.8%를 나타내었으며, 10월에는 -6.9%를, 11월에는 -6.8%를 기록함.

- 지역별로는 對미국(1.5%) 및 對아세안(0.9%) 수출이 소폭 증가한 반면, 對EU 및 對일본 수출은 각각 6.9%, 7.9% 감소함.¹²⁾

○ 수입의 경우 전분기보다 감소폭이 커지며 14.1% 감소하였고, 2015년 10월 -18.8%, 11월 -8.7%로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됨.

〈표 16〉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구분	2013	2014	2014				2015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10월	11월
실질 GDP(%) ¹⁾	7.8	7.4	1.6 (7.3)	1.8 (7.4)	1.9 (7.2)	1.7 (7.2)	1.3 (7.0)	1.8 (7.0)	1.8 (6.9)	n.a.	n.a.
고정자산투자 ²⁾ (%)	20.3	16.8	17.8	17.3	16.5	15.8	13.7	11.6	10.8	10.2	10.2
수출 증가율(%) ³⁾	8.6	5.5	-4.7	5.0	13.0	8.7	10.0	-2.0	-5.8	-6.9	-6.8
수입 증가율(%) ³⁾	7.6	0.9	2.7	1.4	0.9	-1.6	-17.6	-13.3	-14.1	-18.8	-8.7

주: 1) 전분기대비, () 안은 전년동기대비.

2) 도시지역 기준.

3) 전년동기(월)대비.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Bloomberg.

11) 제조업과 부동산 관련 투자가 각각 8.0%, 2.6% 증가하는데 그침.

12) 국제금융센터(2015. 10. 19).

〈내수부문〉

■ 2015년 3/4분기 소매판매 증가율은 2/4분기보다 0.5%p 상승한 10.7%를 나타내었으나, 소비자신뢰지수는 소폭 하락함.

○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소폭 상승한 10.7%를 기록하였고 10월과 11월에는 각각 11.0%, 11.2%를 기록함.

○ 소비자신뢰지수는 전분기보다 소폭 하락한 104.7을 기록하였고 10월 103.8을 나타냄.

〈표 17〉 중국의 주요 내수관련 지표

구분	2013	2014	2014				2015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10월	11월
소매판매 증가율 ¹⁾ (%)	13.2	12.0	12.2	12.3	11.9	11.7	10.2	10.2	10.7	11.0	11.2
소비자신뢰지수	101.2	104.4	104.0	103.9	104.5	104.9	107.5	107.7	104.7	103.8	n.a.

주: 1) 전년동기(월)대비.

2) ECI(Entrepreneurs Confidence Index): 0부터 200까지 값을 갖는데 100~200일 경우 중국 기업가들(건설, 도매 등 8개 섹터 21,000개 기업)이 기업경기가 긍정적인 것으로, 0~100일 경우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함.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Bloomberg.

〈생산부문〉

■ 2015년 3/4분기 산업생산 증가율은 2/4분기에 비해 하락하였고 구매자관리지수도 소폭 낮아짐.¹³⁾

○ 전년동기대비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4%p 낮아진 5.9%를 기록함.

○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도 전분기보다 소폭 하락한 49.8을 나타내었고, 10월 49.8, 11월 49.6으로 집계됨.

13) 국제금융센터(2015. 10. 19).

〈표 18〉 중국의 주요 생산관련 지표

구분	2013	2014	2014				2015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10월	11월
산업생산 증가율 ¹⁾ (%)	9.7	8.2	8.8	8.9	8.0	7.6	5.6	6.3	5.9	5.6	6.2
구매자관리지수 ²⁾	50.8	50.7	50.3	50.7	51.3	50.4	49.9	50.2	49.8	49.8	49.6

주: 1) 전년동기(월)대비,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전월대비.

2) PMI, 50을 기준으로 하며 50 초과는 제조업이 전년대비 확대됨을 의미하며, 50 미만은 전년대비 축소를 의미하고 50은 변화 없음을 나타냄.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Bloomberg.

〈물가〉

■ 2015년 3/4분기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하락함.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분기보다 0.3%p 높아진 1.7%를 기록하였으며 10월 1.3%, 11월 1.5%를 기록함.

○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3/4분기 -5.7%를 기록하였으며, 10월과 11월 각각 -5.9%를 나타내며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됨.

〈표 19〉 중국의 주요 물가지표

(단위: %)

구분	2013	2014	2014				2015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10월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6	2.0	2.3	2.2	2.0	1.5	1.2	1.4	1.7	1.3	1.5
생산자물가 상승률	-1.9	-1.9	-2.0	-1.5	-1.3	-2.7	-4.6	-4.7	-5.7	-5.9	-5.9

주: 전년동기(월)대비,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증가율.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Bloomberg.

2. 국내경제

2015년 3/4분기 국내경제는 수출 부진이 지속되었으나 메르스 확산¹⁴⁾의 부정적인 영향에서 벗어나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한 개선추세를 보임.

〈경제성장〉

■ 2015년 3/4분기 경제성장률은 수출 부진이 지속되었으나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건설투자가 상반기에 비해 확대되면서 전년동기대비 2.7%를 나타냄.

- 민간소비는 메르스 여파로 지연되었던 소비가 완만히 개선되고 정부의 소비 활성화 대책이 시행¹⁵⁾되면서 2.1% 증가하였으나 주거비 부담¹⁶⁾ 등으로 본격적인 회복은 지연되고 있음.
- 설비투자는 제조업 생산 개선¹⁷⁾ 등으로 6.6% 증가하였으며 건설투자의 경우 주택 담보대출 규제 합리화¹⁸⁾ 등에 따른 주택시장 호조세¹⁹⁾가 지속되면서 5.7% 늘어남.
- 지식생산물투자는 1.2% 증가하는데 그쳐 2014년 4/4분기 이후 낮은 증가세를 지속함.
- 재화수출은 세계 교역량 증가세 둔화²⁰⁾ 등으로 0.1%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재화수입의 경우 자동차 등 소비재와 원자재를 중심²¹⁾으로 1.7% 증가하였음.

14) 2015년 5월 20일 메르스 확진환자 발생, 2015년 6월 1일 사망자 발생, 2015년 7월 6일 방역 당국 메르스 사실상 종식 선언, 2015년 12월 24일 자정 상황 공식 종료.

15) 정부는 소비심리의 조속한 회복을 통해 소비부진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① 개소세 부담 완화, ② 대규모 세일행사 개최 및 관광·여가 활성화, ③ 공공부문 추석연휴 가을휴가 독려 및 지역 농수산물 구매 캠페인 전개, ④ 주택연금 활성화 및 소비재 수입 경쟁 제고 등의 정책 과제를 2015년 8월부터 실시하기로 함(「최근 소비 동향과 대응방안」 경제관계장관회의, 15-16-1, 2015. 8. 26).

16) 주택전세가격 상승세와 전세의 월세 전환 추세가 지속되면서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주택전세가격 상승률(전년동기대비)은 2015년 1/4분기 2.9%, 2/4분기 3.8%, 3/4분기 4.5%를 기록하였으며 전국의 주택임대차거래 중 월세(보증부 월세 포함)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중 41.0%에서 2015년 1/4분기 중 43.1%, 2/4분기 중 43.7%, 3/4분기 중 45.6%로 확대되었음.

17) 2015년 3/4분기 제조업생산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0.4%로 2015년 2/4분기 -1.4%에 비해 감소폭이 완화되었음.

18)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2014년 8월부터 각각 70%, 60%로 일원화되었는데 이 조치는 2015년 8월 1일부터 1년간 연장되어 2016년 7월 31일까지 시행될 예정임.

19) 아파트거래 증가율(필지 기준): 2015년 1/4분기 15.6% → 2/4분기 38.1% → 3/4분기 11.5%

20) 세계 교역량 증가율(전년동기대비): 2015년 1/4분기 3.5% → 2/4분기 2.1% → 3/4분기 2.1%

21) 2015년 3/4분기 소비재 수입 물량은 전년동기대비 1.7% 증가하였으며 원자재도 1.9% 증가하였음. 2015년 3/4분기 물량 기준으로 전체 수입 중 소비재는 5.9%, 원자재는 93.0%를 차지함.

〈표 20〉 지출 항목별 실질GDP 증감률

(단위: %)

구분	2013		2014					2015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실질 GDP	3.5 (0.9)	2.9	3.9 (1.1)	3.4 (0.5)	3.3 (0.8)	2.7 (0.3)	3.3	2.5 (0.8)	2.2 (0.3)	2.7 (1.3)
민간소비	2.2	1.9	2.6	1.7	1.5	1.4	1.8	1.5	1.7	2.1
설비투자	11.6	-0.8	7.2	7.7	4.2	4.2	5.8	5.8	5.0	6.6
건설투자	3.5	5.5	4.1	0.2	2.3	-1.4	1.0	0.6	1.6	5.7
지식생산물투자	6.7	4.4	7.2	5.7	4.9	1.1	4.6	1.7	0.8	1.2
재화수출(F. O. B)	3.1	4.5	3.8	3.6	1.6	0.5	2.3	-0.9	-0.9	0.1
재화수입	5.2	1.3	3.1	1.3	1.4	-0.7	1.2	0.1	0.7	1.7

주: 2008 SNA, 2010년 연쇄가격 기준, 원계열 전년동(분)기대비 증감률, ()는 계절조정계열 전분기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산업생산 · 경기〉

■ 2015년 3/4분기 전산업생산은 메르스 영향 축소, 정부의 소비 활성화 대책 시행 등에 따른 서비스업 생산 회복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2.0% 증가하였음.

○ 광공업생산은 반도체 및 부품, 자동차 등 주요 산업 생산이 확대되면서 전년동기대비 0.2% 감소하였음.

- 10월 중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40.3%) 등 IT 업종과 자동차(+7.5%)생산이 확대됨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1.5% 증가하였음.

- 11월 광공업 생산은 모바일 신제품 출시로 생산 회복을 이끌었던 IT 업종 생산이 조정을 받았으며 수출 부진 지속²²⁾으로 제조업 생산이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0.3% 줄어듦.

○ 서비스업생산은 메르스 확산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줄어들고 임시공휴일(8월 14일) 시행, 개별소비세 인하, 코리아 그랜드 세일 실시 등과 추석 연휴로 전년동기대비 2.9% 증가함.

- 10월 서비스업생산은 도소매업,²³⁾ 부동산임대업²⁴⁾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22) 〈표 20〉 참조.

23)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시행, 개별소비세 인하 등으로 증가함.

24) 전국 주택거래량(천호): 2015년 9월 86.2 → 10월 106.3

3.3% 증가하였으며 11월에도 3.1% 늘어남.

〈표 21〉 생산관련 지표 추이

(단위: %)

구분	2014				2015				
	2/4	3/4	4/4	연간	1/4	2/4	3/4 ²⁾	10월 ²⁾	11월 ²⁾
전산업생산 ³⁾	0.9	1.7	0.6	1.3	1.0	0.7	2.0	2.5	2.0
광공업	0.5	1.2	-1.9	0.0	-0.9	-1.5	-0.2	1.7	-0.3
제조업	0.4	1.2	-1.9	0.1	-1.0	-1.4	-0.4	2.1	-0.4
자동차	3.6	2.0	-3.1	2.4	-4.2	2.7	4.8	8.0	0.6
ICT	1.6	-1.2	-6.0	-1.8	-1.3	-2.1	2.6	13.5	5.4
서비스업	1.5	2.6	2.6	2.2	2.8	2.5	2.9	3.3	3.1
도매 및 소매업	1.5	2.6	2.6	2.2	0.3	0.9	1.4	6.0	3.7
운수업	-0.3	0.0	-0.6	-0.2	4.3	0.2	1.1	2.9	0.9
숙박 및 음식점업	0.0	1.9	4.7	1.7	-0.6	-2.6	-3.1	-1.2	-1.3
금융 및 보험업	0.7	2.1	-0.1	1.2	9.6	10.1	9.4	6.1	7.2
부동산 및 임대업	3.5	6.4	9.0	5.2	5.8	8.6	9.4	5.8	5.3

주: 1) 전년동기(월)대비 증감률.

2) 잠정치.

3) 농림어업 제외.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2015년 3/4분기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분기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분기보다 소폭 상승하였음.

○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기계류내수출하 및 건설수주액 증가²⁵⁾와 구인구직비율 상승²⁶⁾에도 대외 불확실성 확대²⁷⁾에 따른 코스피 지수 하락²⁸⁾으로 103.8을 기록함.

- 10월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기계류내수출하지수, 코스피 지수 등이 하락²⁹⁾하였으나 재고순환지표, 소비자기대지수 등이 상승³⁰⁾하여 104.4를 기록하였음.

- 11월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소비자기대지수가 상승³¹⁾하였으나 기계류 내수출하지수, 재고순환지표 등이 하락³²⁾하여 104.3을 나타냄.

25) 2015년 3/4분기 기계류내수출하지수(선박제외)는 전분기대비 0.3% 증가하였으며 건설수주액은 전분기대비 7.8% 증가하였음.

26) 구인구직비율은 전분기대비 1.2%p 상승함.

27)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기대, 중국 금융시장 불안, 세계경기 둔화 등.

28) 2015년 3/4분기 코스피지수(분기 중 평균)는 전분기대비 5.3% 하락하였음.

29) 10월 기계류내수출하지수(선박제외)는 전월대비 1.6% 하락하였으며 코스피 지수도 전월 말 대비 0.6% 하락하였음.

30) 10월 재고순환지표는 전월대비 2.3%p 상승하였으며 소비자기대지수는 전월대비 1.0p 상승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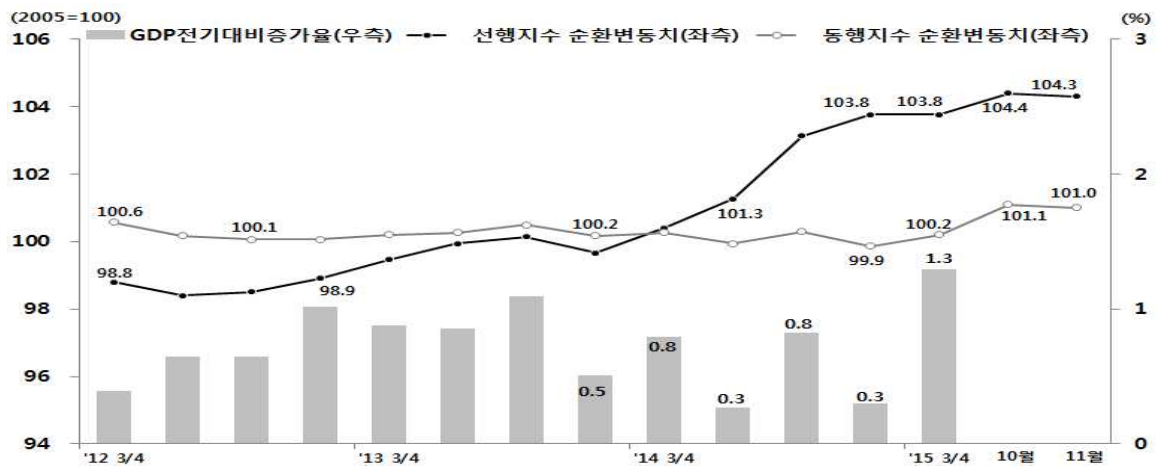
31) 11월 소비자기대지수는 전월대비 0.9p 상승하였음.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의 경우 100.2를 나타냈음.

- 10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내수출하지수가 감소³³⁾하였으나, 소매판매액지수, 수입액 등이 증가³⁴⁾하여 101.1을 기록하였음.

- 11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서비스업생산지수, 비농림어업취업자 수 등이 증가³⁵⁾하였으나, 건설기성액, 수입액 등이 감소³⁶⁾하여 101.0을 나타냄.

〈그림 1〉 GDP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주: 2015년 3/4분기, 10월과 11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2015년 3/4분기 출하는 전년동기대비 0.6% 증가하였고 재고도 6.0% 늘어나 제조업 경기의 둔화/하강국면이 깊어지고 있으며 재고/출하비율의 경우 재고 증가세 확대로 128.4%를 기록함.³⁷⁾

○ 10월 출하가 전년동기대비 3.6% 증가하고 재고 또한 5.6%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재고/출하비율은 126.3%를 나타냄.

○ 11월 출하는 전년동기대비 1.0% 감소하였으며 재고는 6.2% 증가하여 재고/출하 비율은 128.1%를 나타냄.

32) 11월 기계류 내수출하지수(선박제외)는 전월대비 2.5%p 하락하였으며 재고순환지표도 0.6%p 하락함.

33) 10월 내수출하지수는 전월대비 0.2%p 하락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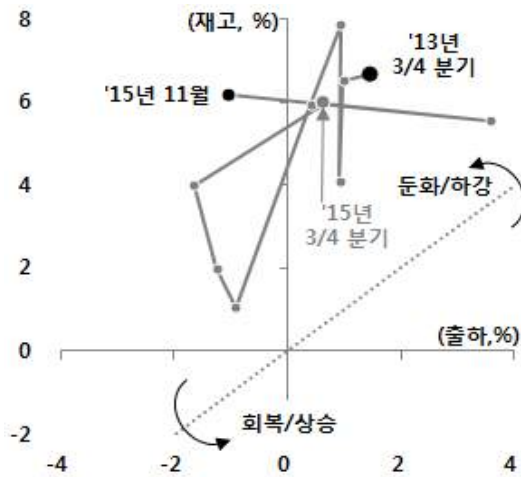
34) 10월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월대비 1.9% 상승하였으며 수입액은 전월대비 1.6% 증가하였음.

35) 11월 서비스업생산지수(도소매업제외)는 전월대비 0.3%p 상승하였으며 비농림어업취업자 수는 전월 대비 0.1% 증가하였음.

36) 11월 건설기성액은 전월대비 1.1%p 감소하였으며 수입액도 전월대비 0.9%p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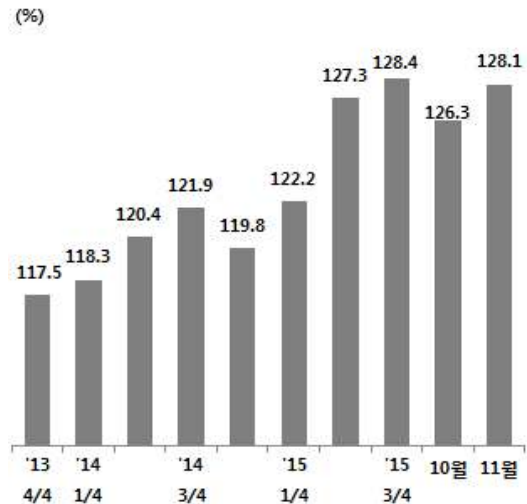
37) 2015년 7월~2015년 11월 재고, 출하, 재고율은 잠정치임.

〈그림 2〉 제조업 재고 출하 순환도



주: 재고출하 순환도는 X축에 출하 전년동월비(계절조정), Y축에는 재고 전년동월비(계절조정)를 표시하여 출하와 재고의 상호작용을 나타내고, 이를 이용하여 경기국면 변환을 판단하는 도표.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그림 3〉 제조업 재고/출하비율(재고율)¹⁾

주: 1) 제조업의 출하지수에 대한 재고지수 비율

$$= (\text{계절조정재고지수} \div \text{계절조정출하지수}) \times 100$$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내수부문〉

■ 2015년 3/4분기 소매판매는 전년동기대비 3.1% 증가하였으며 10월 정부의 대규모 세일 행사 개최 및 관광·여가 활성화 대책 시행 등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8.4% 증가하였고 11월에도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가 지속되면서 승용차, 가전제품 등 내구재를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5.5% 증가하였음.

○ 2015년 3/4분기 내구재 판매는 전년동기대비 7.5% 증가하였으며 10월 신차 출시³⁸⁾ 등으로 자동차판매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내구재 판매는 전년동월대비 20.2% 늘어났고 11월에도 승용차, 가전제품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13.9% 증가하였음.

○ 의복 및 오락·취미·경기용품 등 준내구재 판매는 전년동기대비 3.4% 줄어들었으나 10월 소비활성화 대책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5.5% 증가하였으며 11월에는 10월 준내구재 소비 확대에 따른 기저효과로 전년동월대비 2.1% 늘어나는데 그쳤음.

○ 2015년 3/4분기 음식료품,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 판매는 전년동기대비 3.4% 증가하였음.

38) 2015년 10월 현대자동차가 아반떼(내수판매 1위)를 출시하였으며 기아자동차는 신형 스포티지와 신형 K5를, 한국 GM은 신형 스파크와 트랙스 디젤 등을 출시하였음.

- 10월과 11월 비내구재 판매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3.3, 2.3% 증가하였음.

〈표 22〉 소비 관련 지표 추이

(단위: %)

구분	2014				2015				
	2/4	3/4	4/4	연간	1/4	2/4	3/4 ²⁾	10월 ²⁾	11월 ²⁾
소매판매	0.8	1.5	1.9	1.7	1.6	2.9	3.1	8.4	5.5
내구재	2.5	5.7	6.9	5.1	8.0	8.8	7.5	20.2	13.9
* 승용차	15.6	15.2	21.3	16.6	17.4	18.1	16.7	24.0	25.2
준내구재	-2.2	1.4	0.4	-0.6	-1.6	-0.9	-3.4	5.5	2.1
비내구재	1.4	-0.5	-0.1	0.8	-0.4	1.4	3.4	3.3	2.3

주: 1) 전년동기(월)대비 증감률.

2) 잠정치.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2015년 3/4분기 설비투자자는 12월 미 금리 인상 가시화 등에 따른 선제 수요와 생산 회복³⁹⁾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6.6% 증가하였음.

○ 2015년 3/4분기 설비투자지수는 전년동기대비 10.0% 상승하였음.

- 10월 설비투자지수는 선박 등 운송장비 투자를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12.5% 상승하였음.

- 11월 설비투자지수는 수출 감소세 지속,⁴⁰⁾ 중국 경기 둔화⁴¹⁾ 등에 따른 기업투자심리 회복 지연⁴²⁾으로 전년동월대비 5.4% 하락하였음.

○ 설비투자의 선행지수인 국내기계수주는 민간 제조업 수주가 전년동기대비 3.1% 증가하였으나 공공부문 수주가 전년동기대비 85.3% 줄어들어⁴³⁾ 전체적으로 전년동기대비 26.6% 감소하였음.

- 10월 국내기계수주는 공공부문에서 전년동월대비 51.8% 감소하였으나 비중이 큰⁴⁴⁾ 민간부분이 제조업(+22.8%)을 중심으로 13.4% 늘어나면서 6.3% 증가하였음.

39) 〈표 21〉 참조.

40) 〈표 25〉 참조.

41) 〈표 16〉 참조.

42) BSI 전망(기준치=100): 2015년 7월 70 → 8월 68 → 9월 68 → 10월 71 → 11월 68

43) 2014년 8월 공공부문 수주 급증으로 국내기계수주가 152.2% 증가하였던 데 대한 기저효과로 2015년 8월 국내기계수주가 58.4% 줄어들었음.

44) 2015년 10월 국내기계수주(선박제외) 기준으로 공공수요는 5.0%, 민간수요는 95.0%를 차지함.

- 11월 국내기계수주는 공공부문에서 전년동월대비 46.7% 감소하였고 민간부문도 7.7% 줄어들어 전년동월에 비해 15.0% 감소하였음.

〈표 23〉 투자 관련 지표 추이

(단위: %)

구분	2014				2015				
	2/4	3/4	4/4	연간	1/4	2/4	3/4 ²⁾	10월 ²⁾	11월 ²⁾
설비투자	7.7	4.2	4.2	5.8	5.8	5.0	6.6	-	-
설비투자지수	6.7	1.5	5.4	5.0	8.4	5.2	10.0	12.5	-5.4
기계류	3.9	-0.9	5.4	3.9	11.0	3.8	5.2	1.0	-11.0
운송장비	14.4	7.8	5.5	8.0	2.1	8.7	22.1	44.1	9.0
국내기계수주 ³⁾	4.0	49.4	-6.3	13.3	-2.6	15.7	-26.6	6.3	-15.0
건설투자	0.2	2.3	-1.4	1.0	0.6	1.6	5.7	-	-
건설기성(불변)	0.1	-1.9	-5.9	7.8	-2.0	-3.9	5.9	4.3	5.7
건축	11.9	5.9	-0.9	-16.3	-0.4	-3.7	10.3	13.2	15.4
토목	-15.4	-13.2	-12.4	0.0	-4.6	-4.3	-1.9	-10.6	-10.2
국내건설수주(경상)	25.4	42.8	-7.5	21.5	55.4	50.0	50.9	30.3	104.0
건축	45.6	61.8	-5.0	-33.1	87.7	50.0	41.6	41.8	112.3
토목	-11.5	-6.2	-13.1	0.0	-1.5	50.0	92.2	-5.9	85.1

주: 1) 전년동기(월)대비 증감률.

2) 잠정치.

3) 선박제외.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2015년 3/4분기 건설투자는 주택가격 및 전세가격 상승세, 시장금리 하락,⁴⁵⁾ 주택담보대출 규제 합리화 등이 주택 공급 증가⁴⁶⁾로 이어져 주거용 건물건설⁴⁷⁾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5.7% 증가하였음.

○ 건설기성⁴⁸⁾은 전년동기대비 5.9% 증가하였음.

45) 국고채(3년) 금리: 2015년 1/4분기 1.72% → 2/4분기 1.79% → 3/4분기 1.57%

46) 2015년 1~9월 주택 분양(승인)은 33,561호로 전년동기대비 52.2% 증가하였음.

47) 2015년 3/4분기 주거용 건물건설은 23.4% 증가하였음. 건물건설 중 주거용 건물건설과 비주거용 건물건설은 2015년 3/4분기 기준 각각 44.9%, 55.1%를 차지함.

48) 건설기성은 건설업체의 실제 시공실적을 금액으로 평가한 것으로 공사대금의 청구나 수취여부와는 무관하며 공사비 중 지가를 제외하고 발주자공급원자재비와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금액임(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용어설명, <http://www.kostat.go.kr>).

- 10월 건설기성은 최근의 증가세 확대에 따른 기저효과로 조정을 받아 전년동기대비 4.3% 늘어나는 데 그쳐 2015년 3/4분기 증가율보다 1.6%p 낮은 증가율을 보임.
- 11월 건설기성은 토목에서 감소하였으나 건축공사 증가폭이 확대되어 전년동월대비 5.7% 늘어남.
- 국내건설경기의 선행지표인 국내건설수주는 신규·재개발주택 등 건축 부문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50.9% 증가하였음.
- 10월 국내건설수주는 주택건설과 연구소·관공서 등 건축 부문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30.3% 증가하였음.
- 11월 국내건설수주는 주택, 사무실·점포 등 건축부문과 도로·교량, 철도·궤도 등 토목에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여 전년동월에 비해 104.0% 증가하였음.

〈고용〉

- 2015년 3/4분기 취업자 증가율은 전분기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고용률은 소폭 상승한 반면 실업률은 소폭 하락하였음.
- 총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1.2% 증가하였으며 10월과 11월 각각 전년동월대비 1.3%, 1.1% 증가하는데 그쳐 2014년에 비해 증가세 둔화가 지속되고 있음.
- 청년취업자 수의 경우 제조업 취업자를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1.3%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10월과 11월 각각 전년동월대비 2.6%, 2.3% 늘어남.
- 고용률은 전분기대비 0.2%p 상승한 60.9%를 나타냈으며 10월과 11월에도 각각 60.9%, 60.8%를 기록함.
- 2015년 3/4분기 실업률의 경우 3.4%를 나타냈으며 10월과 11월에도 각각 3.1%를 기록함.
- 3/4분기 청년실업률의 경우 제조업 취업자가 증가하면서 8.4%를 기록하였으며 10월과 11월 각각 7.4%, 8.1%를 나타냄.

〈표 24〉 고용 관련 지표

(단위: %)

구분	2014				2015				
	2/4	3/4	4/4	연간	1/4	2/4	3/4	10월	11월
총취업자 ¹⁾	1.8	2.0	1.7	2.1	1.4	1.2	1.2	1.3	1.1
청년취업자 ¹⁾	1.4	2.7	1.5	2.0	0.8	2.3	1.3	2.6	2.3
고용률 ²⁾	60.8	60.9	60.4	60.2	59.0	60.7	60.9	60.9	60.8
실업률 ³⁾	3.7	3.3	3.2	3.5	4.1	3.8	3.4	3.1	3.1
청년 ⁴⁾ 실업률 ³⁾	9.4	8.6	8.3	9.0	10.3	9.9	8.4	7.4	8.1
〈산업별 취업자〉									
농림어업	-3.3	-7.0	-7.2	-4.5	-7.4	-7.7	-6.8	-7.7	-11.2
광공업	3.2	4.6	2.9	3.4	3.1	3.3	3.8	4.5	4.5
제조업	3.3	4.7	3.0	3.5	3.2	3.4	3.8	4.4	4.4
SOC ⁵⁾ 및 기타서비스업	2.0	2.3	2.1	2.4	1.6	1.5	1.3	1.4	1.3
건설업	0.7	3.3	4.0	2.4	4.3	2.4	0.6	-1.5	-2.0
도·소매, 음식, 숙박	3.8	4.9	4.2	4.6	2.5	2.2	0.8	-0.7	-0.2
전기, 운수, 통신, 금융	-0.5	-2.5	-1.3	-0.6	-0.9	-0.1	1.7	2.6	2.5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1.9	2.1	1.5	2.0	1.3	1.3	1.6	2.9	2.5

주: 1) 전년동기(월)대비 증감률.

2) 고용률은 '취업자 / 15세 이상 인구 × 100'으로 정의됨.

3) 실업률은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으로 정의됨.

4) 청년은 15~29세 기준임.

5) SOC는 전기, 가스, 수도 및 건설업을 포함함.

자료: 통계청, 「고용동향」.

■ 2015년 3/4분기 광공업 취업자 수 증가세는 확대된 반면 SOC 및 기타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가세는 둔화되었음.

○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고령화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6.8% 줄어들었으며 10월과 11월에도 각각 전년동월대비 7.7%, 11.2% 감소하였음.

○ 광공업 부문 취업자 수⁴⁹⁾는 광공업 생산 개선⁵⁰⁾ 등에 힘입어 제조업 취업자를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3.8% 증가하였으며 10월과 11월에도 각각 전년동월대비 4.5%씩 늘어남.

○ SOC 및 기타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건설업, 도·소매, 음식, 숙박업 취업자 수 증가세 둔화가 지속되면서 전년동기대비 1.3% 증가함.

49) 제조업 포함.

50) 〈표 21〉 참조.

- 건설업 취업자 수는 그간의 급속한 증가세에 대한 기저효과 등으로 전분기대비 1.8%p 하락한 0.6%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10월과 11월에는 잦은 강수 등으로 취업 시간이 감소⁵¹⁾하면서 각각 1.5%, 2.0% 줄어들었음.
- 도·소매, 음식, 숙박업 취업자 수의 경우 0.8%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10월과 11월 각각 0.7%, 0.2% 감소하였음.
- 전기, 운수, 통신, 금융업 취업자 수의 경우 1.7% 증가하였으며 10월과 11월 각각 2.6%, 2.5% 늘어남.
- 2015년 3/4분기 사업·개인·공공서비스 취업자 수는 전분기대비 0.3%p 상승한 1.6% 증가하였으며 10월과 11월 2.9%, 2.5% 늘어남.

〈대외거래〉

■ 2015년 3/4분기 수출은 세계 무역규모 증가세 둔화⁵²⁾와 유가 하락⁵³⁾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9.5% 감소한 1,282억 달러, 수입은 18.5% 줄어든 1,082억 달러를 시현하였고 무역수지는 200억 3,000만 달러 흑자를 나타냄.

○ 수출의 경우, 식료 및 직접소비재(-4.4%), 원료 및 연료(-33.2%), 경공업 제품(-9.9%), 중화학 공업품(-6.4%) 등 전 품목에서 전년동기대비 감소세를 보임.

- 10월과 11월 수출은 각각 전년동월대비 16.6%, 17.7% 줄어들어 감소폭이 확대되었는데 이는 원자재가격 하락세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세⁵⁴⁾가 지속되는 가운데 석유화학·석유제품 공장 시설보수⁵⁵⁾ 등으로 수출 물량도 감소하였기 때문임.

○ 수입의 경우, 석탄, 철강, 원유 등 주요 원자재 단가 하락 지속으로 소비재(-1.8%)와 원자재(-32.4%) 수입이 전년동기대비 감소하였으나 설비투자 확대⁵⁶⁾로 자본재(3.7%)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증가하였음.

51) 주당평균취업시간증감(전년동월대비): 2015년 7월 -0.4% → 8월 0.8% → 9월 -0.1% → 10월 -0.2% → 11월 -0.6%, 건설업의 경우 취업자 수 증감은 기후에 민감하게 반응함.

52) 〈표 3〉 참조.

53) 2015년 3/4분기동안 두바이유, 브렌트유, WTI 현물 가격은 각각 25.6%, 23.9%, 24.2% 하락하였음.

54) 수출단가 증감율(전년동기대비): 2015년 1/4분기 -6.3% → 2/4분기 -9.2% → 3/4분기 -14.2%

55) 롯데케미칼 2015. 10. 21~2015. 11. 24, 금호석화 2015. 10. 19~2015. 11. 10, LG화학 2015. 10. 20~2015. 11. 26, SK 2015. 10. 14~2015. 11. 14, S-Oil 2015. 10. 21~2015. 11. 15 등.

56) 설비투자(전년동기대비): 2015년 2/4분기 5.0% → 3/4분기 6.6%

- 10월과 11월 수입도 국제유가 하락세로 원자재를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16.6%, 17.6% 줄어들었으나 11월 소비재의 경우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승용차 판매가 확대⁵⁷⁾되면서 증가하였음.

〈표 25〉 주요 품목별 수출입 증감률

(단위: %)

구분		2014				2015				
		2/4	3/4	4/4	연간	1/4	2/4	3/4	10월	11월
수출	식료 및 직접소비재	4.5	9.4	-2.2	3.9	-3.5	0.5	-4.4	-7.0	-0.3
	원료 및 연료	2.9	3.3	-10.9	-3.2	-36.0	-28.2	-33.2	-42.6	-33.4
	경공업 제품	-0.4	-0.1	-0.9	-1.0	-5.3	-9.5	-9.9	-12.1	-6.4
	중화학 공업품	3.5	3.9	2.6	3.3	1.7	-4.6	-6.4	-13.3	-1.4
	전체	3.2	3.6	0.9	2.3	-3.0	-7.2	-9.5	-16.6	-17.6
	금액(억 달러)	1,457	1,418	1,477	5,727	1,334	1,351	1,282	433.7	443.8
수입	소비재	12.8	19.0	7.4	12.1	8.1	2.2	-1.8	-5.0	3.0
	원자재	0.9	4.8	-8.6	-0.6	-29.4	-26.5	-32.4	-32.2	-30.1
	자본재	4.6	1.2	5.2	3.3	7.0	-0.9	3.7	9.1	-3.6
	전체	3.3	5.4	-2.8	1.9	-15.5	-15.6	-18.5	-16.6	-17.6
	금액(억 달러)	1,310	1,328	1,294	5,255	1,118	1,105	1,082	367.7	340.6
무역수지(억 달러)		147.2	89.2	183.5	471.5	216.1	246.2	200.3	66.0	103.2

주: 1) 전년동기(월)대비 증감률.

2) 금액은 천만 달러에서 반올림함.

자료: 관세청, 「수출입 동향」.

■ 2015년 3/4분기 지역별 수출의 경우 중국과 일본의 경기 둔화, 엔화 약세 등으로 對중국과 對일본 수출 감소폭이 확대되었으며 수입도 민간소비와 수출 부진 지속,⁵⁸⁾ 유가 하락⁵⁹⁾ 등의 영향으로 주요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이 모두 줄어들었음.

○ 3/4분기 對중국과 對일본 수출 감소세가 확대된 가운데 對ASEAN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7.2% 감소하였고, 對미국 수출도 기저효과로 2.2% 줄어들었음.

- 10월과 11월 對중국 및 對일본, 對중동 수출의 전년동월대비 감소폭이 확대되었는데 이는 미국 소비심리 둔화,⁶⁰⁾ 일본 소비 부진,⁶¹⁾ 중동지역 정세 불안정에 따른 내

57) 2015년 3/4분기 승용차 판매는 전년동기대비 16.7% 증가하였음.

58) 2015년 1/4분기~3/4분기 평균 민간소비 증가율은 1.8% 수준으로 2013년 1.9%와 2014년 1.8%에 비해 부진한 수준을 유지함. 재화수출 또한 상반기 0.9% 감소하였고 3/4분기 0.1% 증가하는데 그쳐 2015년 연간 2.3%에 비해 증가율이 하락하였음.

59) 〈표 4〉 참조.

수시장 위축⁶²⁾ 등이 원인임.

- 11월 對EU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출 증가,⁶³⁾ 동유럽을 중심으로 한 EU 기금 연계 인프라 건설에 따른 철강 수출 확대⁶⁴⁾와 그간의 감소세에 대한 기저효과 등이 원인임.

○ 3/4분기 유가 하락, 수출 부진 등으로 중동으로부터의 수입이 전년동기대비 45.5% 줄어들었으며 동남아, EU 일본, 호주 등으로부터의 수입도 감소세가 지속되었음.

- 10월과 11월에도 중국과 미국을 제외한 주요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이 전년동월대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중동으로부터의 수입 감소폭은 확대되고 있음.

60) 미국 소비자신뢰지수: 2015년 9월 102.6 → 10월 99.1 → 11월 90.4

61) 일본 가계소비지출(전년동기대비): 2015년 9월 -0.4% → 10월 -2.4%

62)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5. 11. 1).

63) 현대·기아차 판매량 증가 및 유럽 완성차 업체 원가절감을 위한 수입 증가로 수출 여건 개선(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15. 12. 1).

64) EU기금(EU Fund)은 EU 회원국 간의 사회·경제적 결속을 강화하고 지역 간 발전 불균형 해소 및 고용창출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EU 집행위가 회원국에 제공하는 지원금임(KOTRA, 「2014 EU 기금을 활용한 공공프로젝트 수주방안」). 기금은 7년 단위로 배정되는데, 2014~2020년 총 3,518억 유로 규모의 기금이 배정되어 있음. 2016년 초부터 동유럽을 중심으로 교통(철도, 도로), 환경 및 에너지, 디지털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발주가 추진됨(KOTRA, 「2016 해외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표 26〉 주요 지역별 수출입 현황

(단위: %)

구분		비중 ¹⁾	2014			2015				
			3/4	4/4	연간	1/4	2/4	3/4	10월	11월
수출	중국	25.4	-1.7	0.4	-0.4	-1.6	-2.7	-6.9	-8.0	-6.8
	ASEAN	14.8	3.8	-3.0	3.1	-17.8	-10.1	-7.2	-13.0	-5.1
	미국	12.3	15.0	21.9	13.3	13.3	-1.0	-2.2	-11.6	-12.4
	EU	9.0	4.3	-4.1	5.7	-21.2	-8.5	-3.6	-12.6	52.5
	중남미	6.3	13.6	14.6	-1.1	17.9	-12.7	-23.8	-34.9	-23.1
	중동	6.1	19.0	9.3	7.7	-3.7	-6.7	-17.2	-25.6	-24.1
	일본	5.6	-3.5	-13.9	-7.2	-22.2	-13.1	-26.5	-25.9	-19.0
	전체	100.0	3.6	0.9	2.3	-3.0	-7.2	-9.5	-16.6	-17.6
수입	중동	22.7	0.8	-18.8	-5.6	-41.8	-37.3	-45.5	-44.1	-48.2
	중국	17.1	7.7	12.1	8.5	7.1	-4.1	2.5	3.3	2.2
	동남아	13.5	5.2	-2.1	1.4	-6.8	-13.9	-12.1	-7.6	-8.0
	EU	11.9	11.2	5.5	11.0	-7.8	-5.2	-11.0	-13.9	-6.8
	일본	10.2	-8.9	-8.3	-10.4	-8.8	-13.2	-17.9	-16.6	-23.0
	미국	8.6	11.8	4.1	9.1	-7.2	-2.6	0.2	7.2	-4.1
	호주	3.9	-3.5	-11.5	-1.8	-19.3	-22.3	-15.1	-29.3	-26.2
	전체	100.0	5.4	-2.8	1.9	-15.5	-15.6	-18.5	-16.6	-17.6

주: 1) 2014년 전체 수입 및 수출에서 차지하는 지역별 비중.

2) 증감률은 전년동기(월)대비.

자료: 관세청, 「수출입 동향」.

〈물가〉

■ 2015년 3/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은 서비스 물가 상승으로 0.7%를 기록하였으며 10월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폭 확대⁶⁵⁾로 0.9%를 나타냈고 11월 내수개선에 따른 공업제품가격 상승⁶⁶⁾과 서비스물가 상승세 지속으로 1.0%를 나타냄.

○ 상품가격 상승률의 경우 국제유가 급락, 취업자 수 증가세 둔화 등으로 -0.9%를 나타냄.

- 전기·수도·가스·가격의 경우 국제유가 급락의 영향으로 전기요금이 하향조정⁶⁷⁾되면서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음.

65) 농축수산물 가격은 2013년 9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음. 이에 따라 농축수산물 가격은 2014년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이에 대한 기저효과로 10월 가격 상승세가 확대되었음(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5. 11. 13).

66)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5. 12. 1).

67) 7~9월 주택용 요금 누진 4구간에서 3구간 요금 적용.

○ 서비스물가 상승률은 7월 시내버스 및 전철 요금 인상⁶⁸⁾ 등으로 전분기대비 0.4%p 상승한 2.0%를 나타냈으며 10월과 11월에도 집세 상승 등으로 각각 2.1%, 2.2%를 나타냄.

■ 2015년 3/4분기 소비자기대지수는 전분기와 동일한 103.0을 나타냈으며 10월 107.8, 11월 105.4를 기록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나타냄.

〈표 27〉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소비심리

(단위: %)

구분	2014				2015				
	2/4	3/4	4/4	연간	1/4	2/4	3/4	10월	11월
소비자기대지수 ¹⁾	115.7	114.1	118.4	113.0	104.6	103.0	103.0	107.8	105.4
소비자물가 상승률	1.6	1.4	1.0	1.3	0.6	0.5	0.7	0.9	1.0
〈품목성질별 물가지수 상승률〉									
상품	1.6	1.0	0.2	1.0	-0.7	-0.8	-0.9	-0.6	-0.5
농축수산물	-2.2	-3.3	-0.3	-0.6	0.3	2.1	2.9	3.0	1.7
공업제품	2.0	1.6	-0.1	0.9	-0.4	-0.3	-0.2	-0.3	0.0
전기·수도·가스	4.2	3.4	2.5	4.5	-3.7	-8.0	-10.8	-7.2	-7.1
서비스	1.6	1.7	1.6	1.5	1.6	1.6	2.0	2.1	2.2
집세	2.4	2.3	2.2	2.7	2.3	2.4	2.7	2.8	2.8
공공서비스	0.7	0.9	0.7	0.7	0.5	0.5	1.8	2.0	2.0
개인서비스	1.8	1.9	1.8	1.6	1.8	1.9	1.8	2.0	2.1

주: 1) 소비자 기대 및 평가지수가 2008년 8월까지 통계청에서 작성된 후 2008년 9월부터 한국은행 소비자 동향 지수로 개편되었으나, 자료의 연속성을 위해 '85.0/77.0 × 향후경기전망CSI(Consumer Sentiment Index)'로 산출함.

2) 전년동기(월)대비.

자료: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및 「소비자기대 및 평가지수」.

〈가계소득〉

■ 2015년 3/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고용증가세 둔화⁶⁹⁾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0.7%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월평균소비지출도 소비 대기수요 발생 등 일시적 요인⁷⁰⁾으로 전년동기대비 0.5% 감소하였음.

○ 2015년 3/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41만 6,000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0.7% 증가하였고 실질소득은 전년동분기와 같은 수준을 나타냄.

68) 시내버스 8.8%, 전철 15.2% 인상되었음.

69) 취업자 수 증감률(전년동기비, %): 2014년 3/4분기 2.0% → 2014년 4/4분기 1.7% → 2015년 1/4분기 1.4% → 2015년 2/4분기 1.2% → 2015년 3/4분기 1.2%

70) 10월 유통업체 대규모 합동 프로모션 실시(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등(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5. 11. 14).

-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358만 2,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9% 증가하였으며 흑자액은 102만 원으로 4.7% 증가함.

○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전년동기대비 0.5% 줄어든 256만 3,000원을 기록하였으며 실질소비지출도 전년동기대비 1.2% 감소해 흑자액은 4.7% 증가함.

- 평균소비성향이 71.5%로 전년동기와 같은 수준을 나타내면서 저축능력을 나타내는 흑자율도 28.5%로 전년동기와 같은 수준을 보임.

〈표 28〉 가계소득 및 소비지출 관련 지표

(단위: %, %p)

구분		2014				2015		
		2/4	3/4	4/4	연간	1/4	2/4	3/4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금액(만 원)	415.2	438.8	426.4	430.2	451.7	427.1	441.6
	증가율	2.8	3.0	2.4	3.4	2.6	2.9	0.7
	실질증가율 ²⁾	1.1	1.6	1.4	2.1	2.0	2.3	0.0
처분가능 소득	금액(만 원)	338.1	355.0	350.3	349.8	366.8	348.4	358.2
	증가율	2.8	2.8	2.9	3.5	3.0	3.1	0.9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금액(만 원)	247.8	257.6	250.6	255.1	265.3	249.4	256.3
	증가율	3.1	3.3	0.9	2.8	0.0	0.7	-0.5
	실질증가율 ²⁾	1.5	1.9	-0.1	1.5	-0.6	0.1	-1.2
흑자액	금액(만 원)	90.3	97.4	99.7	94.7	101.5	98.9	102.0
	증가율	2.2	1.6	8.3	5.2	11.6	9.6	4.7
평균소비성향 ³⁾		73.3	72.6	71.5	72.9	72.3	71.6	71.5
흑자율 ⁴⁾		26.7	27.4	28.5	27.1	27.7	28.4	28.5

주: 1) 전년동(분)기대비.

2) 실질 금액은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계산하며 실질 증감률은 전년동(분)기대비 증감률임.

3) 평균소비성향은 '(소비지출 ÷ 처분가능소득) × 100'으로 정의됨.

4) 흑자율은 '(흑자액 ÷ 처분가능소득) × 100'으로 정의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

3. 금융경제

2015년 4/4분기 국고채(3년 만기) 금리는 2015년 3/4분기보다 2bp 하락한 1.70%를 나타냄. 2015년 4/4분기 원/달러 평균 환율은 글로벌 달러화 강세 및 중국 경기둔화 우려 등의 요인에 따라 2015년 3/4분기 평균 환율보다 10.1원 하락한 1,157.7원을 기록함. 2015년 4/4분기 종합주가지수는 전분기 평균 1,986.99보다 상승한 평균 1,999.03을 기록함. 2015년 3/4분기 보험권 총 순수익은 15조 1,589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1.42% 증가함.

〈금리〉

■ 2015년 4/4분기 기준금리는 1.50%로 지난 분기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금융통화위원회는 세계 경제의 경우 미국 등 선진국 중심의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전망하고, 국내 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함.
- 금융통화위원회는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 증대,⁷¹⁾ 신흥국 성장세 약화⁷²⁾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1.50%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함.

■ 2015년 4/4분기 평균 국고채(3년 만기) 금리는 전분기 대비 2bp 하락한 1.70%임.

- 10월 국고채 금리는 국내 경제지표 개선,⁷³⁾ 미 연준의 12월 정책금리 인상가능성 등의 영향으로 9월 말 수치인 1.57%보다는 상승하였으나 9월 평균금리인 1.65%보다 2bp 하락한 1.63%를 기록함.
- 11월 평균 국고채 금리는 미 연준의 금리인상 가능성 재부각, 은행채 발행에 따른 물량 부담⁷⁴⁾ 등에 따라 10월 평균 1.63%보다 12bp 상승한 1.75%를 나타냄.
- 12월 국고채 금리는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유가 급락,⁷⁵⁾ 무디스의 한국 신용등급 상향 조정⁷⁶⁾ 등의 영향으로 11월 평균 금리보다 3bp 하락한 1.72%를 기록함.

71) 미 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와 신흥국 자금 이탈 우려로 장기금리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임.

72) 신흥국 성장세 약화는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데, 중국의 2015년 3/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6.9%로 2014년 3/4분기 7.2%에 비하여 하락하였음.

73) 3/4분기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2%를 기록하며 큰 폭으로 반등하였으며, 민간 소비와 정부 소비 역시 각각 전분기 대비 1.1%, 1.2% 성장을 기록함.

74) 11월 은행채 순 발행액은 7조 2,876억 원으로 10월 순 발행액 1조 5,127억 원에 비해 약 4.8배 증가함.

75) 국제 유가를 살펴보면, 두바이유, 브렌트유, WTI가 각각 12월 말 배럴 당 34.6달러, 37.3달러 37.0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연초 가격과 비교하여 각각 36%, 27%, 30% 감소한 가격임.

76) 12월 18일 무디스는 한국 신용등급을 Aa3에서 Aa2로 상향 조정함.

〈표 29〉 금리 및 스프레드 추이

(단위: %, %p)

구분	2014 4/4	2015 1/4	2015 2/4	2015 3/4	2015 4/4	전분기 대비	전년동기 대비
기준금리	2.00	1.75	1.50	1.50	1.50	0.00	-0.50
CD(91일)	2.16	2.07	1.77	1.63	1.61	-0.02	-0.55
국고채(3년)	2.17	1.97	1.80	1.72	1.70	-0.02	-0.47
회사채(3년, AA-)	2.51	2.26	2.04	1.98	2.07	0.09	-0.44
스프레드(국고채-CD)	0.01	-0.09	0.03	0.09	0.09	0.00	0.08
스프레드(회사채-국고채)	0.34	0.28	0.24	0.26	0.37	0.11	0.03

주: 금리는 분기 평균 값임.
자료: 한국은행.

■ 2015년 4/4분기 평균 CD(91일) 금리는 1.61%로 6분기 연속 하락하였으며, 신용 스프레드(회사채와 국고채 간 금리 차이)는 전분기대비 11bp 상승함.

○ 4/4분기 CD금리는 유동성(LCR)⁷⁷⁾ 규제 강화와 연말 자금 수요 등에 따른 은행의 단기 은행채 발행 확대,⁷⁸⁾ 미국 금리인상에 대비한 단기자금 선수요⁷⁹⁾ 등으로 11월 중 급등하였으나 12월 들어 소폭 하락하며 전분기대비 2bp 하락한 평균 1.61%임.

○ 4/4분기 평균 ‘국고채(3년)-CD(91일)’ 간 스프레드는 전분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회사채 금리는 4/4분기 평균 2.07%로 전분기대비 9bp 상승하였고, 신용 스프레드는 전분기대비 11bp 상승한 평균 37bp임.

〈환율〉

■ 2015년 4/4분기 동안 원/달러 평균 환율은 전분기대비 10.1원 하락한 평균 1,157.7원을 기록함.

77) LCR(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금융기관에 긴급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30일 동안 자체적으로 견딜 수 있는 국채, 현금과 같은 고유동성 자산의 보유비율로, 우리나라는 바젤3 도입에 맞춰 일반은행은 도입 첫 해인 2015년부터 최저수준 80%로 적용하였고, 4년간 매년 5%를 올려 2019년부터는 100%를 유지하여야 함.

78)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 만기가 연말로 변경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은행 인출이 증가하여 은행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은행채 발행이 확대됨.

79) 미국 금리 인상에 따라 단기 금리가 상승하기 전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려는 수요가 증가함.

- 10월 원/달러 환율은 미국 경제지표 부진⁸⁰⁾에 따른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기대 약화 등으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며 9월 평균 원/달러 환율 1,184.8원보다 하락하여 평균 1,148.2원을 기록함.
- 11월 원/달러 평균 환율은 미국 경제지표 호조⁸¹⁾에 따른 미 연준의 연내 금리인상 기대, 파리 테러로 인한 위험회피 심리 강화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며 10월 평균 원/달러 환율보다 상승한 1,152.0원이었음.
- 12월 원/달러 평균 환율은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고조, 유가급락,⁸²⁾ 위안화 절하 가능성 지속⁸³⁾ 등의 영향으로 원화에 대하여 달러가 강세를 보이며, 11월 평균 환율보다 상승한 1,172.2원을 나타냄.

〈표 30〉 환율 추이

(단위: 원, 엔, 달러)

구분	2014	2015						
	4/4	1/4	2/4	3/4	4/4	10월	11월	12월
원/달러	1,086.7	1,100.3	1,097.8	1,167.8	1,157.7	1,148.2	1,152.0	1,172.2
엔/달러	114.5	119.2	121.4	122.2	121.5	120.1	122.5	121.8
달러/유로	1,249	1,127	1,105	1,112	1,095	1,123	1,075	1,088

주: 환율은 분기 또는 월 평균 값임.

자료: 한국은행.

■ 2015년 4/4분기 달러화는 달러화 강세 기조가 완화되면서 엔화에 대해서는 약세를 보였으나 ECB의 추가양적완화 전망 등의 영향으로 유로화에 대해서는 강세를 보였음.

○ 10월 달러화는 BOJ와 ECB의 양적완화 가능성⁸⁴⁾에도 불구하고, 미국 금리 인상 지연

80) 미국 3/4분기 성장률은 기업재고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대비 1.5%를 기록하여 2/4분기 3.9%에 비하여 성장세가 둔화되었고, 미국 9월 제조업지수는 50.2로 8월 51.1에 비하여 하락하였으며, 8월 무역 적자 483억 달러로 7월 418억 달러 적자에 비하여 적자도 확대됨.

81) 미국 9월 건설지출부분은 1조 9천억 달러로 전월대비 0.6% 증가하였고, 10월 비농업부분 고용은 27만 1천여 명으로 전망치인 17만 1천여 명을 크게 상회하였으며, 미국 10월 실업률은 5.0%로 이는 지난 7년 이래 최저 수준임.

82) 두바이유, 브렌트유, WTI가 각각 12월 말 배럴 당 가격이 연초 가격과 비교하여 각각 36%, 27%, 30% 감소함.

83) 12월 11일 중국 외환거래센터(CFETS)가 'CFETS 위안화 환율지수'를 공식발표 하면서 위안화의 지속적인 절하 가능성이 증대되었고, 12월 18일 중국 인민은행의 위안/달러 기준환율은 6.48위안으로 10거래인 연속 위안화가 절하됨.

84) 일본 8월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0.5%, 유로존 9월 CPI상승률은 전년동기 대비 -0.1%로 경제지표가 악

전망에 따라 엔화와 유로화 대비 약세를 보여 평균 엔/달러 환율과 달러/유로 환율은 각각 120.1엔, 1.123달러였음.

- 11월 달러화는 미국의 연내 금리 인상 전망, 일본 성장률 부진,⁸⁵⁾ ECB의 추가 양적완화 전망의 영향으로 엔화와 유로화 대비 강세를 보였으며, 이에 따라 평균 엔/달러 환율은 122.5엔으로 전달대비 상승하고, 평균 달러/유로 환율은 1.075달러로 전달대비 하락함.
- 12월 달러화는 미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른 주요국 통화정책 차별화 부각⁸⁶⁾ 등으로 약간의 강세를 보였으나 달러화 강세 기조 완화 등의 영향으로 엔화와 유로화 대비 약세를 보여 평균 엔/달러, 달러/유로 환율은 각각 121.8엔, 1.088달러를 나타냄.

〈주가지수〉

■ 2015년 4/4분기 종합주가지수는 전분기 평균 1,986.99보다 상승한 평균 1,999.03을 기록함.

- 10월 평균 종합주가지수는 국내 경지지표 호조,⁸⁷⁾ 일부 대기업의 실적 개선,⁸⁸⁾ 외국인 순매수⁸⁹⁾ 등의 영향으로 2015년 9월 평균 주가지수 1,939.73에 비해 상승한 2,020.57을 기록함.
- 11월 종합주가지수는 미국 기준금리의 점진적 인상 전망, 기관 매수세⁹⁰⁾ 등의 영향으로 10월 평균 종합주가지수보다 상승한 평균 2,006.78을 기록함.
- 12월 평균 종합주가지수는 무디스의 한국 신용등급 상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의 12월 금리 인상 시사, 외국인 순매도 확대,⁹¹⁾ 유가 급락, 중국 무역수지 및 증시 부진⁹²⁾ 등의 영향으로 평균 1,971.06으로 전월대비 하락함.

화되면서 BOJ와 ECB의 추가 양적완화 기대가 증대됨.

85) 일본 9월 근원 CPI는 전년동기대비 -0.1%를 기록하며 목표치인 2.0%에 비해 부진하였고, 3/4분기 GDP가 연율 -0.8%를 기록하며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임.

86) 미국은 12월 금리 인상을 단행하였고, ECB는 통화정책 회의를 열고 예치금리를 -0.2%에서 -0.3%로 인하하고, 자산매입 기간으로 2016년 9월에서 2017년 9월로 연장하는 등의 추가 양적완화 정책을 발표함.

87) 한국 2015년 3/4분기 실질GDP 성장률이 전분기대비 1.2%p 상승하였으며, 전년동기대비 2.6%p 상승함.

88) 삼성전자의 2015년 3/4분기 실적은 7조 3천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9.8%, 전분기대비 5.8%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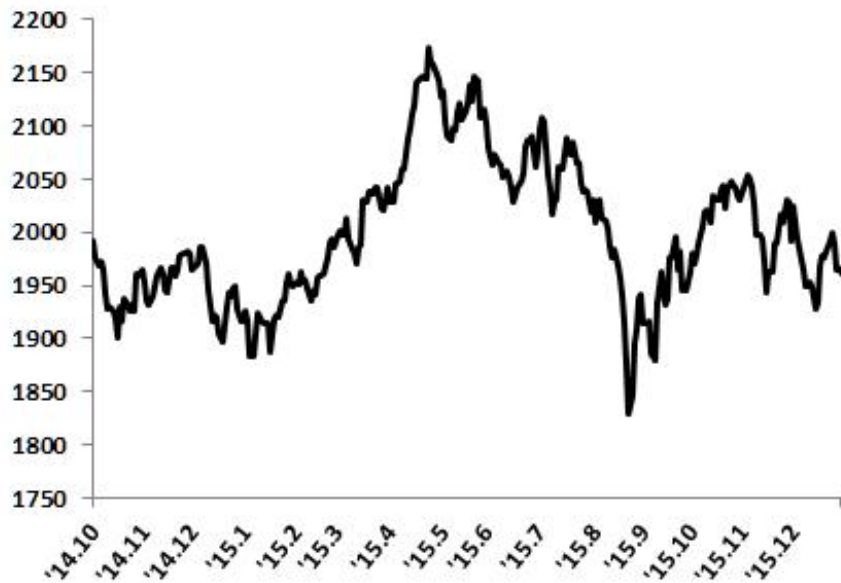
89) 10월 중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 금액은 5,900억 원으로 9월 1억 9580억 원 순매도에서 매수세로 전환됨.

90) 다양한 매수 기관 중에서도 연기금의 매수 금액이 6,544억 원으로 영향력이 컸음.

91) 12월 첫째주 외국인 순매도는 1조 3,474억 원으로 11월 마지막 주 4,486억 원에 비해 매도세가 확대됨.

92) 중국의 11월 무역수지는 541억 달러 흑자를 시현하였으나 수출은 6.8%감소하고, 수입 역시 8.7% 감

〈그림 4〉 주가지수 추이



자료: 한국은행.

〈자금흐름〉

- 2015년 3/4분기 보험권 총 순수신은 15조 1,589억 원으로 전분기대비 1.42% 증가함.
 - 생명보험 순수신은 전분기대비 6.36% 증가한 12조 1,369억 원임.
 - 수입보험료는 27조 1,624억 원이고, 지급보험금은 15조 255억 원으로 전분기대비 각각 2.5%, 8.6% 감소하였으며, 지급보험금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순수신이 증가함.
 - 손해보험 순수신은 전분기대비 약 5,136억 원이 감소한 3조 219억 원임.
 - 원수보험료는 약 3,329억 원이 감소하고, 지급보험금이 1,806억 원 증가하면서 전분기대비 순수신이 감소함.
- 2015년 3/4분기 금융권 순수신은 전분기대비 은행을 제외한 증권, 자산운용 모두 감소함.
 - 은행의 경우 전분기대비 신탁계정과 일반계정이 모두 증가하여 총 순수신이 전분기대비 3조 7,025억 원 증가한 4조 7,283억 원을 기록함.

소하는 불확형 흑자의 형태를 보임.

- 일반계정은 전분기대비 약 1조 974억 원이 증가하였고, 신탁계정은 전분기대비 약 2조 6,051억 원 감소하면서 각각 29조 6,116억 원, 11조 6,797억 원을 시현함.

○ 증권사 순수신은 전분기대비 5조 8,980억 원 감소한 4,222억 원임.

○ 자산운용업의 총 순수신은 전분기대비 8조 2,235억 원 감소하여 4조 5,360억 원의 손실을 기록함.

- MMF는 단기 금리 상승에 따른 금리 메리트 저하로 수신이 감소함.⁹³⁾

〈표 31〉 금융기관 순수신 추이

(단위: 억 원)

구분	2013	2014				2015			
	4/4	1/4	2/4	3/4	4/4	1/4	2/4	3/4	4/4
보험 ¹⁾	167,547	133,551	145,570	135,769	196,083	139,618	149,469	151,589	-
- 생보	135,447	101,936	110,963	104,478	165,865	104,840	114,114	121,369	-
수입보험료	287,363	257,467	264,960	255,554	327,771	273,358	278,525	271,624	-
지급보험금	151,916	155,531	153,998	151,076	161,906	168,518	164,412	150,255	-
- 손보	32,100	31,615	34,607	31,291	30,218	34,778	35,355	30,219	-
원수보험료	192,842	183,082	180,217	179,023	223,433	193,204	192,156	188,827	-
원수손해액	160,742	151,466	145,610	147,732	193,215	158,425	156,802	158,608	-
은행	229,979	272,496	250,005	76,442	391,862	138,338	370,258	407,283	412,913
- 일반 ²⁾	128,580	199,612	231,527	32,411	314,189	28,931	327,515	338,489	296,116
- 신탁	101,399	72,884	18,478	44,031	77,673	109,407	42,743	68,794	116,797
증권 ³⁾	-47,513	6,904	19,088	53,478	-6,648	65,495	55,742	-3,238	4,222
자산운용 ⁴⁾	-41,835	96,918	16,946	196,161	160,044	278,994	163,004	80,769	-45,360
종금 ⁵⁾	2,444	8,863	2,733	826	3,420	-	6,816	8,403	5,195
									-1,453

주: 1) 보험의 순수신은 수입(원수)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원수손해액)을 차감하여 산출함.

2) 실세충예금 + CD 순발행액

3) 고객예탁금 + RP 매도 + CMA

4) 채권형 + MMF + 혼합형 + 주식형 + 기타

5) 발행어음 + CMA 예탁금 + 어음매출

자료: 보험개발원, 한국은행.

93) MMF는 장부가로 평가되기 때문에 시장금리 상승 시 기준에 낮은 금리로 편입된 채권 등의 영향으로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더디게 상승함.

Ⅲ. 국내보험시장 동향

1. 보험산업 총괄

2015년 3/4분기 수입보험료의 경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6.3%, 5.5% 증가하였으며, 전체적으로는 6.0% 늘어난 46조 476억 원을 시현함. 보험산업 총 자산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서 모두 늘어나 전분기대비 2.6% 증가한 926조 7,826억 원을 기록함. 한편, 보험산업 자본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4%p 하락한 1.6%를 나타냄.

가. 수입보험료

■ 2015년 3/4분기 보험산업 전체 수입(원수)보험료의 경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모두 성장하여 전년동기대비 6.0% 늘어난 46조 476억 원을 기록함.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6.3% 증가한 27조 1,624억 원임.

○ 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5.5% 늘어난 18조 8,851억 원을 기록함.

〈표 1〉 보험산업 수입보험료^{1),2)}

(단위: 조 원, %)

구분	2014					2015		
	1/4	2/4	3/4	4/4 ³⁾	연간 ⁴⁾	1/4	2/4	3/4
생명보험	25.7	26.5	25.6	32.8	110.6	27.3	27.9	27.2
	(-17.8)	(8.1)	(6.5)	(14.1)	(1.9)	(6.2)	(5.1)	(6.3)
손해보험	18.3	18.0	17.9	22.3	76.6	19.3	19.2	18.9
	(8.0)	(3.8)	(4.6)	(15.9)	(8.3)	(5.5)	(6.6)	(5.5)
합계	44.1	44.5	43.5	55.1	187.2	46.7	47.1	46.0
	(- 8.8)	(6.4)	(5.7)	(14.8)	(4.4)	(5.9)	(5.7)	(6.0)

주: 1) 주요지표에는 특별계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손해보험은 원수보험료 기준임.

2) 각 하단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며, 반올림에 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2014년 4/4분기는 FY2013 3/3분기와 비교함.

4) 2014는 2014년 1~12월 수치이며, 증가율은 2013년 1~12월 수치와 비교함.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총자산

■ 2015년 3/4분기 보험산업 총자산 규모는 전분기대비 2.6% 늘어난 926조 7,826억 원을 나타냄.

○ 생명보험 총자산 규모는 전분기대비 2.3% 증가함.

○ 손해보험 총자산은 전분기대비 3.5% 늘어남.

〈표 2〉 보험산업 총자산^{1),2)}

(단위: 조 원, %)

구분	2014					2015		
	1/4	2/4	3/4	4/4	연간 ³⁾	1/4	2/4	3/4
생명보험	609.2	625.0	640.4	662.1	662.1	685.7	691.0	707.1
	(2.0)	(2.6)	(2.5)	(3.4)	(10.8)	(3.6)	(0.8)	(2.3)
손해보험	176.9	185.1	191.4	200.3	200.3	207.9	212.3	219.7
	(3.7)	(4.6)	(3.4)	(4.7)	(17.4)	(3.6)	(2.1)	(3.5)
합계	786.1	810.2	831.8	862.4	862.4	893.6	903.3	926.8
	(2.4)	(3.1)	(2.7)	(3.7)	(12.3)	(3.6)	(1.1)	(2.6)

주: 1) 주요지표에는 특별계정이 포함되어 있음.

2) 각 하단 수치는 전분기대비 증가율이며, 반올림에 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2014년은 2014년 12월 말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3년 12월 말 수치와 비교함.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수익성

■ 2015년 3/4분기 보험산업 전체 자본이익률의 경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재보험회사, 보증보험회사 제외) 모두 하락하여 전년동기대비 0.4%p 하락한 1.6%임.

○ 생명보험산업 자본이익률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0.6%p 하락한 1.4%를 기록함.

○ 손해보험산업 자본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1%p 하락한 2.1%를 나타냄.

〈표 3〉 보험산업 자본이익률^{1),2)}

(단위: %)

구분	2014					2015		
	1/4	2/4	3/4	4/4 ³⁾	연간	1/4	2/4	3/4
생명보험	1.9	2.0	2.0	0.3	5.9	2.1	2.4	1.4
손해보험	2.6	3.0	2.2	0.9	8.7	2.8	2.8	2.1
합계	2.1	2.3	2.0	0.4	6.6	2.3	2.5	1.6

주: 1) 생명 및 손해보험회사는 농협생명·화재보험의 진입으로 FY2012 1/4분기부터 각각 24개, 18개 국내의 보험 회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고, FY2013 3/3분기 이후 생명보험회사는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진입으로 25개 회사를 분석대상으로 함.

2) 자본이익률 = 당기순이익 / 기중자본, 기중자본 = ((전회계연도 말 자본 + 당기 말 자본) / 2)

3) 2014년 4/4분기는 FY2013 3/3분기와 비교함.

4) 반올림에 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각 월호.

2. 생명보험

2015년 3/4분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6.3% 증가한 27조 1,624억 원을 기록함. 총자산은 전분기대비 2.3% 증가한 707조 708억 원을 기록함. 2015년 3/4분기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18.2% 감소한 8,874억 원을 나타냈음. 운용자산 이익률과 자본이익률은 각각 4.18%, 1.42%임. 2015년 3/4분기 모집형태별 초회보험료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임직원과 대리점 채널이 하락하였으며, 나머지 채널은 소폭 상승함.

가. 수입보험료

〈생명보험 개요〉

■ 2015년 3/4분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개인보험과 단체보험 모두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6.3% 늘어난 27조 1,624억 원을 기록함(〈표 4〉 참조).

-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전 종목 수입보험료가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5.3% 증가함.
-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지속적인 퇴직연금 성장에 힘입어 24.3% 늘어남.

〈종목별 수입보험료 현황〉

■ 2015년 3/4분기 개인보험 수입보험료의 경우 모든 종목 수입보험료가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5.3% 증가함(〈표 4〉 참조).

- 생존보험 수입보험료는 초회보험료의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계속보험료의 성장세에 힘입어 4.3% 성장함.
- 사망보험 수입보험료는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겸비된 연금 선지급형 종신보험이 인기를 끌면서 8.9% 늘어남.
 - 종신보험의 예정이율 인하에 따른 가격인상 전 수요가 증가하여 초회보험료가 전년 동기대비 150.5% 늘어나면서 전체 수입보험료가 19.6% 증가함.
- 생사혼합보험 수입보험료는 2014년 2/4분기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 3/4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4.0% 증가함.

- 생사혼합보험 초회보험료는 12.3% 감소한 반면 계속보험료는 8.2%로 증가하면서 계속보험료 위주의 성장을 시현함.
 - 변액보험 수입보험료는 시중 주가지수 상승세에 따라 변액연금을 제외한 변액보험 전 종목이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2.0% 늘어남.
 - 변액종신 초회보험료는 6.7% 감소하였으나 계속보험료는 8.8%의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며, 변액연금은 초회보험료와 계속보험료 모두 감소세를 지속함.
- 2015년 3/4분기 단체보험 수입보험료의 경우 퇴직연금 수입보험료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24.3% 증가함.
-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사적연금시장 확대 정책의 영향과 계속보험료의 지속적인 증가의 영향으로 30.1% 성장함.
 - 일반단체보험은 초회보험료가 1.5% 증가했으나 계속보험료가 7.3% 감소하면서 수입보험료가 6.0% 감소하였고, 퇴직보험 수입보험료도 19억 원이 거수되면서 44.5% 감소함.

〈표 4〉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1),2)}

(단위: 억 원, %)

구분		2014					2015		
		1/4	2/4	3/4	4/4	연간 ⁵⁾	1/4	2/4	3/4
생존	보험료	58,006	60,647	58,776	62,910	240,340	62,882	61,157	61,327
	증가율	-40.6	14.1	8.9	13.4	-7.6	8.4	0.8	4.3
	초회보험료	16,041	17,890	15,262	17,443	66,636	17,646	15,243	15,071
	계속보험료	41,965	42,757	43,514	45,467	173,704	45,237	45,914	46,256
사망	보험료	81,286	82,133	83,131	85,238	331,788	89,041	88,434	90,538
	증가율	3.6	4.1	4.6	6.2	4.6	9.5	7.7	8.9
	초회보험료	2,149	2,250	2,604	3,717	10,720	6,432	4,015	5,346
	계속보험료	79,137	79,883	80,527	81,521	321,069	82,609	84,418	85,191
생사 혼합	보험료	50,697	51,639	49,171	49,038	200,544	51,932	53,500	51,152
	증가율	-25.5	8.5	6.4	6.8	-3.5	2.4	3.6	4.0
	초회보험료	12,610	12,695	9,945	8,935	44,185	11,628	10,807	8,719
	계속보험료	38,087	38,945	39,226	40,103	156,360	40,304	42,693	42,433
변액 보험	보험료	51,884	51,246	51,622	51,957	206,709	51,122	53,539	52,629
	증가율	-6.2	-2.5	0.5	0.9	-1.9	-1.5	4.5	2.0
	초회보험료	2,603	2,524	2,819	2,504	10,451	2,343	3,942	4,168
	계속보험료	49,281	48,722	48,803	49,453	196,259	48,779	49,597	48,461
개인예	보험료	241,873	245,665	242,701	249,143	979,382	254,977	256,631	255,646
	증가율	-19.2	5.8	5.0	6.8	-1.7	5.4	4.5	5.3
	초회보험료	33,403	35,358	30,631	32,599	131,991	38,048	34,008	33,304
	계속보험료	208,470	210,307	212,070	216,543	847,391	216,929	222,623	222,342
단체	보험료	15,594	19,295	12,853	78,629	126,371	18,381	21,895	15,979
	증가율	13.2	51.2	43.5	45.2	45.8	17.9	13.5	24.3
	초회보험료	6,347	7,507	4,833	33,959	52,646	6,816	4,183	4,606
	계속보험료	9,246	11,788	8,021	44,669	73,725	11,564	17,712	11,373
합계	보험료	257,467	264,960	255,554	327,771	1,105,753	273,358	278,525	271,624
	증가율	-17.8	8.1	6.5	14.1	1.9	6.2	5.1	6.3

주: 1) 단체보험에는 특별계정의 퇴직보험, 퇴직연금이 포함됨.

2) 전년동기대비(분기) 증가율이며, 2014년 4/4분기는 FY2013 3/3분기와 비교함.

3) 반올림에 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4) 2014는 2014년 1~12월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3년 1~12월 수치와 비교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종목별 수입보험료 구성비〉

■ 2015년 3/4분기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비중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사망보험과 단체보험 비중이 소폭 확대됨.

○ 사망보험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0.8%p 상승한 33.3%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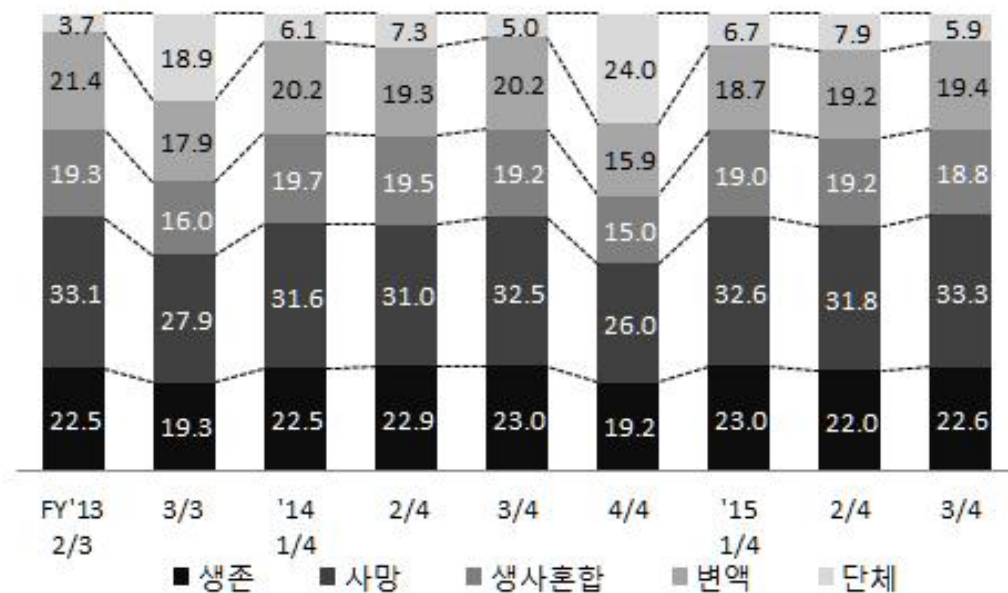
- 사망보험은 2013년 2/4분기부터 지속적으로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단체보험의 비중이 전년동기대비 0.9%p 상승하며 5.9%를 나타냄.

■ 변액보험 수입보험료 비중은 수입보험료가 증가하였으나 전년동기대비 0.8%p 하락한 19.4%임.

〈그림 1〉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구성비 변동 추이

(단위: %)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 2015년 3/4분기 수입보험료 기준 시장점유율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상위 3사와 외국사는 하락하였으나, 중·소형사는 상승함.

○ 상위 3사 시장점유율은 45.9%로 전년동기 48.0%에 비하여 2.1%p 하락함.

○ 국내 중·소형사 시장점유율은 전년동기대비 2.8%p 상승한 40.6%를 기록함.

○ 외국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년동기보다 0.7%p 하락한 13.5%를 나타냄.

■ 2015년 3/4분기 허핀달 지수는 0.1020으로 전년동기대비 0.0062p 하락하면서 시장집중도가 하락함.

〈표 5〉 생명보험시장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¹⁾

(단위: %)

구분	2014					2015		
	1/4	2/4	3/4	4/4	연간 ⁵⁾	1/4	2/4	3/4
상위 3사	47.5	48.2	48.0	51.7	49.0	47.1	46.4	45.9
국내 중·소형사 ²⁾	38.6	38.2	37.8	37.2	37.9	39.7	39.9	40.6
외국사 ³⁾	13.9	13.7	14.2	11.1	13.1	13.1	13.7	13.5
허핀달 지수 ⁴⁾	0.1070	0.1088	0.1082	0.1315	0.1138	0.1074	0.1061	0.1020

주: 1) 퇴직보험·연금 및 변액보험 특별계정 수입보험료를 포함한 실적임.

2) 국내 중·소형사(15개사)는 상위 3사와 외국사를 제외한 보험회사로 정의하며 2013년 말 ING생명이 국내법인에 매각되어 2014년 1/4분기부터 국내 중·소형사에 포함됨.

3) 외국사는 지분변동을 기준으로 2015년 9월 말 알리안츠생명 등 8개사임.

4) 허핀달 지수는 각사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며, 지수가 0.18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고 판단함.

5) 2014년은 2014년 1~12월 수치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보험금 지급률 및 사업비율〉

■ 2015년 3/4분기 생명보험산업의 보험금 지급률은 전체 수입보험료 증가율이 지급보험금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3.8%p 하락한 55.3%를 나타냄.

○ 생존보험은 지급보험금 증가율이 14.7%로 수입보험료 증가율 4.3%를 크게 상회하면서 보험금 지급률은 58.0%로 전년동기대비 5.2%p 상승함.

○ 사망보험과 생사혼합보험은 전년동기대비 지급보험금은 감소하고, 수입보험료는 증가하여 보험금 지급률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4.5%p, 5.1%p 하락한 46.8%, 54.2%를 기록함.

○ 변액보험의 경우 지급보험금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보험금 지급률은 전년동기대비 9.2%p 하락한 55.9%를 나타냄.

○ 단체보험의 경우 수입보험료 증가율이 지급보험금 증가율보다 높아 보험금 지급률은 전년동기대비 18.8%p 하락한 94.7%임.

■ 수입보험료 대비 실제 지출한 사업비의 비율인 사업비율은 전년동기대비 0.3%p 하락한 14.3%로 나타났으며, 해지율은 0.4%p 하락한 6.6%를 기록함.

〈표 6〉 생명보험 보험금 지급률, 사업비율 및 해지율

(단위: %)

구분	2014					2015		
	1/4	2/4	3/4	4/4	연간	1/4	2/4	3/4
보험금 지급률 ¹⁾	60.4	58.1	59.1	49.4	56.3	61.6	59.0	55.3
개인	57.0	54.8	56.2	54.3	55.6	56.8	56.0	52.9
생존	53.1	49.5	52.8	53.3	52.2	53.7	56.5	58.0
사망	55.8	50.6	51.3	51.1	52.2	50.5	47.9	46.8
생사혼합	64.8	58.1	59.3	58.1	60.1	63.0	55.5	54.2
변액	55.5	64.4	65.1	57.0	60.5	65.1	69.5	55.9
단체	113.7	100.9	113.5	33.9	62.1	129.5	94.2	94.7
사업비율 ²⁾	14.1	15.0	14.6	12.7	14.0	14.0	13.7	14.3
해지율 ³⁾	2.6	4.9	7.0	8.9	8.9	2.4	4.6	6.6

주: 1) 보험금 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

2) 사업비율 = 실제사업비 / 수입보험료

3) 해지율 = (효력상실액 + 해지액) / (연초보유계약액 + 신계약액), 해지율은 누계치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경영수지

〈총수익·총비용〉

■ 2015년 3/4분기 생명보험산업 당기순이익의 경우 보험영업이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투자영업이익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18.2% 감소한 8,874억 원을 기록함.

○ 보험영업이익은 전 종목 수입보험료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17.2% 증가하였으나 투자영업이익은 4.2% 감소함.

○ 법인세가 소폭 감소하였으나 사망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의 영향으로 책임준비금전입액이 늘어남.

〈표 7〉 생명보험산업 총수익 및 총비용

(단위: 십억 원, %)

구분		2014					2015		
		1/4	2/4	3/4	4/4	연간 ³⁾	1/4	2/4	3/4
총수익	보험영업	19,541	19,932	19,606	20,239	79,319	20,910	20,803	20,799
	투자영업	6,120	7,059	5,410	7,172	25,761	6,974	6,766	8,496
	영업외	1,031	1,027	1,159	1,098	4,315	1,109	1,119	1,122
	소계	26,693	28,018	26,175	28,509	109,395	28,993	28,689	30,417
총비용	보험영업	15,370	14,870	14,739	15,302	60,281	15,659	15,136	15,093
	투자영업	900	1,461	191	1,645	4,197	1,253	1,246	3,496
	영업외	204	161	204	269	839	186	155	189
	소계	16,474	16,493	15,134	17,215	65,317	17,098	16,537	18,778
수지차	보험영업	4,171 (-57.8)	5,062 (13.8)	4,868 (6.7)	4,937 (29.9)	19,038 (-16.2)	5,250 (25.9)	5,667 (12.0)	5,706 (17.2)
	투자영업	5,220 (3.4)	5,598 (10.9)	5,219 (3.9)	5,527 (10.4)	21,564 (7.2)	5,721 (9.6)	5,520 (-1.4)	5,000 (-4.2)
	영업외	828	866	954	829	3,476	924	964	933
	소계	10,218	11,526	11,041	11,293	44,079	11,896	12,151	11,640
책임준비금전입		9,096	10,194	9,697	11,047	40,034	10,282	10,381	10,571
법인세		182	277	258	90	807	332	252	181
당기순이익		941 (29.7)	1,055 (24.1)	1,085 (19.8)	156 (-53.8)	3,237 (14.8)	1,281 (36.2)	1,518 (43.9)	887 (-18.2)

주: 1) 보험영업 및 투자영업 실적은 특별계정을 제외한 일반계정 실적임.

2)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며, 2014년 4/4분기는 FY2013 3/3분기와 비교함.

3) 2014는 2014년 1~12월 수치이며, 증가율은 2013년 1~12월 수치와 비교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각 월호.

〈부채 및 자본〉

■ 2015년 3/4분기 총부채는 책임준비금과 기타부채의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10.1% 증가하였으며, 총자본은 이익잉여금과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증가로 13.6% 증가함.

○ 총부채 항목 중 책임준비금과 기타부채는 각각 전년동기대비 9.5%, 35.1% 증가하였고, 총자본 항목 중 이익잉여금과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각각 11.1%, 26.0% 증가함.

- 전년동기와 비교하였을 때 시중 금리가 하락하여 이에 따른 계약자지분조정과 채권 평가이익 증가가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증가에 영향을 미침.

〈표 8〉 생명보험산업 부채 및 자본 현황¹⁾

(단위: 조 원, %)

구분		2014				2015		
		1/4	2/4	3/4	4/4	1/4	2/4	3/4
책임준비금	금액	431	441	451	462	472	483	493
	증가율	9.3	9.4	9.3	9.6	9.7	9.5	9.5
계약자지분조정	금액	7	8	8	9	11	9	9
	증가율	-25.6	4.6	6.1	29.5	51.3	18.7	18.2
기타부채	금액	13	13	14	15	18	16	19
	증가율	-11.7	-5.0	5.5	17.4	34.7	19.1	35.1
특별계정부채	금액	107	109	112	117	121	122	122
	증가율	11.0	14.3	11.3	10.3	12.5	11.6	9.0
부채총계	금액	558	571	584	603	622	630	643
	증가율	8.4	9.8	9.5	10.2	11.3	10.2	10.1
자본금	금액	10	10	10	10	10	10	10
	증가율	2.8	3.3	1.3	1.3	1.3	1.2	4.3
자본잉여금	금액	6	6	6	6	6	6	6
	증가율	1.8	1.4	1.4	2.3	2.3	1.6	3.7
이익잉여금	금액	23	24	25	25	26	27	28
	증가율	8.8	11.9	12.3	11.6	11.0	12.6	11.1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금액	14	15	17	20	24	20	21
	증가율	-28.9	12.1	18.7	48.7	77.7	28.7	26.0
자본총계	금액	51	54	56	59	64	61	64
	증가율	-6.9	8.8	10.7	17.9	25.8	13.9	13.6
부채 및 자본총계	금액	609	625	640	662	686	691	707
	증가율	6.9	9.7	9.6	10.8	12.6	10.6	10.4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며, 2014년 4/4분기는 FY2013 3/3분기와 비교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자산 운용〉

■ 2015년 3/4분기 운용자산 이익률은 4.18%로 전년동기대비 0.29%p 하락하였고, 일반계정자산이익률은 3.87%로 역시 전년동기보다 0.37%p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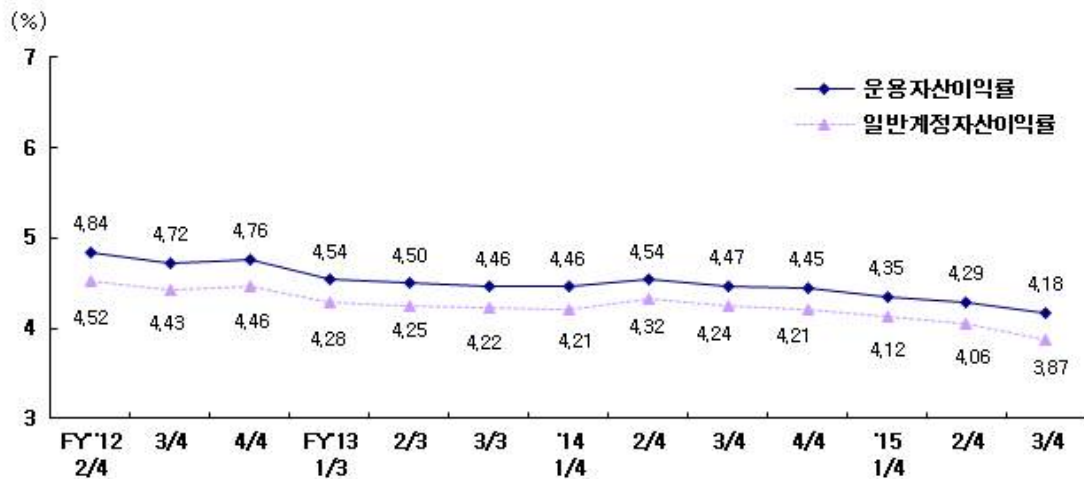
○ 운용자산 중 비중이 가장 큰 매도가능증권의 비중이 확대되었으나 이익률이 전년동기대비 0.23%p 하락한 3.94%임.

○ 2015년 3/4분기 기준금리는 1.50%로 2014년 3/4분기 기준금리 2.25%보다 0.75%p 하락한 수치임.

■ 2015년 3/4분기 일반계정 중 운용자산 비중은 유가증권 72.8%, 대출채권 17.4%, 부동산 2.6%, 현금과 예금 2.5%이며 비운용 자산 비중은 4.7%임.

○ 2014년 3/4분기와 비교해서 유가증권 비중은 1.4%p 늘어났고, 대출채권, 부동산, 현금과 예금의 비중은 각각 0.4%p, 0.2%p, 0.3%p 하락함.

〈그림 2〉 운용자산 이익률^{1),2),3)} 추이



주: 1) 운용자산 이익률 = (운용자산이익 × 2) / (기초자산 + 기말자산 - 운용자산이익) × (연기준 환산)

2) 운용자산의 투자이익률은 각 사의 업무보고서 재산이용명세서를 기준으로 하였음.

3) 분기별 누적치이며 운용자산은 일반계정자산에서 비운용자산을 제외한 것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표 9〉 생명보험산업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 억 원)

구분	2014				2015					
	3/4		4/4		1/4		2/4		3/4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일반계정자산	100.0	4.24	100.0	4.21	100.0	4.12	100.0	4.06	100.0	3.87
운용자산 계	94.8	4.47	95.0	4.45	95.0	4.35	95.2	4.29	95.3	4.18
현금과 예금	2.8	3.26	3.0	3.24	2.3	2.94	2.2	3.17	2.5	4.11
유가증권	71.4	4.18	71.7	4.15	72.6	4.15	72.9	4.06	72.8	3.89
○ 당기손익인식증권 ³⁾	2.9	3.43	3.1	2.95	3.1	4.15	3.1	3.15	2.8	1.82
- 주식	0.1	5.82	0.1	-1.07	0.1	24.56	0.1	17.1	0.1	4.52
- 채권 등	0.8	4.61	0.8	4.34	0.7	6.63	0.7	5.01	0.7	1.36
- 수익증권	2.0	2.82	2.2	2.58	2.3	2.50	2.4	2.01	2.0	1.87
○ 매도가능증권	49.3	4.17	52.5	4.04	52.0	4.16	51.1	4.09	51.2	3.94
- 주식	3.8	4.89	3.9	3.44	4.0	5.04	3.7	3.14	3.2	2.54
- 채권 등	42.2	4.05	45.2	4.06	44.4	4.06	43.6	4.06	44.5	3.98
- 수익증권	3.2	4.90	3.4	4.63	3.5	4.42	3.8	5.45	3.5	4.85
○ 만기보유증권	17.6	4.47	14.5	4.84	15.9	4.27	17.1	4.28	17.3	4.29
- 채권 등	17.6	4.47	14.5	4.84	15.9	4.27	17.1	4.28	17.3	4.29
- 수익증권	0.0	0.00	0.0	0.00	0.0	0.00	0.0	0.0	0.0	0.00
○ 관계·종속기업 투자주식	1.7	2.43	1.7	2.65	1.6	2.83	1.6	2.60	1.5	2.22
대출채권	17.8	5.94	17.7	5.94	17.5	5.55	17.4	5.56	17.4	5.50
부동산	2.8	3.56	2.7	4.15	2.6	3.36	2.6	3.35	2.6	3.43
비운용자산	5.2	0.43	5.0	0.05	5.0	-0.22	4.8	-0.44	4.7	-2.09
총자산	100.0	4.00	100.0	3.81	100.0	4.93	100.0	4.31	100.0	3.61
일반계정	82.7	4.24	83.1	4.21	82.5	4.12	82.5	4.06	82.9	3.87
특별계정	17.3	2.87	16.9	1.84	17.5	8.83	17.5	5.52	17.1	2.33
총자산 규모	6,403,859		6,620,752		6,856,606		6,910,114		7,070,753	

주: 1) 이익률은 누계실적임.

2) 자산구성비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3) FY2011 1/4분기 이후 단기매매증권에서 당기손익인식증권으로 계정 명칭이 변경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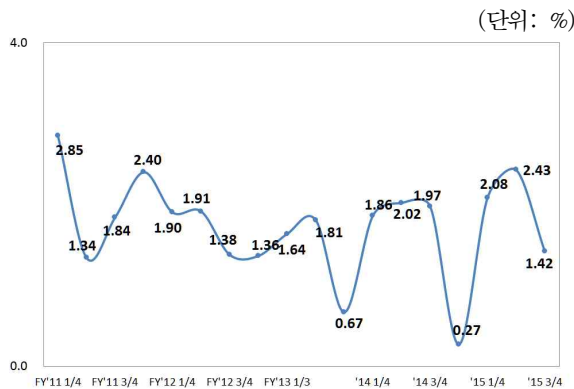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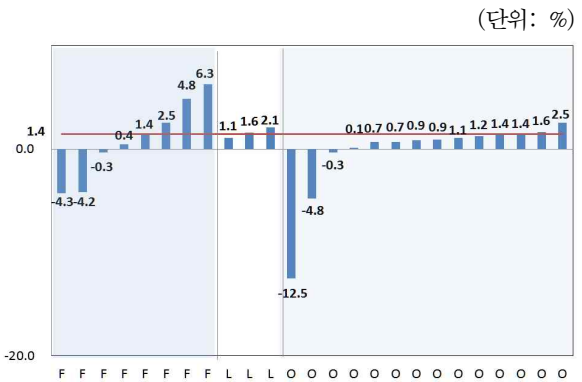
〈자본이익률¹⁾〉

■ 2015년 3/4분기 생명보험산업²⁾ 자본이익률은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면서 2014년 3/4분기 대비 0.55%p 하락한 1.42%를 기록함.

○ 생명보험산업 총자본(자본총계)은 전년동기대비 13.6% 증가하였으나 당기순이익이 전년동기대비 18.2% 감소하여 자본이익률이 하락함.

○ 3개의 외국사, 3개의 중·소형사가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음(-)의 자본이익률을 나타냄.

〈그림 3〉 생명보험산업 자본이익률

〈그림 4〉 회사별 자본이익률^{1),2)}

주: 1) F, L, O는 각각 외국사, 대형사, 중·소형사를 의미함.

2) 회사별 자본이익률 분포에서 표시된 실선은 생명보험 산업수준의 자본이익률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2015년 4/4분기 자본이익률은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 모두 전년동기대비 하락함.

○ 대형사 자본이익률은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며 전년동기에 비하여 0.37%p 하락한 1.38%를 나타냄.

○ 중·소형사의 경우 3개의 회사가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고, 전반적으로 전년동기대비 당기순이익이 감소하여 자본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81%p 하락한 1.24%를 기록함.

○ 외국사의 경우도 당기순이익이 감소하여 자본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1.29%p 하락한 2.01%임.

1) 보험회사 경영성과지표 중 하나인 자본이익률은 기중자본대비 당기순이익(R_t / E_t^o)을 의미하며, 분석대상은 FY2012 1/4분기 농협생명보험, FY2013 3/3분기 교보라이프플래닛이 포함되어 25개 생명보험회사임.

2) 2015년 회계연도부터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 방카사로 분류되었던 회사 분류를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로 분류하여 산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과거 통계치도 동일하게 수정함.

〈표 10〉 생명보험산업 자본이익률 추이¹⁾

(단위: %)

구분	2014					2015		
	1/4	2/4	3/4	4/4	연간	1/4	2/4	3/4
대형사	2.08	2.08	1.75	0.27	5.93	2.10	2.17	1.38
중·소형사	1.01	1.35	2.05	0.33	4.66	1.70	2.18	1.24
외국사	1.47	2.82	3.30	-0.32	6.32	2.15	4.02	2.01
전체	1.86	2.02	1.97	0.27	5.92	2.08	2.43	1.42

주: 1) 자본이익률 = 당기순이익 / 기중자본, 기중자본 = (전회계연도 말 자본 + 당기 말 자본) / 2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다. 판매채널

〈모집형태별 초회보험료〉

■ 2015년 3/4분기 모집형태별 초회보험료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임직원과 대리점 채널이 하락하고, 나머지 판매채널은 소폭 상승함.

○ 2015년 3/4분기 임직원과 대리점 채널의 판매비중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1.7%p, 0.5%p 하락하여 11.7%, 6.9%를 나타냄.

○ 설계사와 방카슈랑스의 판매비중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1.3%p, 0.8%p 상승한 22.2%, 58.8%를 기록함.

〈표 11〉 생명보험 모집형태별 비중(초회보험료 기준)

(단위: %, 억 원)

구분	2014					2015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임직원	15.5	17.0	13.4	50.8	28.2	14.8	10.6	11.7
설계사	18.0	16.8	20.9	12.7	16.4	20.1	20.2	22.2
대리점	5.7	6.0	7.4	4.5	5.7	6.4	6.5	6.9
중개사	0.0	0.0	0.1	0.0	0.0	0.1	0.0	0.1
방카슈랑스	60.5	60.0	58.0	31.8	49.6	58.3	62.2	58.8
기타	0.3	0.1	0.2	0.2	0.2	0.3	0.5	0.4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9,751	42,865	35,463	66,558	184,637	44,865	38,191	37,910

주: 1) 합계의 하단 수치는 전체 초회보험료 규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모집조직〉

■ 2015년 3/4분기 생명보험산업 모집조직의 경우 전분기대비 임직원, 설계사, 대리점 수 모두 감소함.

- 임직원 수는 2만 7,532명으로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임.
- 설계사의 경우 교차설계사는 증가하고 전속설계사가 크게 감소하면서 전체설계사 수는 전분기대비 354명 감소한 12만 9,442명으로 나타남.
- 대리점 수는 법인대리점과 개인대리점이 모두 감소하며 전분기대비 107개 감소한 6,159개임.

〈표 12〉 생명보험 모집조직 규모

(단위: 명, 개)

구분	2014				2015		
	1/4	2/4	3/4	4/4	1/4	2/4	3/4
임직원	30,453	28,532	27,288	28,111	27,521	27,538	27,532
설계사	139,161	136,028	132,900	130,366	129,335	129,796	129,442
- 전속	131,899	128,866	125,309	122,965	120,949	120,933	120,203
- 교차	7,262	7,162	7,591	7,401	8,386	8,863	9,239
대리점	7,062	7,187	7,113	6,867	6,399	6,266	6,159
- 개인	3,820	3,876	3,768	3,616	3,171	3,081	3,036
- 법인	3,242	3,311	3,345	3,251	3,228	3,185	3,096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3. 손해보험

가. 원수보험료 및 총자산

〈손해보험 개요〉

■ 2015년 3/4분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장기저축성보험과 개인연금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과 퇴직연금이 고성장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전년동기대비 5.5% 증가한 18조 8,851억 원을 기록함(〈표-13〉 참조).

-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저축성보험 감소세 지속으로 4.8% 증가에 그친 11조 6,554억 원을 나타냄.
- 연금부문 원수보험료의 경우 8.6% 증가한 1조 5,633억 원을 나타냈는데, 개인연금 원수보험료는 감소세를 지속하고 퇴직연금은 크게 증가함.
-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요율 인상³⁾과 고가차량 비중 확대⁴⁾ 등으로 9.0% 증가한 3조 7,355억 원을 기록함.
-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특종보험 성장 둔화와 화재보험과 해상보험 감소세로 전년동기대비 1.0% 증가에 그친 1조 9,309억 원을 기록함.

■ 2015년 3/4분기 말 손해보험 총자산은 일반계정과 특별계정 자산이 모두 늘어나 전체적으로 전분기대비 3.5% 증가한 219조 7,073억 원을 나타냄(〈표-13〉 참조).

- 일반계정 자산은 매도가능 금융자산과 대여금 및 수취채권⁵⁾이 증가하여 전분기대비 3.5% 늘어났으며, 특별계정 자산은 전분기대비 2.8% 증가함.

3) 자동차보험 경영 악화 해소를 위해 2014년 4월 이후 영업용·업무용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됨.

4) 고가차량 비중 = (승용일반형 외산 소계 + 국산 3,000CC 이상 승용차 합계) / 승용차 합계; 고가차량 비중은 2014년 1월 8.4%에서 2015년 10월 10.4%까지 확대됨.

5) 매도가능 금융자산과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전분기대비 각각 3.2%, 4.0% 증가함.

〈표 13〉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및 총자산¹⁾

(단위: 억 원, %)

구분	2014					2015		
	1/4	2/4	3/4	4/4	연간 ⁴⁾	1/4	2/4	3/4
원수보험료	183,082 (8.0)	180,217 (3.8)	179,023 (4.6)	223,433 (15.9)	765,754 (8.3)	193,204 (5.5)	192,156 (6.6)	188,851 (5.5)
장기손보	110,858 (7.5)	109,526 (6.1)	111,241 (4.9)	112,412 (5.9)	444,037 (6.1)	116,499 (5.1)	115,648 (5.6)	116,554 (4.8)
연금부문 ²⁾	19,558 (29.5)	16,153 (-4.3)	14,395 (9.9)	54,703 (65.7)	104,809 (34.2)	20,336 (4.0)	17,855 (10.5)	15,633 (8.6)
자동차	32,377 (3.2)	33,665 (4.1)	34,259 (6.4)	35,183 (6.9)	135,484 (5.2)	35,298 (9.0)	37,269 (10.7)	37,355 (9.0)
일반손해	20,289 (1.5)	20,873 (-1.2)	19,128 (-3.5)	21,135 (1.9)	81,424 (-0.3)	21,071 (3.9)	21,401 (2.5)	19,309 (1.0)
총자산 ³⁾	1,769,152 (3.7)	1,851,278 (4.6)	1,913,805 (3.5)	2,003,076 (4.7)	2,003,076 (17.4)	2,078,896 (3.8)	2,122,961 (2.1)	2,197,073 (3.5)
일반계정	1,693,441 (3.3)	1,774,604 (4.8)	1,836,897 (3.4)	1,911,093 (4.0)	1,912,632 (16.6)	1,962,263 (2.7)	2,006,453 (2.3)	2,077,286 (3.5)
특별계정	75,711 (14.7)	76,674 (1.3)	76,908 (0.3)	91,983 (19.6)	91,983 (39.4)	116,632 (26.9)	116,508 (-0.1)	119,787 (2.8)

주: 1) () 안의 경우 총자산은 전분기대비,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고, 반올림에 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연금부문은 개인연금, 퇴직보험, 퇴직연금 실적을 포함함.

3) 총자산 및 증가율은 IFRS의 변경된 계정을 기준으로 계산한 실적임.

4) 2014는 2014년 1~12월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3년 1~12월 수치와 비교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종목별 원수보험료 현황〉

1) 장기손해보험

■ 2015년 3/4분기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장기저축성보험 감소에도 불구하고 장기상해보험과 장기질병보험이 늘어나 전년동기대비 4.8% 증가한 11조 6,554억 원을 기록함.

- 장기저축성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1.8% 감소하였는데, 신규판매 부진으로 6분기 연속된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함.
- 장기상해보험과 장기질병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5년 3/4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11.5%, 16.5% 증가함.

■ 2015년 3/4분기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의 경우 장기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 감소세가 계속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11.7% 줄어든 5,249억 원을 기록함.

- 장기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6.6% 감소함.
- 장기질병보험 초회보험료는 예정이율 인하와 자기부담금 상향 조정⁶⁾ 이전에 실손의료보험 상품에 가입하고자 하는 수요가 확대되어 12.5% 증가함.

〈표 14〉 장기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¹⁾

(단위: 억 원, %)

구분			2014					2015		
			1/4	2/4	3/4	4/4	연간 ²⁾	1/4	2/4	3/4
원수 보험료	상해	보험료	28,306	29,114	29,999	30,946	118,365	31,889	32,644	33,435
		증가율	9.8	9.9	11.4	12.1	10.8	12.7	12.1	11.5
	운전자	보험료	6,386	6,438	6,624	6,787	26,235	6,919	7,020	7,141
		증가율	4.2	4.6	6.3	7.6	5.7	8.3	9.0	7.8
	재물	보험료	9,258	9,344	9,380	9,494	37,476	9,692	9,929	10,025
		증가율	-0.1	-1.1	-0.4	1.8	0.0	4.7	6.3	6.9
	질병	보험료	22,382	23,243	24,181	25,062	94,868	26,055	27,174	28,177
		증가율	21.2	19.9	18.1	17.0	18.9	16.4	16.9	16.5
	저축성	보험료	32,267	28,991	28,642	27,718	117,617	29,513	26,345	25,259
		증가율	3.3	-1.2	-6.6	-5.3	-2.4	-8.5	-9.1	-11.8
	통합형	보험료	12,216	12,358	12,378	12,370	49,321	12,410	12,512	12,484
		증가율	0.5	0.2	0.9	1.2	0.7	1.6	1.2	0.9
	자산 연계형	보험료	42	39	37	35	154	22	24	32
		증가율	-42.5	-30.4	-26.5	-20.8	-31.6	-47.8	-37.5	-14.6
	소계	보험료	110,858	109,526	111,241	112,412	444,037	116,499	115,648	116,554
		증가율	7.5	6.1	4.9	5.9	6.1	5.1	5.6	4.8

6) 2015년 9월부터 비급여 의료비의 자기부담금이 기존 10%에서 20%로 상향 조정됨.

〈표 14〉의 계속

구분			2014					2015		
			1/4	2/4	3/4	4/4	연간 ²⁾	1/4	2/4	3/4
초회 보험료	상해	보험료	600	628	638	724	2,589	683	548	635
		증가율	-34.2	40.6	32.4	26.1	7.3	13.9	-12.7	-0.6
	운전자	보험료	115	121	188	155	579	134	136	164
		증가율	10.1	4.4	36.0	24.6	19.9	16.6	13.1	-12.9
	재물	보험료	225	256	254	273	1,008	318	307	268
		증가율	-13.0	-27.5	1.4	17.6	-7.9	41.1	20.3	5.5
	질병	보험료	620	523	557	617	2,318	607	587	627
		증가율	-4.6	9.2	-5.1	5.6	0.7	-2.1	12.1	12.5
	저축성	보험료	5,946	4,311	4,251	3,870	18,379	4,883	3,474	3,544
		증가율	8.9	10.0	5.4	27.5	11.7	-17.9	-19.4	-16.6
	통합형	보험료	86	57	59	74	275	30	17	12
		증가율	-62.6	-15.1	-22.1	-2.4	-38.5	-65.3	-69.7	-79.0
	자산 연계형	보험료	0	0	0	0	0	0	0	0
		증가율	-	-	-	-	-	-	-	-
	소계	보험료	7,592	5,895	5,948	5,713	25,148	6,654	5,070	5,249
		증가율	-0.3	9.6	6.8	23.5	8.4	-12.4	-14.0	-11.7
계속 보험료	상해	보험료	27,707	28,486	29,360	30,223	115,776	31,206	32,096	32,801
		증가율	11.4	9.3	11.0	11.8	10.9	12.6	12.7	11.7
	운전자	보험료	6,271	6,317	6,436	6,632	25,656	6,784	6,883	6,977
		증가율	4.1	4.6	5.6	7.3	5.4	8.2	9.0	8.4
	재물	보험료	9,033	9,088	9,126	9,221	36,468	9,374	9,622	9,758
		증가율	0.3	-0.1	-0.4	1.4	0.3	3.8	5.9	6.9
	질병	보험료	21,762	22,720	23,624	24,445	92,550	25,448	26,587	27,550
		증가율	22.1	20.1	18.7	17.3	19.5	16.9	17.0	16.6
	저축성	보험료	26,321	24,679	24,391	23,847	99,238	24,630	22,872	21,716
		증가율	2.1	-3.0	-8.5	-9.1	-4.7	-6.4	-7.3	-11.0
	통합형	보험료	12,130	12,302	12,319	12,296	49,047	12,380	12,495	12,472
		증가율	1.8	0.3	1.1	1.3	1.1	2.1	1.6	1.2
	자산 연계형	보험료	42	39	37	35	154	22	24	32
		증가율	-42.5	-30.4	-26.6	-20.8	-31.6	-47.8	-37.5	-14.6
	소계	보험료	103,266	103,631	105,293	106,699	418,889	109,845	110,579	111,305
		증가율	8.1	5.9	4.8	5.1	5.9	6.4	6.7	5.7

주: 1)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분기) 증가율임.

2) 2014는 2014년 1~12월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3년 1~12월 수치와 비교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15년 3/4분기 장기손해보험 누적 해지율의 경우 전체적으로 전년동기대비 0.1%p 상승한 8.2%를 기록함.

- 장기상해보험 해지율은 효력상실액 및 해지액 증가율이 보유계약액 증가율보다 더 크게 나타나⁷⁾ 0.2%p 상승한 8.7%를 나타냄.
- 장기저축성보험 해지율은 효력상실액이 감소한 데다 보유계약액은 증가⁸⁾하여 0.8%p 하락한 6.9%를 시현함.

〈표 15〉 장기손해보험 해지율^{1),2)}

(단위: %)

구분	2014				2015		
	1/4	2/4	3/4	4/4	1/4	2/4	3/4
상해	3.3	6.0	8.5	10.5	3.3	6.2	8.7
운전자	3.2	5.9	8.1	9.6	3.1	5.7	8.0
재물	4.1	7.4	10.3	12.6	3.9	7.3	10.3
질병	2.6	4.9	6.9	8.1	2.5	4.8	6.8
저축성	3.0	5.3	7.7	9.6	2.6	4.9	6.9
통합형	2.4	4.5	6.5	8.0	2.0	3.9	5.7
계	3.1	5.7	8.1	9.9	3.0	5.8	8.2

주: 1) 해지율 = (효력상실액 + 해지액) / 보유계약액 (= 연초보유계약액 + 신계약액)

2) 기간별 수치는 누계치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 연금부문(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 2015년 3/4분기 연금부문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8.6% 증가한 1조 5,633억 원을 기록하였는데, 개인연금 원수보험료는 감소한 반면 퇴직연금 원수보험료는 증가함.

- 개인연금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2.0% 줄어든 9,994억 원을 시현함.
- 퇴직연금 원수보험료는 IRP 추가 납입을 통해 세액공제 혜택⁹⁾을 받고자 하는 수요가 확대¹⁰⁾되어 34.4% 증가한 5,639억 원을 기록함.

7) 효력상실액 및 해지액은 전년동기대비 27.7% 증가하였으며, 보유계약액은 25.6% 증가함.

8) 효력상실액은 전년동기대비 22.6% 감소하였으며, 보유계약액은 4.7% 증가함.

9) 2014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2015년 1월 1일 이후 퇴직연금 납입분에 대한 별도의 세액공제가 가능해짐.

10) 금감원 보도자료(2015. 6. 25), “퇴직연금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개선대책”을 참조함.

〈표 16〉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원수보험료 ^{1),2)}

(단위: 억 원, %)

구분		2014					2015		
		1/4	2/4	3/4	4/4	연간 ³⁾	1/4	2/4	3/4
개인 연금	보험료	10,349	10,247	10,200	10,295	41,090	10,066	10,015	9,994
	증가율	-2.6	-3.5	-3.5	-3.2	-3.2	-2.7	-2.3	-2.0
	구성비	52.9	63.4	70.9	18.8	39.2	49.5	56.1	63.9
퇴직 연금	보험료	9,209	5,905	4,195	44,408	63,718	10,270	7,840	5,639
	증가율	106.1	-5.5	66.0	98.5	78.9	11.5	32.8	34.4
	구성비	47.1	36.6	29.1	81.2	60.8	50.5	43.9	36.1
합계	보험료	19,558	16,153	14,395	54,703	104,809	20,336	17,855	15,633
	증가율	29.5	-4.3	9.9	65.7	34.2	4.0	10.5	8.6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분기) 증가율임.

2) 구성비는 연금부문 합계 중 차지하는 비중임.

3) 2014는 2014년 1~12월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3년 1~12월 수치와 비교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3) 자동차보험

■ 2015년 3/4분기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요율 인상과 고가차량 비중 확대 등으로 전년 동기대비 9.0% 증가한 3조 7,355억 원을 기록함.

○ 대인배상 I 원수보험료의 경우 온라인 자동차보험 비중 확대¹¹⁾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요율 하향 조정으로 7.9% 감소한 7,269억 원을 나타냄.

○ 종합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영업용·업무용 자동차보험 요율 인상분 반영¹²⁾과 수입차와 국산 중·대형차량 비중 증가에 따른 대물·자차담보 가입금액 증가세 확대¹³⁾로 14.2% 늘어난 2조 8,131억 원을 나타냄.

11) 자동차보험 온라인채널 비중은 개인용(플러스 개인용) 보종 대인 1 기준 평균유효대수 대상으로 2014년 말 42.3%를 나타냄.

12) 2014년 4월 이후 영업용·업무용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되었으며, 2015년 갱신 시기가 도래한 가입자에게 인상된 보험료가 적용됨.

13) 가입금액 2~5억 원 구간 비중이 2010년 12.1%에서 2014년 48.9%로 증가함(자료: 보험개발원).

〈표 17〉 자동차보험 담보별 원수보험료¹⁾

(단위: 억 원, %)

구분		2014					2015		
		1/4	2/4	3/4	4/4	연간 ⁴⁾	1/4	2/4	3/4
대인 I		7,606 (-2.1)	7,849 (-1.8)	7,896 (0.6)	7,798 (-1.5)	31,149 (-1.2)	7,495 (-1.5)	7,503 (-4.4)	7,269 (-7.9)
종합 보험	대인 II	3,270 (2.2)	3,366 (2.1)	3,431 (4.9)	3,614 (6.5)	13,681 (4.0)	3,630 (11.0)	3,998 (18.8)	4,125 (20.2)
	대물	11,011 (6.5)	11,583 (6.0)	11,869 (8.3)	12,414 (9.4)	46,877 (7.6)	12,314 (11.8)	13,012 (12.3)	13,217 (11.4)
	자차	7,505 (2.7)	7,630 (6.8)	7,749 (8.1)	7,973 (10.6)	30,857 (7.0)	8,479 (13.0)	9,062 (18.8)	9,072 (17.1)
	자손	1,220 (8.9)	1,275 (9.3)	1,345 (12.9)	1,407 (10.2)	5,248 (10.3)	1,383 (13.4)	1,446 (13.4)	1,464 (8.8)
	무보험	220 (-3.3)	225 (-2.7)	233 (0.0)	235 (1.3)	912 (-1.2)	231 (5.3)	250 (11.3)	253 (8.5)
	소계	23,225 (4.7)	24,079 (5.8)	24,627 (7.9)	25,644 (9.3)	97,575 (6.9)	26,037 (12.1)	27,768 (15.3)	28,131 (14.2)
외화표시		20 (-17.2)	29 (-14.8)	23 (-0.6)	42 (23.7)	114 (-1.2)	33 (61.1)	36 (25.4)	28 (22.1)
이륜자동차 ²⁾		167 (9.8)	257 (3.1)	240 (12.8)	189 (9.2)	853 (8.3)	190 (13.6)	304 (18.3)	294 (22.7)
기타 ³⁾		1,358 (9.4)	1,452 (11.4)	1,473 (14.7)	1,511 (14.3)	5,794 (12.5)	1,543 (13.6)	1,658 (14.2)	1,633 (10.8)
합계		32,377 (3.2)	33,665 (4.1)	34,259 (6.4)	35,183 (6.9)	135,484 (5.2)	35,298 (9.0)	37,269 (10.7)	37,355 (9.0)

주: 1) () 안은 전년동기대비(분기) 증가율임.

2) 이륜자동차는 대인배상 I 과 종합보험을 합산한 수치임.

3) 기타는 취급업자종합보험, 운전면허교습생보험 및 농기계보험 등의 실적임.

4) 2014는 2014년 1~12월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3년 1~12월 수치와 비교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15년 3/4분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전년동기에 비해 1.6%p 하락한 87.7%를 나타냄.

○ 대인배상 I 손해율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¹⁴⁾의 영향과 온라인 자동차보험 판매 비중 확대 등으로 인한 경과보험료 감소세로 5.7%p 상승한 74.3%를 기록함.

○ 종합보험 손해율은 고가차량 비중 확대와 자동차보험 요율 인상 등으로 경과보험료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4.7%p 하락한 91.7%를 나타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함.

- 특히, 대물담보 손해율은 고가차량 비중 확대 등으로 경과보험료가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감에 따라 1.4%p 하락한 90.9%를 나타냄.

14) 대인 I 에서 지급하는 상해 항목인 척추 염좌가 8등급(최대 보상금 240만 원)에서 12등급(최대 보상금 80만 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대인 I 발생손해액은 감소하고 대인 II 발생손해액은 증가함(「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2014년 2월 7일 시행).

〈표 18〉 자동차보험 담보별 손해율¹⁾

(단위: %)

구분		2014					2015		
		1/4	2/4	3/4	4/4	연간 ⁴⁾	1/4	2/4	3/4
대인 I		69.8	65.5	68.6	77.3	70.3	65.9	69.5	74.3
종합 보험	대인 II	113.6	135.8	137.4	146.6	133.7	144.2	135.3	142.9
	대물	85.2	87.8	92.3	97.3	90.8	86.4	88.4	90.9
	자차	86.5	80.7	89.1	92.2	87.2	82.3	77.8	76.0
	자손	77.5	64.2	69.5	78.7	72.5	72.5	62.0	59.8
	무보험	115.7	91.5	77.8	69.0	88.4	104.1	94.1	71.1
	소계	89.6	91.3	96.4	101.5	94.8	92.7	90.4	91.7
외화표시		77.9	83.3	72.3	70.5	76.0	74.8	66.2	74.4
이륜자동차 ²⁾		79.4	104.3	107.8	111.1	101.0	91.7	108.4	113.8
기타 ³⁾		72.8	70.3	80.3	90.6	78.8	72.1	66.2	74.8
합계		84.0	84.4	89.3	95.5	88.5	85.6	84.9	87.7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 기간에 대한 손해율이며, 손해율은 경과손해율(발생손해액/경과보험료)임.

2) 이륜자동차는 대인배상 I 과 종합보험을 합산한 수치임.

3) 기타는 취급업자종합보험, 운전면허교습생보험 및 농기계보험 등의 실적임.

4) 2014년 12월 말 누적수치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4) 일반손해보험

■ 2015년 3/4분기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특종보험 성장 둔화와 화재보험과 해상보험 감소세로 전체적으로 전년동기대비 1.0% 증가에 그친 1조 9,309억 원을 기록함.

○ 화재보험 원수보험료는 2.8% 줄어든 683억 원을 나타냄.

○ 해상보험 원수보험료는 적하보험과 선박보험이 각각 11.2%, 3.6% 감소¹⁵⁾하면서 전체적으로 1.0% 줄어든 1,820억 원을 기록함.

○ 보증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건설투자 확대¹⁶⁾ 등의 영향으로 2.8% 증가한 3,713억 원을 나타냄.

15)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를 참조함.

16) 건설투자(전년동기대비): 2015년 1/4분기 0.6% → 2015년 2/4분기 1.6% → 2015년 3/4분기 5.7%

○ 특종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상해보험과 책임보험이 증가하였으나 종합보험이 큰 폭의 감소세를 보여 전년동기와 동일한 1조 1,536억 원을 기록함.

- 상해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메르스 여파가 줄어들어 단체상해보험과 여행자보험이 증가하였으나 일반상해보험이 감소하여 2.2% 증가하는 데 그침.

- 책임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일반배상책임보험과 전문직업인책임보험이 호조세를 보여 18.4% 증가함.

- 종합보험 원수보험료는 가계성 보험과 기업성 보험이 각각 24.2%, 16.4% 줄어들어 전체적으로 16.7% 감소함.

〈표 19〉 일반손해보험¹⁾ 종목별 원수보험료²⁾

(단위: 억 원, %)

구분		2014					2015		
		1/4	2/4	3/4	4/4	연간 ³⁾	1/4	2/4	3/4
화재	보험료	759	739	703	905	3,106	728	736	683
	증가율	-6.1	-2.1	-4.3	-1.9	-3.6	-4.0	-0.4	-2.8
	구성비	3.7	3.5	3.7	4.3	3.8	3.5	3.4	3.5
해상	보험료	1,747	1,927	1,839	1,830	7,343	1,880	1,837	1,820
	증가율	17.0	-9.2	-18.5	11.7	-2.2	7.6	-4.7	-1.0
	구성비	8.6	9.2	9.6	8.7	9.0	8.9	8.6	9.4
보증	보험료	3,842	3,651	3,611	4,048	15,152	3,898	4,054	3,713
	증가율	-4.3	-3.9	4.3	1.8	-0.6	1.5	11.0	2.8
	구성비	18.9	17.5	18.9	19.2	18.6	18.5	18.9	19.2
특종	보험료	12,566	13,099	11,533	12,793	49,991	13,347	13,651	11,536
	증가율	2.6	0.3	-1.2	2.9	1.2	6.2	4.2	0.0
	구성비	61.9	62.8	60.3	60.5	61.4	63.3	63.8	59.7
해외 원보험	보험료	1,376	1,455	1,442	1,559	5,832	1,217	1,122	1,557
	증가율	-3.0	4.7	-14.6	-11.5	-6.8	-11.5	-22.9	8.0
	구성비	6.8	7.0	7.5	7.4	7.2	5.8	5.2	8.1
합계	보험료	20,289	20,873	19,128	21,135	81,424	21,071	21,401	19,309
	증가율	1.5	-1.2	-3.5	1.9	-0.3	3.9	2.5	1.0

주: 1) 부수사업 원수보험료는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은 권원보험 원수보험료를 포함함.

2)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분기) 증가율임.

3) 2014는 2014년 1~12월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3년 1~12월 수치와 비교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종목별 원수보험료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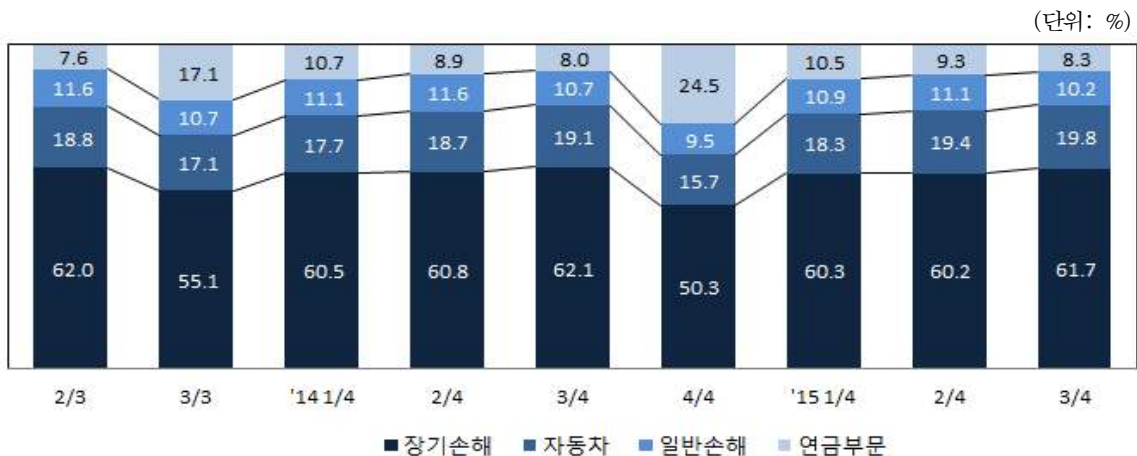
■ 2015년 3/4분기 자동차보험과 연금부문 원수보험료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증가하였으나 장기손해보험과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비중은 감소함.

○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비중은 영업용·업무용자동차 보험료 인상분 반영에 힘입은 원수보험료 증가세로 전년동기대비 0.7%p 확대된 19.8%를 기록함.

○ 연금부문 원수보험료 비중은 퇴직연금 원수보험료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0.3%p 확대된 8.3%를 나타냄.

○ 장기손해보험과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비중은 장기저축성보험과 특종보험 실적 부진으로 각각 0.4%p, 0.5%p 감소한 61.7%, 10.2%를 기록함.

〈그림 5〉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구성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 2015년 3/4분기 대부분 그룹의 시장점유율이 전년동기와 비교하여 큰 변화가 없었으며, 허핀달 지수는 전년동기대비 0.001 감소한 0.1425를 나타냄.

○ 상위 4사¹⁷⁾ 시장점유율은 전년동기대비 0.1%p 확대된 69.5%를 기록하였고, 외국사 시장점유율은 0.1%p 축소된 2.2%를 나타냄.

17) 원수보험료 기준 상위 4개 손해보험회사를 의미함.

- 국내 중·소형사와 전업사 시장점유율은 전년동기와 동일한 26.3%, 2.0%를 각각 기록함.
- 다만, 온라인사 점유율은 현대해상과 현대하이카 합병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0.6%p 줄어든 1.6%를 나타냄.

〈표 20〉 손해보험산업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¹⁾

(단위: %)

구분	2014					2015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상위 4사 ²⁾	67.4	69.4	69.4	71.2	69.4	67.7	68.7	69.5
국내 중·소형사 ²⁾	28.4	26.4	26.3	25.2	26.5	28.2	26.9	26.3
전업사 ³⁾	2.1	2.0	2.0	1.8	2.0	2.0	2.1	2.0
외국사 ³⁾	2.1	2.2	2.3	1.8	2.1	2.1	2.3	2.2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온라인사 ⁴⁾	2.1	2.1	2.2	1.8	2.0	2.3	2.3	1.6
허핀달 지수 ⁵⁾	0.1386	0.1424	0.1435	0.1541	0.1446	0.1378	0.1387	0.1425

주: 1) 원수보험료 기준 시장점유율을 의미하며,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 I, II를 모두 포함함.

2) 상위 4사는 원수보험료 기준 상위 4개 회사, 국내 중·소형사는 국내 온라인사를 포함한 8개 회사를 의미함.

3) 전업사는 보증사와 국내 및 외국계 재보사를 포함하며, 외국사는 외국계 온라인사를 포함함.

4) 온라인사는 주로 자동차보험에 주력하는 더케이손보,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 AXA손보 실적을 따로 구분하여 파악한 것임.

5) 허핀달 지수는 각 사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며, 지수가 0.18 이상이면 시장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고 판단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손해율과 합산비율〉

■ 2015년 3/4분기 전체 손해보험 손해율은 장기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전년동기보다 낮아짐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0.2%p 하락한 83.7%를 기록함.

- 장기손해보험 손해율은 발생손해액 증가율이 경과보험료 증가율을 하회함에 따라 1.1% 하락한 84.1%를 나타냄.

-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경과보험료가 크게 증가하면서 1.6%p 하락한 87.7%를 기록하였으나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임.

〈표 21〉 손해보험 손해율 및 합산비율¹⁾

(단위: %)

구분		2014					2015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손 해 율	장기손해보험 ²⁾	85.1	84.4	85.2	86.1	85.2	86.0	84.5	84.1
	자동차보험	84.0	84.4	89.3	95.5	88.5	85.6	84.8	87.7
	화재보험	73.2	50.2	53.4	45.4	55.4	66.6	43.5	57.7
	해상보험	89.5	18.5	44.3	85.4	59.8	55.1	70.1	94.3
	보증보험	72.5	7.4	70.8	41.6	47.9	81.5	50.3	54.3
	특종보험	69.2	71.0	67.7	66.5	68.5	65.1	67.1	70.3
	해외원보험	64.6	89.4	98.1	124.7	94.8	84.2	135.0	235.2
	해외수재보험	72.9	45.1	67.1	83.2	66.3	50.2	61.7	76.1
	전체	83.3	80.6	83.9	85.6	83.4	83.6	82.3	83.7
사업비율		19.1	18.7	18.8	19.4	19.0	19.6	18.9	19.1
합산비율		102.3	99.3	102.7	105.1	102.4	103.2	101.1	102.8

주: 1) 손해율, 사업비율 그리고 합산비율은 개인연금,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을 제외한 분기 수치이며 반올림에 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손해율 = 발생손해액 / 경과보험료, 사업비율 = 순사업비 / 보유보험료, 합산비율 = 손해율 + 사업비율

2) 장기손해보험 손해율은 위험손해율 개념이 아닌 적립보험료 및 각종 환급금을 고려한 재무손해율임.

3) 재보험회사의 발생손해액 환급을 일부 제외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15년 3/4분기 전체 손해보험 사업비율은 장기손해보험과 일반손해보험 사업비율 상승으로 전년동기대비 0.3%p 상승한 19.1%를 나타냄.

○ 장기손해보험 사업비율은 0.2%p 상승한 18.3%를 기록한 반면, 자동차보험 사업비율은 0.6%p 하락한 18.9%를 시현함.

○ 일반손해보험 사업비율의 경우 실적부진의 영향으로 2.5%p 상승한 24.5%를 기록함.

■ 2015년 3/4분기 합산비율은 사업비율 상승으로 전년동기대비 0.1%p 악화된 102.8%를 기록함.

나. 경영수지

〈총수익 · 총비용〉

■ 2015년 3/4분기 전체 손해보험산업 당기순이익(A)은 전년동기대비 4.7% 증가한 6,147억 원 흑자를 기록함.

〈표 22〉 손해보험산업 총수익 및 총비용¹⁾

(단위: 십억 원, %)

구분		2014					2015		
		1/4	2/4	3/4	4/4	연간 ⁴⁾	1/4	2/4	3/4
총수익	보험영업	16,835	16,921	17,150	17,489	68,397	17,579	17,740	17,941
	투자영업	1,780	1,979	1,523	2,251	7,532	2,174	2,213	3,013
	기타	245	361	161	1,247	2,015	516	419	382
	소계	18,860	19,261	18,835	20,988	77,944	20,270	20,372	21,336
총비용	보험영업	17,415	17,060	17,831	18,602	70,908	18,359	18,201	18,642
	투자영업	394	634	39	724	1,790	449	610	1,485
	기타	286	422	202	1,270	2,180	395	441	406
	소계	18,095	18,117	18,071	20,595	74,878	19,203	19,252	20,533
수지차	보험영업	-580	-139	-680	-1,113	-2,512	-779	-461	-701
	투자영업	1,386	1,345	1,484	1,527	5,742	1,725	1,603	1,528
	기타	-40	-61	-40	-22	-164	121	-22	-24
	소계	765	1,145	764	392	3,066	1,067	1,120	803
법인세		194	282	176	83	735	245	267	188
당기순이익(A) ²⁾		571	863	587	309	2,330	822	853	615
		(31.2)	(96.7)	(-13.6)	(-17.2)	(20.2)	(43.9)	(-1.1)	(4.7)
당기순이익(B) ³⁾		460	558	451	185	1,661	611	627	484
		(31.5)	(8.1)	(5.9)	(-31.5)	(6.4)	(30.5)	(12.4)	(7.3)

주: 1) 기간별 수치는 특별계정을 제외한 실적이고, ()안은 전년동기대비(분기) 증가율이며, 2014년 4/4분기는 FY2013 3/3분기와 비교함.

2) 재보험회사와 보증보험회사를 포함한 전체 손해보험산업의 당기순이익임.

3) 재보험회사와 보증보험회사를 제외한 18개 손해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임.

4) 2014는 2014년 1~12월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3년 1~12월 수치와 비교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보험영업 적자규모는 전년동기대비 212억 원 확대된 7,014억 원을 기록함.
- 투자영업 이익규모는 매도가능증권과 대출채권 이익수익 증가(〈표 24〉 참조)로 전년 동기대비 443억 원 증가한 1조 5,283억 원을 나타냄.
- 한편, 재보험회사와 보증보험회사를 제외한 18개 손해보험회사¹⁸⁾의 당기순이익(B)도 전년동기대비 7.3% 증가한 4,835억 원 흑자를 기록함.

〈총부채 · 총자본〉

- 2015년 3/4분기 손해보험산업 부채 및 자본총계는 전년동기대비 14.8% 증가한 219조 7,073억 원을 나타냄.
- 총부채는 퇴직연금 호조세¹⁹⁾로 특별계정 부채가 늘어나 전년동기대비 15.2% 증가하였으며, 총자본은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증가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늘어나²⁰⁾ 전년 동기대비 12.3% 증가함.

18) 손해보험회사 자본이익률 분석대상은 재보험회사와 보증보험회사를 제외한 18개 회사임.

19) 퇴직연금 원수보험료가 전년동기대비 34.4% 증가함.

20)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이 전년동기대비 27.9% 증가함.

〈표 23〉 손해보험산업 부채 및 자본 현황¹⁾

(단위: 조 원, %)

구분		2014			2015		
		2/4	3/4	4/4	1/4	2/4	3/4
책임준비금	금액	141.1	145.8	150.2	154.6	160.1	165.0
	증가율	16.7	15.8	15.2	13.8	13.4	13.1
기타부채	금액	11.4	11.9	12.0	13.3	12.4	13.6
	증가율	0.1	13.4	15.3	24.3	9.0	14.3
특별계정부채	금액	7.6	7.6	9.3	9.2	9.3	9.4
	증가율	24.6	23.4	25.3	20.9	22.0	24.0
부채총계	금액	160.2	165.3	173.4	179.3	184.2	190.4
	증가율	15.7	16.0	17.1	16.3	15.0	15.2
자본금	금액	2.3	2.3	2.4	2.4	2.5	2.6
	증가율	12.8	12.6	3.3	6.1	8.2	10.4
자본잉여금	금액	2.3	2.3	2.4	2.3	2.4	2.5
	증가율	10.4	9.3	13.7	9.5	2.8	8.4
이익잉여금	금액	16.7	17.2	17.6	17.7	18.5	19.0
	증가율	13.7	12.7	12.3	12.0	11.1	9.9
자본조정	금액	-0.7	-0.8	-0.9	-0.9	-1.0	-1.0
	증가율	-	-	-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금액	4.4	5.0	5.5	7.1	5.7	6.3
	증가율	21.6	35.2	65.2	99.9	29.8	24.6
자본총계	금액	24.9	26.1	26.9	28.6	28.1	29.3
	증가율	14.1	15.7	20.0	25.5	12.8	12.3
부채 및 자본총계	금액	185.1	191.4	200.3	207.9	212.3	219.7
	증가율	15.5	15.9	17.4	17.5	14.7	14.8

주: 1)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분기) 증가율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자산운용〉

■ 2015년 3/4분기 손해보험산업 운용자산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01%p 상승한 3.99%를 기록함.

○ 현금과 예금 이익률은 1.01%p 상승한 3.76%를 기록한 반면, 유가증권 이익률은 0.07%p 상승한 4.06%를 나타냄.

○ 대출채권 이익률은 0.42%p 하락한 4.31%를 나타냈으며, 부동산 이익률은 0.16%p 하락한 1.05%를 기록함.

■ 2015년 3/4분기 운용자산 항목별 비중은 유가증권 55.86%, 대출채권 22.29%, 현금과 예금 4.27%, 부동산 3.12% 순으로 나타남.²¹⁾

○ 현금과 예금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0.02%p 상승하였으며, 유가증권 및 대출채권 비중은 각각 0.62%p, 1.39%p 상승하였고, 부동산 비중은 0.35%p 하락함.

〈그림 6〉 운용자산과 일반계정자산 이익률 추이^{1),2)}



주: 1) 분기별 누적치이며 일반계정자산이익률은 비운용자산까지 포함한 것임.

2) 운용자산 이익률 = (운용자산손익 × 2) / (기초자산 + 기말자산 - 운용자산손익) × 연기준환산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1) 일반계정자산은 운용자산과 비운용자산으로 구분되며, 해당 수치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표 24〉 손해보험산업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 억 원)

구분	2014				2015					
	3/4		4/4		1/4		2/4		3/4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일반계정자산	100.00	3.32	100.00	3.33	100.00	3.62	100.00	3.46	100.00	3.33
운용자산 계	83.86	3.98	84.84	3.97	85.10	4.24	85.14	4.08	85.54	3.99
현금과 예금	4.25	2.75	4.72	3.05	3.89	2.23	4.08	2.93	4.27	3.76
유가증권	55.24	3.99	54.84	4.00	56.32	4.56	55.82	4.26	55.86	4.06
○ 당기손익인식증권	4.44	3.63	3.83	3.56	4.18	4.54	3.62	3.54	3.83	2.38
- 주식	0.12	14.91	0.14	4.05	0.13	26.41	0.10	25.63	0.08	8.05
- 채권 등	2.12	4.57	2.08	4.35	1.87	5.65	1.88	2.98	1.85	2.43
- 수익증권	2.20	1.67	1.61	2.21	2.18	2.15	1.64	2.29	1.90	1.98
○ 매도가능증권	42.38	4.14	42.48	4.17	44.48	4.71	43.68	4.49	43.56	4.30
- 주식	3.23	2.44	3.15	1.60	3.20	5.93	3.07	4.44	2.71	1.41
- 채권 등	34.55	4.28	34.24	4.41	35.98	4.34	34.77	4.22	35.02	4.27
- 수익증권	4.61	4.30	5.10	4.23	5.30	6.45	5.84	6.20	5.83	6.05
○ 만기보유증권	6.73	3.83	6.72	3.90	5.86	3.87	6.74	3.79	6.75	3.96
- 채권 등	6.73	3.83	6.72	3.90	5.86	3.87	6.74	3.79	6.75	3.96
- 수익증권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 관계·종속기업 투자주식	1.70	1.61	1.80	1.07	1.79	3.57	1.78	2.02	1.71	2.34
대출채권	20.90	4.73	21.91	4.61	21.60	4.29	22.02	4.31	22.29	4.31
부동산	3.47	1.21	3.37	1.07	3.29	1.19	3.21	1.09	3.12	1.05
비운용자산	16.14	0.04	15.16	0.02	14.90	0.09	14.86	0.00	14.46	-0.43
총자산	100.00	3.16	100.00	3.15	100.00	3.40	100.00	3.25	100.00	3.12
일반계정	95.98	3.32	95.41	3.33	94.38	3.62	94.51	3.46	94.54	3.33
특별계정	4.02	0.00	4.59	0.00	5.62	0.00	5.49	0.00	5.46	0.00
총자산 규모	1,913,805		2,003,076		2,078,896		2,122,961		2,197,073	

주: 1) 운용자산 이익률 = (운용자산이익 × 2) / (기초자산 + 기말자산 - 운용자산이익) × 연기준환산

2) 자산구성비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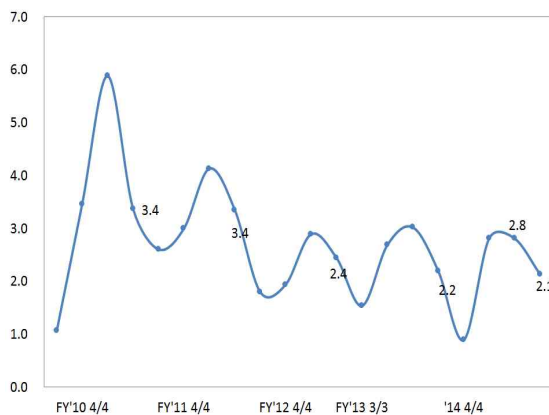
〈자본이익률²²⁾〉

■ 2015년 3/4분기 손해보험산업 전체 자본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1%p 하락한 2.1%를 기록함.

○ 이는 당기순이익이 전년동기대비 증가하였으나 기중자본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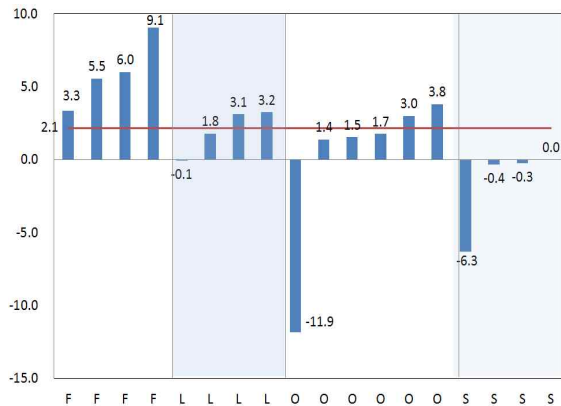
〈그림 7〉 손해보험산업 자본이익률

(단위: %)



〈그림 8〉 회사별 자본이익률^{1),2)}

(단위: %)



주: 1) F, L, O, S는 각각 외국사, 대형사, 중·소형사, 전업사를 의미함.

2) 회사별 자본이익률 분포에서 표시된 실선은 산업수준의 자본이익률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2015년 3/4분기 손해보험회사 그룹별 자본이익률의 경우 대형사와 외국사 자본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하락하였으나, 중·소형사와 전업사 자본이익률은 상승함.

○ 대형사 자본이익률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0.5%p 하락한 2.0%를 나타냄.

○ 중·소형사와 전업사 자본이익률의 경우 각각 1.3%p, 7.6%p 상승한 2.4%, -0.6%를 기록함.

22) 보험회사 경영성과지표 중 하나인 자본이익률은 기중자본대비 당기순이익(R_t / E_t^o)을 의미하며, 분석대상은 FY2012 1/4분기부터 농협손해보험이 포함되어 18개 회사임.

〈표 25〉 손해보험산업 자본이익률¹⁾ 추이

(단위: %)

구분	2014					2015		
	1/4	2/4	3/4	4/4	연간	1/4	2/4	3/4
대형사	3.2	3.2	2.5	1.4	10.2	3.0	2.8	2.0
중·소형사	0.6	2.3	1.0	-0.2	3.5	1.5	3.0	2.4
외국사	-0.7	2.1	6.7	3.1	16.4	7.3	4.8	5.7
전업사	-1.2	0.1	-8.2	-18.0	-27.4	1.5	-3.9	-0.6
전체	2.6	3.0	2.2	0.9	8.7	2.8	2.8	2.1

주: 1) 자본이익률 = 당기순이익 / 기중자본, 기중자본 = ((전회계연도 말 자본 + 당기 말 자본) / 2)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다. 판매채널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 2015년 3/4분기 임직원 채널과 설계사 채널 원수보험료 비중은 전년동기보다 확대되었으나, 대리점 채널 원수보험료 비중은 축소됨.

○ 임직원 채널과 설계사 채널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0.3%p, 1.5%p 확대된 14.0%, 28.4%를 기록함.

○ 대리점 채널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1.9%p 축소된 44.6%를 나타냄.

〈표 26〉 손해보험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¹⁾

(단위: 억 원, %)

구분	2014					2015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임직원	27,340	24,779	24,529	63,198	139,845	30,640	28,715	26,378
	14.9	13.7	13.7	28.3	18.3	15.9	14.9	14.0
설계사 ²⁾	53,797	57,315	48,191	54,038	213,341	53,503	55,140	53,786
	29.4	31.8	26.9	24.2	27.9	27.7	28.7	28.4
대리점	74,999	74,286	83,329	82,712	315,326	82,251	84,084	84,320
	41.0	41.2	46.5	37.0	41.2	42.6	43.8	44.6
중개사	1,206	1,614	1,590	1,765	6,176	1,397	1,921	1,446
	0.7	0.9	0.9	0.8	0.8	0.7	1.0	0.8
방카슈랑스	25,602	21,967	21,148	21,313	90,030	25,096	21,790	22,405
	14.0	12.2	11.8	9.5	11.8	13.0	11.3	11.9
공동인수	138	256	236	407	1,036	316	509	496
	0.1	0.1	0.1	0.2	0.1	0.2	0.3	0.3
전체	183,082	180,217	179,023	223,433	765,754	193,204	192,160	188,83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을 모두 포함하는 분기 기준 원수보험료 실적이며, 각 하단 수치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2) 설계사는 교차모집설계사의 실적을 포함한 수치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모집조직 규모〉

■ 2015년 3/4분기 말 임직원 수는 전분기대비 늘어난 반면, 설계사 수와 대리점 수는 감소함.

○ 임직원 수는 정규직 직원 수 증가에 힘입어 전분기대비 874명 늘어난 3만 3,624명을 기록함.

○ 전체 설계사 수는 전분기대비 84명 줄어든 15만 5,770명을 나타냈는데, 교차설계사 수는 증가한 반면 전속설계사 수는 감소함.

○ 전체 대리점 수는 개인대리점 수와 법인대리점 수가 모두 줄어들어 전분기대비 664개 증가한 3만 1,847개를 나타냄.

〈표 27〉 손해보험 모집조직 규모

(단위: 명, 개)

구분	2014				2015		
	1/4	2/4	3/4	4/4	1/4	2/4	3/4
임직원	33,320	33,286	33,256	33,047	33,298	32,750	33,624
설계사	161,131	157,335	156,958	156,662	156,052	155,854	155,770
- 전속	86,988	83,630	82,504	82,299	81,073	80,400	80,269
- 교차	74,143	73,705	74,454	74,363	74,979	75,454	75,501
대리점	36,559	33,586	33,170	32,995	32,475	32,511	31,847
- 개인	22,702	22,632	22,349	22,057	21,717	21,559	21,264
- 법인	13,857	10,954	10,821	10,938	10,758	10,952	10,583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Ⅳ. 해외보험시장 동향

글로벌 생명보험 시장은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모두 성장세를 보임. 미국 생명보험 신규 보험료는 유니버설보험과 종신보험 보험료가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총 8% 성장하였고, 영국 생명보험 신규보험료는 일시납 퇴직연금 보험료의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38.1% 늘어남. 일본 생명보험 신규보험료는 개인보험과 단체보험 신규계약 성장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약 3.6% 성장하였으며, 중국 인보험 수입보험료는 건강보험 수입보험료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26.4% 성장함. 글로벌 손해보험 시장은 미국의 경우 당기순이익이 전년동기대비 5.8% 증가하였고, 일본과 중국 수입보험료의 경우 각각 9.6%, 10.1% 증가함. 영국 손해보험 신규보험료는 0.4% 감소함.¹⁾

1. 미국 동향²⁾

가. 생명보험

■ 2015년 2/4분기 미국 생명보험시장 보험료 규모³⁾는 유니버설보험과 종신보험 보험료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8% 증가함.

○ 유니버설보험은 인덱스형 유니버설보험(Indexed UL) 수입보험료 성장에 힘입어 전년 동기대비 13% 증가함.

- 인덱스형 유니버설보험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 왔으며, 2015년 상반기 인덱스형 유니버설보험 수입보험료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18%임.

1) 미국은 2015년 2/4분기, 영국은 2015년 3/4분기, 중국은 2015년 3/4분기, 일본은 FY2015 1/4분기 기준임.

2) 미국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첨부된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하기 바람.

3) 미국 보험시장 성장은 신규 연납화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며, 연납화 보험료(Annualized Premium) = 일시납보험료 × 10% + 정기납보험료

- 변액유니버설보험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5% 감소하였고, 정기보험 신규보험료는 1% 늘어남.
- 종신보험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2%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난 19분기 중 가장 높은 성장률임.
- 종신보험 신규보험료는 저금리에 따른 종신보험 가격 인상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저조하였으나 2015년 1/4분기부터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음.

■ 2015년 2/4분기 생명보험 종목별 신규보험료 비중을 살펴보면 전분기대비 정기보험이 소폭 하락하고, 종신보험이 소폭 상승하였으며 나머지 종목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함.

- 생명보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니버설 보험의 2/4분기 비중은 37%로 전분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함.
- 변액유니버설보험의 경우 신규보험료는 감소하였으나 생명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함.
- 정기보험은 전분기대비 1%p하락하고, 종신보험은 전분기대비 1%p 상승하여 그 비중이 각각 21%, 35%임.

〈표 1〉 미국 생명보험 신규보험료 증가율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14						2015		
	1/4	2/4	3/4	4/4	연간		1/4	2/4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비중	증가율	증가율	비중
유니버설	-15	-8	2	18	-1	38	7	13	37
기타변액	11	0	0	0	0	0	0	0	0
변액유니버설	20	42	22	7	17	7	21	-15	7
정기	-4	-2	0	1	-1	22	2	1	21
종신	-3	5	6	5	3	33	9	12	35
계	-7	1	4	9	1	100	8	8	100
연납화 보험료	2,295	2,548	2,427	2,907	10,178		2,460	2,742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며, 비중은 누적치임.

자료: LIMRA(2015. 8), U.S. Retail Individual Life Insurance Sales.

나. 연금보험

■ 2015년 2/4분기 미국 개인연금 신규보험료는 변액연금과 정액연금의 신규보험료가 모두 감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2.7% 줄어든 602억 달러임(〈표 2〉 참조).

○ 변액연금과 정액연금 신규보험료는 각각 전년동기대비 0.6%, 5.8% 감소하여 각각 360억 달러와 242억 달러를 기록함.

- 변액연금은 저금리 환경의 영향으로 7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임.

〈표 2〉 미국 연금 종목별 신규보험료 추이

(단위: 십억 달러, %)

구분		2014					2015	
		1/4	2/4	3/4	4/4	연간	1/4	2/4
변액연금	보험료	34.2	36.2	35.5	34.2	140.1	32.4	36.0
	증가율	-3.1	-4.7	-0.6	-6.0	-3.6	-5.3	-0.6
	비중	58.8	59.0	61.0	58.9	59.4	59.6	59.8
정액연금	보험료	24.0	25.2	22.7	23.9	95.8	22.0	24.2
	증가율	4.5	34.0	-5.0	-4.8	13.5	-8.3	-5.8
	비중	41.2	41.0	39.0	41.1	40.6	40.4	40.2
합계	보험료	58.2	61.4	58.2	58.1	235.9	54.4	60.2
	증가율	12.4	8.1	-2.3	-5.5	2.7	-6.5	-2.7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LIMRA(2015. 8), *U.S. Individual Annuities*.

■ 2015년 2/4분기 개인연금 판매채널 비중의 경우 독립중개인이 24.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전속설계사가 20.8%, 은행이 16.5%, 독립설계사, 증권중개인, 직접판매가 각각 16.0%, 12.5%, 7.2%의 비중을 차지함.

〈표 3〉 미국 개인연금 판매채널 비중

(단위: %)

구분	2014				2015	
	1/4	2/4	3/4	4/4	1/4	2/4
은행	16.3	16.6	16.0	14.9	16.2	16.5
전속설계사	20.5	19.9	19.8	20.6	20.2	20.8
직접판매	7.3	7.0	7.0	7.2	8.1	7.2
독립중개인	23.9	25.7	26.1	24.7	24.3	24.7
독립설계사	16.6	16.3	15.6	16.8	16.9	16.0
증권중개인	13.5	12.1	13.1	13.2	11.8	12.5
기타	1.9	2.4	2.4	2.6	2.6	2.3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LIMRA(2015. 8), *U.S. Individual Annuities*.

다. 소득보상보험

■ 2015년 2/4분기 소득보상보험 신규보험료는 Non-cancellable⁴⁾와 Guaranteed Renewable⁵⁾ 신규보험료가 모두 증가하며 전년동기대비 12.9% 성장한 1억 3,048만 달러를 기록함.

○ Guaranteed Renewable의 신규보험료는 2015년 1/4분기 성장세로 전환한 뒤 2분기 연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년동기대비 28.2% 증가함.

○ Non-cancellable 신규보험료는 7,747만 달러로 Multilife⁶⁾ 보험 판매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4.3% 성장함.

4) Non-cancellable: 피보험자는 정해진 연령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갱신 시 보험회사는 계약을 취소하거나 보험료 또는 급부를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음.

5) Guaranteed Renewable: 피보험자는 정해진 연령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회사는 갱신 시 보험료를 변경할 권리를 갖지만 계약을 취소하거나 일방적인 급부 변경을 할 수 없음.

6) Multilife 보험은 하나의 보험상품으로 부부 둘을 모두 보장하는 상품임.

〈표 4〉 미국 소득보상보험 신규보험료 추이

(단위: 천 건, 백만 달러, %)

구분			2014					2015	
			1/4	2/4	3/4	4/4	연간	1/4	2/4
계 약 건 수	Guaranteed Renewable	건수	101.8	62.8	67.4	66.6	298.7	108.6	79.6
		증가율	5.7	-3.8	-10.5	-9.5	-3.8	6.7	26.6
		구성비	75.8	64.0	60.8	60.3	65.8	76.3	69.0
	Non- cancellable	건수	32.5	35.3	43.5	43.9	155.1	33.7	35.7
		증가율	-6.4	-2.6	7.8	1.9	0.5	3.8	1.2
		구성비	24.2	36.0	39.2	39.7	34.2	23.7	31.0
	전체	건수	134.3	98.1	110.9	110.5	453.9	142.4	115.3
		증가율	2.5	-3.2	-4.3	-5.3	-2.4	6.0	17.5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신 규 보 험 료	Guaranteed Renewable	보험료	60.3	41.3	44.5	43.9	190.0	63.8	53.0
		증가율	4.1	-8.1	-8.6	-11.9	-5.6	5.8	28.2
		구성비	47.7	35.8	34.1	32.9	37.6	48.7	40.6
	Non- cancellable	보험료	66.1	74.3	86.1	89.4	315.8	67.2	77.5
		증가율	-4.5	-5.0	1.7	3.8	-0.7	1.8	4.3
		구성비	52.3	64.2	65.9	67.1	62.4	51.3	59.4
	전체	보험료	126.4	115.6	130.6	133.2	505.8	131.0	130.5
		증가율	-0.5	-6.1	-2.0	-2.0	-2.6	3.7	12.9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LIMRA(2015, 8), U.S. Individual Disability Income Insurance Sales.

라. 손해보험

■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4.4% 증가한 1,306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1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손해보험산업의 2015년 2/4분기 당기순이익은 총투자영업이익은 감소하였으나 총보험영업이익의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5.8% 증가한 128억 달러임.

○ 2015년 2/4분기 미국 손해보험 총보험영업이익은 67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전년동기대비 약 142억 달러 증가한 수치임.

○ 총투자영업이익의 경우 투자영업이익과 실현자본이익이 모두 감소하여 전년동기대비 5.2% 줄어든 약 152억 달러임.

- 투자영업이익과 실현자본이익은 각각 117억 달러, 35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0.7%, 17.7% 감소함.

■ 자기자본이익률은 전년동기 7.3%에서 0.3%p 상승한 7.6%를 나타냄.

■ 2015년 2/4분기 합산비율은 전년동기 100.6%에서 약 1.2%p 하락한 99.4%로 개선됨.

〈표 5〉 미국 손해보험 실적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¹⁾		2014					2015	
		1/4	2/4	3/4	4/4	연간	1/4	2/4
원수보험료	금액	121,427	125,095	130,567	119,603	496,580	125,863	130,586
	증가율	3.6	4.3	3.6	4.8	4.1	3.7	4.4
지급보험금	금액	80,507	87,667	84,982	81,628	334,722	81,865	89,399
	증가율	8.2	4.9	9.5	2.7	6.2	1.7	2.0
보험영업이익	금액	3,022	-1,835	4,232	9,294	14,747	4,822	-415
	증가율	-40.5	-0.7	-49.5	49.6	-17.0	59.6	-77.4
계약자 배당금	금액	668	265	261	1,264	2,463	738	258
	증가율	20.4	-41.1	0.0	1.0	-2.0	10.5	-2.6
총보험영업이익	금액	2,354	-2,100	3,971	8,030	12,284	4,085	-673
	증가율	-47.9	-8.6	-51.1	61.9	-19.4	73.5	-68.0
투자영업이익	금액	11,168	11,821	11,331	11,861	46,153	11,685	11,734
	증가율	-2.1	-0.1	3.0	-9.2	-2.5	4.6	-0.7
실현자본이익	금액	2,936	4,254	1,593	1,301	10,064	4,674	3,500
	증가율	111.7	71.0	-25.5	-75.7	-11.5	59.2	-17.7
총투자영업이익	금액	14,103	16,075	12,923	13,162	56,215	16,359	15,234
	증가율	10.2	12.3	-1.7	-28.6	-4.3	16.0	-5.2
세전영업이익 ²⁾	금액	13,775	10,146	12,714	19,017	55,639	15,608	11,965
	증가율	-12.8	1.3	-35.4	2.2	-13.2	13.3	17.9
당기순이익	금액	13,856	12,131	11,672	17,849	55,501	18,172	12,834
	증가율	-3.3	19.6	-36.2	-13.8	-12.5	31.1	5.8
자기자본(Surplus)	금액	661,601	672,092	673,929	674,714	674,714	671,726	672,439
	증가율	8.5	9.5	8.0	3.3	3.3	1.5	0.1
지급준비금	금액	573,725	578,561	579,056	575,607	575,607	575,256	579,099
	증가율	-0.5	0.3	1.0	0.4	0.4	0.3	0.1
자기자본이익률		8.4	7.3	6.9	10.6	8.4	10.8	7.6
합산비율		97.1	100.6	95.5	94.9	97.0	95.7	99.4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세전영업이익 = 총보험영업이익 + 총투자영업이익 + 기타이익

자료: ISO(2015. 10), Property/Casualty Insurance Results: Forst-Half 2015; I.I.I.(2015. 7), 2015-First Quarter Results.

조사 개요 및 출처

■ 미국의 보험산업은 크게 생명보험(종신보험, 정기보험 등), 연금보험, 건강보험, 손해 보험으로 구분되며, 본고는 이 중 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과 소득보상보험에 대한 분기별 통계를 근거로 작성하였음.

○ 미국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건강보험이 존재하지 않아 민영건강보험이 발달해 있음.

○ 미국 민영건강보험 사업자는 비영리 민간보험조합인 Blue Shield, Blue Cross와 의료공급조직(PPO: 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 HMO: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등이 존재하고 이들이 민영건강보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민영 건강보험이 직장단체보험으로 운영되는 등 우리나라와 많은 차이가 있음.

○ 생명보험에는 유니버설보험, 변액보험, 정기보험, 종신보험 등이 있으며, 연금보험은 크게 변액연금보험과 정액연금보험으로 구분됨.

- 미국생명보험협회(ACLI: The American Council of Life Insurers), 생명보험마케팅 연구단체(LIMRA: Life Insurance Marketing and Research Association) 등은 생명보험, 연금보험, 소득보상보험, 장기간병보험에 대한 자료만 제공함.

- LIMRA의 분기별 자료는 신계약에 대한 보험료를 중심으로 발표됨.

○ 미국손해보험협회(PCI: Property Casualty Insurers Association of America)와 보험요율단체(ISO: Insurance Services Office Limited), 보험정보원(III: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이 공동으로 발표하는 손해보험산업 분기별 지표는 전체적인 영업성과를 중심으로 작성됨.

■ 구체적으로 미국보험시장 동향 작성을 위해 참고한 문헌은 다음과 같음.

보고서	참여 회사 수	수입보험료 비중	발표 기관
U.S. Individual Life Insurance Sales	84개사	80%	LIMRA
U.S. Individual Annuities	62개사	97%	LIMRA
U.S. Individual Disability Income Insurance	19개사	-	LIMRA
손해보험 분기별 실적 보도자료	-	-	PCI, ISO, III

2. 영국 동향⁷⁾

가. 생명보험

〈생명보험 전체〉

■ 2015년 3/4분기 영국 생명보험 보험료 규모는 신규보험료⁸⁾ 기준으로 전년동기보다 38.1% 증가한 200억 7,873만 파운드임.

○ 신규보험료 중 일시납 퇴직연금 보험료가 전년동기대비 71.5% 증가하면서 생명보험 전체 신규보험료도 큰 폭으로 증가함.

■ 2015년 3/4분기 정기납 신규보험료는 15억 7,747만 파운드로 전년동기대비 5.6% 감소함.

○ 정기납 보험료 중 비중이 가장 큰 퇴직연금계좌 보험료가 감소하면서 정기납 보험료는 전체적으로 감소세를 보임.

■ 2015년 3/4분기 일시납 신규보험료는 185억 125만 파운드로 전년동기대비 43.7% 증가함.

○ 일시납 보험료 비중이 가장 큰 퇴직연금 보험료가 71.5% 증가하고 두 번째로 비중이 큰 퇴직연금계좌 보험료도 56.2% 늘어나면서 일시납 신규보험료는 전체적으로 증가세가 확대됨.

7) 영국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첨부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하기 바람.

8) 신규보험료는 보험료 납입방법별로 정기납 신규보험료와 일시납 신규보험료의 합계로 계산함.

<표 6> 영국 생명보험 신규보험료

(단위: 백만 파운드, %)

정기납 신규보험료		2014			2015		
		3/4	4/4	연간	1/4	2/4	3/4
투자 및 저축보험	금액	8.9	7.5	33.1	8.4	7.6	9.5
	증가율	-34.1	-7.9	-17.9	5.5	-13.5	6.9
	구성비	0.5	0.4	0.5	0.5	0.4	0.6
퇴직연금계좌	금액	1,127.9	1,009.2	4,549.2	1,044.6	1,137.5	1,036.5
	증가율	13.1	-16.2	0.6	-10.7	-8.4	-8.1
	구성비	67.5	59.0	66.4	59.7	65.5	65.7
Individual Pension	금액	73.5	72.9	292.6	80.4	95.6	83.2
	증가율	1.3	-5.6	-7.8	18.3	22.1	13.2
Personal Pension	금액	44.1	45.1	174.7	48.6	59.9	53.9
	증가율	8.3	11.0	-2.4	23.9	29.6	22.3
Individual Stakeholder Pension	금액	12.2	12.1	49.6	12.8	14.8	10.8
	증가율	-7.8	3.0	-8.3	7.5	9.0	-11.6
Work-based Pensions	금액	1,054.4	936.4	4,256.5	962.3	1,042.0	953.3
	증가율	14.0	-16.9	1.2	-12.6	-10.5	9.6
Group Personal Pension	금액	921.6	827.2	3,702.7	851.3	918.1	841.4
	증가율	15.1	-17.0	1.6	-8.5	-10.3	-8.7
Employer-sponsored Stakeholder Pension	금액	132.8	109.2	553.8	111.0	123.9	111.9
	증가율	7.3	-16.8	-1.2	-35.4	-11.6	-15.7
퇴직연금	금액	277.1	446.8	1,235.0	435.5	312.4	282.9
	증가율	13.9	89.3	-16.9	94.5	8.8	2.1
	구성비	16.6	26.1	18.0	24.9	18.0	17.9
Defined Contributions(DC)	금액	87.4	83.9	426.3	84.5	96.4	110.2
	증가율	7.0	-26.3	-48.6	-19.5	-35.8	26.1
보장성보험	금액	257.4	240.4	1,029.3	259.6	278.8	248.6
	증가율	0.3	-4.1	-0.3	-4.0	7.3	-3.5
	구성비	15.4	14.4	15.0	14.9	16.1	15.8
소계(A)	금액	1,671.7	1,704.0	6,846.6	1,746.2	1,737.3	1,577.5
	증가율	10.6	0.3	-3.3	4.5	-3.4	-5.6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일시납 신규보험료		2014			2015		
		3/4	4/4	연간	1/4	2/4	3/4
투자 및 저축보험	금액	2,287.4	2,125.5	8,315.2	1,864.3	2,019.2	2,095.8
	증가율	9.9	-11.0	-2.9	-4.9	4.0	-8.4
	구성비	17.9	11.8	13.2	14.9	10.0	11.3
역외영업	금액	1,116.5	710.1	3,698.3	745.8	874.8	870.4
	증가율	7.4	-31.3	-10.6	-15.3	0.8	-22.0
변액연동채권	금액	506.4	475.0	2,075.3	434.1	463.7	449.5
	증가율	-10.2	-20.0	-13.6	-21.0	-8.5	-11.2
보증/배당채권	금액	9.4	768.7	794.9	680.7	675.5	771.6
	증가율	-98.0	39.4	-58.7	10344.5	6412.9	8142.8
퇴직연금계좌	금액	2,927.7	3,373.6	13,052.6	4,102.9	4,788.7	4,574.3
	증가율	-9.2	4.5	-8.6	23.5	39.7	56.2
	구성비	22.9	18.7	20.8	32.9	23.6	24.7
Individual Pension	Personal Pension	금액	1,954.6	2,016.3	7,872.7	3,114.3	3,645.6
		증가율	27.4	17.9	15.6	62.2	83.9
	Personal Pension	금액	1,113.7	1,241.3	4,599.9	1,535.5	1,675.5
		증가율	8.0	22.7	6.1	39.8	46.1
	Individual Stakeholder Pension	금액	77.7	79.9	376.5	128.4	135.7
		증가율	32.9	26.7	2.9	22.0	19.3
	SIPP	금액	750.3	683.1	2,837.6	1,436.5	1,816.5
		증가율	75.1	10.3	39.7	106.4	156.6
	Work-based Pensions	금액	973.1	1,357.3	5,179.9	988.6	1,143.1
		증가율	-42.4	-10.6	-30.6	-29.5	-21.0
	Group Personal Pension	금액	921.0	1,306.0	4,901.3	918.2	1,075.3
		증가율	-43.6	-10.3	-30.3	-30.0	-21.0
	Employer-sponsored Stakeholder Pension	금액	52.2	51.3	278.7	70.4	67.8
		증가율	-11.5	-16.0	-8.7	-22.5	-19.6
퇴직연금	금액	5,288.5	10,661.4	31,768.3	4,646.0	11,127.0	9,067.4
	증가율	-38.6	93.0	33.4	-40.4	38.6	71.5
	구성비	41.4	59.0	50.6	37.2	54.9	49.0
Trustee Investment Plans	금액	2,095.3	5,636.1	15,001.6	3,053.2	2,960.2	5,639.7
	증가율	-25.6	107.0	22.4	28.0	-39.4	169.2
Bulk Buyouts	금액	1,732.4	4,742.8	13,904.8	982.9	7,085.2	2,883.1
	증가율	-67.7	148.0	47.4	-78.4	145.8	66.4
보장성보험	금액	36.6	40.1	149.5	34.2	32.8	38.9
	증가율	-33.1	-19.6	-24.3	-20.9	11.0	6.1
	구성비	0.3	0.2	0.2	0.3	0.2	0.2
퇴직소득보험	금액	2,330.8	1,954.4	9,897.8	1,836.4	2,294.4	2,724.9
	증가율	-31.0	-38.1	-27.1	-39.8	-10.4	16.9
	구성비	17.5	10.3	15.2	14.7	11.3	14.7
소계(B)	금액	12,871.0	18,154.9	63,183.4	12,483.8	20,262.1	1,8501.3
	증가율	-25.8	28.4	4.5	-22.8	26.7	43.7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신규보험료 총계(A+B)	금액	14,542.7	19,858.8	70,030.1	14,229.9	21,999.4	20,078.7
	증가율	-22.8	25.3	3.7	-20.2	23.7	38.1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며, n.a.는 통계집계방식 변경에 의해 자료가 없는 경우임.
 자료: 영국보험협회(ABI).

〈투자 및 저축보험 신규보험료〉

- 2015년 3/4분기 투자 및 저축 신규보험료는 투자 보험료가 증가하였으나 역외영업 보험료가 크게 감소하면서 전체 신규보험료가 전년동기대비 8.3% 감소함.
- 일시납 투자 및 저축 보험종목은 투자 보험료가 4.7% 증가하였으나 역외영업 보험료가 22.0% 감소하면서 전체 신규보험료가 8.4% 축소됨.
- 정기납 투자 및 저축 보험료는 역외영업 보험료가 17.0% 감소하였으나 생사혼합보험이 18.7% 증가하면서 전체 보험료가 6.9% 증가하였음.

〈퇴직연금계좌 신규보험료〉

- 2015년 3/4분기 퇴직연금계좌⁹⁾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정기납 퇴직연금계좌 신규보험료가 감소하였으나 일시납 퇴직연금계좌 신규보험료가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38.3% 늘어남.
- 2015년 2/4분기 정기납 퇴직연금계좌 보험료의 경우 개인연금계좌(Individual Pension) 판매가 증가하였으나 단체개인연금계좌(Work-based Pension) 판매가 감소하면서 전년 동기대비 8.1% 감소함.
- 정기납 개인연금계좌 보험료는 스테이크홀더 연금(Individual Stakeholder Pension)이 전년동기대비 11.6% 감소하였으나 개인연금(Personal Pension)이 22.3%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13.2% 확대됨.
- 단체개인연금계좌(Work-based Pensions) 보험료는 단체개인연금(Group Personal Pension)의 판매가 8.7% 감소하고 고용주 지원 스테이크홀더 연금(Employer-sponsored Stakeholder Pension)도 15.7%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9.6% 축소됨.
- 2015년 3/4분기 일시납 퇴직연금계좌 보험료의 경우 단체개인연금계좌 판매가 증가세를 보이고 개인연금계좌 판매도 크게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56.2% 확대됨.

9) 퇴직연금계좌는 개인연금계좌(Personal Pension, Individual Stakeholder Pension, SIPP 등)와 단체개인연금계좌(Group Personal Pension, Employer-sponsored Stakeholder, Group SIPP 등)로 구분됨.

- 일시납 개인연금계좌 보험료의 경우 규모가 가장 큰 개인연금(Personal Pension) 보험료가 전년동기대비 57.5% 늘어나고 스테이크홀더 연금(Individual Stakeholder Pension) 및 SIPP 보험료가 전년동기대비 각각 1.5%, 117.4%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77.9% 확대됨.
- 일시납 단체개인연금계좌 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2.7% 증가되었는데, 이는 규모가 가장 큰 단체개인연금(Group Personal Pension) 보험료가 13.1% 증가하고 고용주 지원 스테이크홀더 연금(Employer-sponsored Stakeholder Pension) 보험료도 7.1% 늘어났기 때문임.

〈퇴직연금 신규보험료〉

- 2015년 3/4분기 퇴직연금(Trust-based Pension)¹⁰⁾ 전체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68.0% 증가한 93억 5,028만 파운드로 집계됨.
- 2015년 3/4분기 정기납 퇴직연금 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2.1% 증가한 2억 8,288만 파운드임.
- 이는 정기납 퇴직연금에서 비중이 가장 큰 DC형 퇴직연금 신규보험료가 전년동기대비 26.1% 증가한 데 기인함.
- 한편 일시납 퇴직연금 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71.5% 확대된 90억 6,740만 파운드로 집계됨.
- DC형 퇴직연금이 84.6% 감소하였으나 가장 비중이 큰 위탁투자계좌(TIPs)가 169.2% 증가하고 Bulk Buyouts¹¹⁾ 보험료도 66.4%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큰 증가세를 보임.

〈보장성보험 신규보험료〉

- 2015년 3/4분기 보장성보험 전체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2.3% 감소한 2억 8,745만 파운드로 집계됨.

10) 퇴직연금은 Defined Benefits, Defined Contributions, Group AVCS, TIPs(Trustee Investment Plans), Buyouts 등으로 구분함.

11) DB형 퇴직연금 관리를 보험회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좌임.

■ 정기납 보장성보험료¹²⁾는 전년동기대비 3.5% 감소한 2억 4,860만 파운드임.

- 정기납 보장성보험료는 개인 보장성보험이 1.0% 늘었으나, 단체 보장성 신규보험료가 3.5%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줄어들.

■ 일시납 보장성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6.1% 증가한 3,885만 파운드였음.

〈퇴직소득보험 신규보험료〉

■ 2015년 3/4분기 일시납 퇴직소득보험¹³⁾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6.9% 증가한 27억 2,487만 파운드임.

- 종신연금 신규보험료가 전년동기대비 19.9% 축소되었으나 소득인출 보험료가 79.0% 확대되면서, 전체적으로 증가세로 전환됨.

〈모집형태별 신규보험료〉

■ 2015년 3/4분기 정기납 신규보험료 모집형태별 비중의 경우, 독립 자문 채널의 비중이 가장 크고 無자문, 제한적 자문 순이었으며, 전분기대비 無자문 채널 비중만 축소됨.

- 전체 중 독립 자문 채널 비중은 전분기보다 0.7%p 증가한 75.5%였으며, 종목별로는 퇴직연금계좌의 독립 자문 채널 비중이 86.8%로 가장 컸음.
- 無자문 채널의 정기납 신규보험 판매비중은 전분기대비 1.1%p 감소한 14.8%였으며, 종목별로는 투자 및 저축보험 중 無자문 채널 비중이 64.7%로 가장 컸음.
- 제한적 자문 채널의 정기납 신규보험 판매비중은 전분기보다 0.4%p 증가한 9.8%를 차지했으며, 종목별로는 보장성보험 중 비중이 18.1%로 가장 컸음.

12) 정기납 보장성보험(Protection Products)은 개인보험인 정기생명보험(Term Life), 종신보험(Whole Life), CI(Critical Illness), 소득보장(Income Protection)과 단체보험인 단체생명보험(Group Life), 단체CI(Group Critical Illness), 단체소득보장(Group Income Protection)보험으로 구분함.

13) 퇴직소득(Retirement Income)보험은 일시납 수령형태만 있으며, 종신연금(Pension Annuities), 소득인출(Income Drawdown)로 나뉨.

2015년 3/4분기 일시납 보험료 모집형태별 채널 비중 크기는 독립 자문, 無자문, 제한적 자문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분기대비 無자문 채널 비중만 감소함.

○ 일시납 전체 판매 중 독립 자문 채널 비중은 전분기대비 6.0%p 늘어난 66.7%였으며, 종목별로 살펴보면 보장성보험 87.3%, 투자 및 저축보험 78.4%로 비중이 크고, 퇴직 소득보험의 비중이 50.5%로 가장 작았음.

○ 無자문 채널의 일시납 신규보험 판매비중은 23.7%로 전분기대비 5.9%p 감소하였으며, 종목별로는 동 채널의 비중이 퇴직소득보험의 경우 36.0%, 퇴직연금의 경우 27.9%를 차지함.

○ 일시납 신규보험료 중 제한적 자문채널의 판매비중은 9.7%로 전분기와 같았으며, 종목별로는 투자 및 저축보험 중 동 채널의 비중이 19.3%로 비교적 컸고, 퇴직연금계좌의 경우에는 5.3%로 가장 작았음.

〈표 7〉 2015년 3/4분기 영국 생명보험 신규보험료 모집형태별 비중

(단위: %)

구분	독립 자문 (Independent Advice)		제한적 자문 ¹⁾ (Restricted Advice)		無자문 ²⁾ (Non-advised)	
	정기납	일시납	정기납	일시납	정기납	일시납
투자 및 저축보험	24.9	78.4	10.4	19.3	64.7	2.2
퇴직연금계좌	86.8	76.9	8.4	5.3	4.8	17.8
퇴직연금	42.4	63.6	7.2	8.5	50.4	27.9
보장성보험	67.9	87.3	18.1	3.6	13.9	9.0
퇴직소득보험	-	50.5	-	13.6	-	36.0
전체 ³⁾	75.5	66.7	9.8	9.7	14.8	23.7

주: 1) 독립중개인(WoM), 단일 전속(Single Tied)과 다중 전속(Multi Tied)설계사 포함.

2) 보험회사의 직접 판매와 제3자 판매를 포함하며 해당 보험회사의 상품만을 대상으로 함.

3) 각 채널별 신규보험료를 합산하여 재계산함.

4) 비중 합계가 100% 이하인 경우는 채널 파악이 안된 경우로 보임.

자료: 영국보험협회(ABI).

2015년 3/4분기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한 신규보험 판매액은 전년동기대비 11.4% 감소한 2억 4,406만 파운드였음.

○ 방카슈랑스를 통한 정기납 보험판매는 전년동기대비 38.4% 축소된 1,766만 파운드였는데, 이는 보장성보험 보험료가 44.4% 감소하고 퇴직연금계좌 보험료도 16.8% 줄어든 데 기인함.

○ 일시납 신규보험 판매 중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한 판매는 전년동기대비 8.4% 감소한 2억 2,640만 파운드였으며, 이는 비중이 가장 큰 투자 및 저축 보험료가 4.7% 증가하였으나 퇴직소득보험료가 72.1% 감소한 데 기인함.

〈표 8〉 영국 생명보험 신규보험료 방카슈랑스 판매

(단위: 백만 파운드, %)

구분	정기납						일시납					
	2014			2015			2014			2015		
	3/4	4/4	연간	1/4	2/4	3/4	3/4	4/4	연간	1/4	2/4	3/4
투자 및 저축보험	0.0 (-109.1)	0.1 (-11.4)	0.6 (-7.3)	0.1 (-55.7)	0.2 (-5.2)	0.2 (500.0)	5.3 (-95.7)	124.7 (-2.8)	138.4 (-79.1)	117.9 (285.4)	112.3 (2.7)	132.4 (4.7)
퇴직연금계좌	6.2 (-70.4)	6.8 (-31.1)	32.8 (-36.1)	3.3 (-68.0)	4.0 (-49.6)	5.2 (-16.8)	18.4 (-35.9)	17.1 (-46.2)	95.9 (-29.1)	16.8 (-40.7)	17.2 (-46.6)	10.9 (-41.0)
퇴직연금	0.0 (0.0)	0.0 (0.0)	0.0 (116.7)	0.4 (-)	0.0 (-57.1)	0.0 (-100.0)	5.5 (-89.6)	3.7 (92.9)	104.5 (-48.0)	0.0 (-100.0)	2.6 (-91.1)	0.0 (-100.0)
역외영업	0.1 (28.9)	0.0 (15.2)	0.2 (14.5)	0.0 (-11.1)	0.0 (-32.1)	0.0 (-31.0)	70.5 (-17.5)	72.1 (-40.4)	313.6 (-18.2)	62.6 (-33.6)	91.1 (-19.9)	72.3 (2.5)
보장성보험	22.3 (-19.1)	17.0 (-38.2)	89.8 (-25.5)	16.1 (-40.0)	11.6 (-51.1)	12.4 (-44.4)	4.0 (-32.7)	3.5 (-42.0)	17.8 (-17.5)	3.8 (-13.9)	3.6 (14.9)	4.7 (15.8)
퇴직소득보험 ¹⁾	-	-	-	-	-	-	22.2 (-55.2)	15.7 (-64.5)	90.9 (-55.2)	8.9 (-72.2)	6.8 (-67.3)	6.2 (-72.1)
전체	28.5 (-41.5)	23.9 (-36.2)	123.4 (-28.5)	20.5 (-47.7)	15.8 (-50.4)	17.7 (-38.0)	126.0 (-63.7)	236.8 (-38.4)	760.9 (-52.6)	210.0 (-3.6)	233.6 (-18.1)	226.4 (-8.4)

주: 1) 별도 취급된 퇴직소득보험의 방카슈랑스 판매를 합침.
자료: 영국보험협회(ABI).

나. 손해보험¹⁴⁾

■ 2014년 영국 손해보험 시장규모는 전체 원수보험료 기준으로 전년대비 0.4% 감소한 814억 3,592만 파운드였음.

○ 재보험을 제외한 2014년 전체 원수보험료는 600억 1,776만 파운드로 전년대비 0.4% 증가하였음.

14) 영국보험협회는 손해보험 원수보험료에 대해서는 분기별 통계를 발표하지 않으며, 최근 2014년 통계를 발표함에 따라 관련 통계를 게재함.

〈표 9〉 영국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단위: 백만 파운드)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자동차	12,562	13,584	14,569	15,060	14,516	14,239
재물	12,633	13,294	12,990	13,417	13,552	12,918
상해 및 질병	5,225	5,746	5,474	5,787	6,143	6,136
배상책임	6,412	6,283	5,937	6,362	6,116	6,445
재물책임	3,920	4,359	4,207	4,157	4,753	4,870
해외 원보험	11,595	11,981	12,552	14,075	14,718	15,410
소계	52,347	55,247	55,728	58,858	59,797	60,018
재보험	17,733	18,191	18,022	21,574	21,965	21,418
전체 합계	70,080	73,438	73,750	80,433	81,762	81,436

자료: 영국보험협회(ABI).

■ 전년대비 2014년 원수보험료는 재물책임보험, 해외 원보험, 배상책임보험 순으로 증가하였으며, 재물보험, 재보험, 자동차보험, 상해 및 질병보험 순으로 감소세를 보임.

○ 해외 원보험이 전년대비 4.7% 증가하면서 154억 990만 파운드가 거수되었고 배상책임보험 5.4%, 재물보험이 2.5% 증가함.

○ 반면 재보험이 2.5% 감소한 214억 1,816만 파운드가 거수되었고 자동차보험 1.9%, 재물보험 4.7%, 상해 및 질병보험이 0.1% 감소함.

■ 2014년 손해보험의 합산비율은 98.3%로 전년대비 0.4%p 악화됨.

○ 2014년 사업비율은 32.5%로 전년대비 0.1%p 증가하였으며, 손해율도 65.8%로 0.3%p 증가함.

〈표 10〉 영국 손해보험 손해율, 사업비율, 합산비율 추이

(단위: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손해율	73.9	73.8	66.5	68.2	65.5	65.8
사업비율	32.4	29.6	30.0	31.3	32.4	32.5
합산비율	106.3	103.4	96.5	99.5	97.9	98.3

자료: 영국보험협회(ABI).

■ 2014년 손해보험 판매채널 비중의 경우 전년과 비교하여 직접판매와 방카슈랑스 비중이 소폭 증가한 반면, 전속대리점 비중은 감소함.

○ 2014년 독립중개인을 통한 판매비중은 53.9%로 가장 높았으며, 전년대비 같은 수준이나 2010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직접판매 비중은 25.4%로 두 번째로 비중이 높았으나, 이는 전속대리점 비중이 감소하면서 전년보다는 0.3%p 증가한 결과임.

〈표 11〉 영국 손해보험 판매채널 비중 추이

(단위: %)

구분	직접판매	전속대리점	독립중개인	방카슈랑스	기타
2004	20.0	6.2	54.5	17.7	1.6
2005	21.2	5.5	53.9	18.2	1.3
2006	21.0	5.3	54.1	17.9	1.7
2007	21.6	7.4	53.9	16.0	1.0
2008	21.8	6.4	56.3	14.9	0.6
2009	23.5	6.5	56.8	12.6	0.7
2010	22.7	6.8	57.3	12.8	0.4
2011	25.7	4.8	55.6	13.3	0.7
2012	24.8	4.7	55.2	14.3	0.9
2013	25.1	4.6	53.9	14.3	2.0
2014	25.4	4.4	53.9	14.4	2.0

자료: 영국보험협회(ABI).

조사 개요 및 출처

■ 영국의 보험산업은 영국보험협회(ABI: 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에서 분기별로 발표하는 생명보험의 신규보험료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영국의 경우 생명보험의 신규보험료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의 기타 통계 및 손해보험의 통계(연간자료만 발표) 입수가 어려운 상황임.

■ 영국보험협회에서 발표하는 분기별 생명보험 신규계약은 6개 종목으로 구분되는데, 보장성보험을 제외하면 신규계약은 개인과 단체로 분리되지 않음.

○ 보장성보험이 전체 신규계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기 때문에 개인보장성보험과 단체보장성보험을 보장성보험으로 통합하여 분류함.

○ 역외영업의 경우 투자·저축성보험에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 표시하지 않음.

○ 퇴직소득보험(Retirement Income)은 퇴직자의 연금재원이 분배되는 단계의 보험으로서 종신연금(Pension Annuity)과 소득인출(Income Drawdown)로 구분됨.

■ ABI가 발표한 용어를 편의상 우리식 용어로 의역함.

원문	의역
Investment & Savings	투자·저축성보험
Individual Pensions	퇴직연금계좌
Occupational Pensions	퇴직연금
Offshore Business	역외영업
Retirement Income	퇴직소득보험
Individual Protection & Group Protection	보장성보험

3. 일본 동향¹⁵⁾

가. 생명보험

〈신규계약 현황〉

■ FY2015 2/4분기 생명보험 신규계약액은 개인연금 신규계약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개인 보험 및 단체보험 신규계약액 성장으로 전년동기대비 3.6% 성장하며 20조 7,983억 엔을 나타냄.

○ 2/4분기 개인보험 신규계약액의 경우 생존보험은 줄어들었지만, 사망보험과 생사혼합보험이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5.6% 증가함.

- 사망보험의 경우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의 신규계약액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2.1% 증가하며 성장세가 지속됨.

- 생사혼합보험인 양로보험(정기양로보험 포함) 신규계약액은 전년동기대비 3.1% 감소하였고, 기타 생사혼합보험 신규계약액은 전년동기대비 42.7% 증가한 반면, 생존보험 신규계약액은 전년동기대비 15.4% 감소함.

○ 한편, 2/4분기 개인연금보험 신규계약액의 경우 정액연금보험과 변액연금보험 신규계약액이 모두 감소하며 전년동기대비 11.8% 줄어듦.

- 2/4분기 정액연금보험 및 변액연금보험 계약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11.1%, 14.6% 감소함.

○ 2/4분기 단체보험 신규계약액은 단체신용생명보험 계약액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전년동기대비 1.1% 증가한 5,441억 엔을 기록함.

- 2/4분기 단체정기보험(종합복지단체정기보험¹⁶⁾ 포함)의 신규계약액은 전년동기대비 9.3% 감소한 반면, 단체신용생명보험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45.8% 증가함.

15) 일본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첨부부의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하기 바람.

16) 종합복지단체정기보험은 임직원 사망 시 또는 고도장해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기보험을 말함.

〈표 12〉 일본 생명보험 신규계약액

(단위: 억 엔, %)

구분 ¹⁾		FY2014				FY2015	
		2/4	3/4	4/4	연간	1/4	2/4
개 인	금액	173,735	177,931	181,996	699,041	177,605	183,457
	증가율	-0.2	-0.3	9.1	3.2	7.4	5.6
	구성비	86.5	87.1	85.1	85.6	85.8	88.2
	사 망	금액	147,363	152,700	156,296	595,900	147,699
		증가율	2.2	5.3	10.1	6.1	5.8
		구성비	73.4	74.7	73.0	73.0	71.3
	정기보험	금액	78,434	80,119	80,630	310,991	74,558
		증가율	5.8	5.2	8.8	6.9	3.8
	종신보험	금액	36,711	39,048	42,385	152,084	37,635
		증가율	-8.1	7.1	15.8	4.7	10.9
	생사 혼합	금액	21,617	21,006	21,284	84,697	26,500
		증가율	-24.2	-33.7	-6.8	-22.5	27.5
		구성비	10.8	10.3	9.9	10.4	12.8
	양로보험 ²⁾	금액	12,518	11,138	11,442	46,789	12,120
		증가율	-15.2	-16.2	-10.1	-14.1	3.7
	기 타	금액	8,041	8,625	8,450	33,179	12,345
		증가율	-37.5	-50.5	-7.5	-35.1	53.1
생 존	금액	4,755	4,225	4,416	18,444	3,405	4,021
	증가율	230.2	159.4	120.4	184.9	-32.5	-15.4
	구성비	2.4	2.1	2.1	2.3	1.6	1.9
개 인 연 금	금액	21,640	21,917	21,656	86,553	20,116	19,085
	증가율	21.1	14.2	-19.0	8.6	-5.7	-11.8
	구성비	10.8	10.7	10.1	10.6	9.7	9.2
	정액연금	금액	17,075	17,782	17,151	70,019	16,063
		증가율	6.9	4.4	-29.2	-0.7	-10.8
	변액연금	금액	4,565	4,134	4,505	16,534	4,054
		증가율	139.6	92.5	78.6	79.9	21.8
단 체 보 험	금액	5,380	4,529	10,324	30,609	9,383	5,441
	증가율	32.6	-54.7	-49.2	-31.7	-9.6	1.1
	구성비	2.7	2.2	4.8	3.8	4.5	2.6
	단체정기 ³⁾	금액	4,360	3,326	8,843	20,888	7,530
		증가율	26.8	-54.8	-38.4	-40.6	72.8
	단체신용생명	금액	1,020	1,203	1,481	9,722	1,853
		증가율	65.0	-54.6	-75.1	0.7	-69.2
합 계	금액	200,755	204,377	213,977	816,204	207,104	207,983
	증가율	2.4	-1.5	0.1	1.8	5.1	3.6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며, 생명보험 전체 실적 대비 기준 구성비임.

2) 양로보험은 정기양로보험을 포함함.

3) 단체정기보험은 종합복지단체정기보험을 포함함.

자료: 일본생명보험협회.

〈자산 현황〉

■ FY2015 2/4분기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자산규모는 현금 및 예금, 단기자금, 매입금전채권, 금전신탁 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유가증권, 운용자산 등 주요 자산 규모 감소로 인해 전분기대비 0.8% 감소한 365조 8,095억 엔을 기록함.

〈표 13〉 일본 생명보험회사 주요 자산 현황 및 비중 추이^{1),2)}

(단위: 억 엔, %)

구분 ^{1),2)}	FY2014						FY2015			
	2/4		3/4		4/4		1/4		2/4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현금 및 예금	47,833	14.4	47,921	0.2	56,080	17.0	43,772	-21.9	51,574	17.8
단기자금	26,645	-1.0	31,163	17.0	36,730	17.9	29,610	-19.4	42,912	44.9
매입금전채권	26,923	1.4	27,738	3.0	27,908	0.6	27,724	-0.7	29,798	7.5
금전신탁	29,906	3.4	33,016	10.4	33,326	0.9	35,572	6.7	35,956	1.1
유가증권	2,928,616	2.2	2,990,051	2.1	2,994,295	0.1	3,027,827	1.1	2,978,104	-1.6
- 국채	1,495,263	0.4	1,490,328	-0.3	1,487,617	-0.2	1,491,066	0.2	1,486,502	-0.3
- 지방채	139,861	-0.2	140,332	0.3	138,686	-1.2	137,297	-1.0	136,997	-0.2
- 회사채	247,828	0.5	249,524	0.7	248,553	-0.4	244,657	-1.6	248,621	1.6
- 주식	192,412	5.3	208,477	8.3	226,979	8.9	237,381	4.6	208,875	-12.0
- 외화증권	688,462	7.9	737,440	7.1	732,805	-0.6	762,245	4.0	751,731	-1.4
대출금	373,651	-1.2	374,598	0.3	368,103	-1.7	365,089	-0.8	359,140	-1.6
부동산	63,141	0.9	62,777	-0.6	62,410	-0.6	62,566	0.2	62,538	0.0
운용자산 ³⁾	3,525,635	2.0	3,597,370	2.0	3,609,993	0.4	3,623,009	0.4	3,594,161	-0.8
비운용자산	60,185	-3.9	63,332	5.2	62,559	-1.2	63,674	1.8	63,934	0.4
총자산 ⁴⁾	3,585,820	1.9	3,660,702	2.1	3,672,552	0.3	3,686,683	0.4	3,658,095	-0.8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 말 잔액이며, 연말 수치는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2) 전분기대비 증가율.

3) 운용자산은 상기 주요자산, 채권대차거래지불보증금 등의 합계임.

4) 총자산은 운용자산과 유형 고정자산, 무형 고정자산 및 기타 자산 등의 합계임.

자료: 일본생명보험협회.

- 2/4분기 현금 및 예금, 단기자금, 매입금전채권 등의 자산 규모는 각각 전분기보다 17.8%, 44.9%, 7.5% 증가함.
- 또한, 2/4분기 금전신탁도 전분기대비 1.1% 성장하였으며, 비운용자산도 전분기대비 0.4% 증가함.
- 반면, 2/4분기 유가증권은 회사채를 제외한 모든 유가증권의 감소로 전분기대비 1.6% 감소하며 297조 8,104억 엔을 나타냄.
 - 2/4분기 국채와 지방채의 규모는 전분기대비 각각 0.3%, 0.2% 감소하였지만 회사채의 규모는 전분기대비 1.6% 증가함.
 - 반면, 2/4분기 주식 규모의 경우 12.0% 줄어듦.

나. 손해보험

〈보험료 현황〉

- FY2015 2/4분기 손해보험의 경우 상해보험을 제외한 모든 종목의 원수보험료가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9.6% 성장한 2조 3,517억 엔으로 집계됨.
- 2/4분기 화재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44.7% 증가하였고, 해상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0.4% 성장함.
- 동 기간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3.7% 증가한 9,767억 엔으로 집계되었고, 자동차배상책임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3.3% 성장한 2,568억 엔으로 집계됨.
- 반면, 2/4분기 상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6.7% 감소한 2,467억 엔이었음.
- 특종보험 중 배상책임보험과 이익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5.2%, 18.9% 증가하며,¹⁷⁾ 특종보험 전체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8.9% 성장한 2,981억 엔으로 집계됨.

17) 일본손해보험협회 자료.

〈표 14〉 일본 손해보험 원수보험료¹⁾

(단위: 억 엔, %)

구분 ^{2),3)}		FY2014				FY2015	
		2/4	3/4	4/4	연간	1/4	2/4
화재	보험료	3,482	4,140	3,902	15,148	3,777	5,038
	증가율	-0.4	7.4	4.3	4.3	4.2	44.7
	구성비	16.2	18.6	17.8	17.2	16.2	21.4
해상	보험료	539	545	573	2,227	602	541
	증가율	2.1	2.6	5.1	2.8	5.8	0.4
	구성비	2.5	2.4	2.6	2.5	2.6	2.3
운송	보험료	152	157	160	642	172	155
	증가율	0.0	0.0	-1.8	-0.3	0.0	2.0
	구성비	0.7	0.7	0.7	0.7	0.7	0.7
자동차	보험료	9,417	9,714	9,768	38,639	10,141	9,767
	증가율	4.2	0.6	3.8	3.0	4.1	3.7
	구성비	43.9	43.6	44.5	43.8	43.4	41.5
자동차 배상책임	보험료	2,487	2,549	2,671	10,289	2,698	2,568
	증가율	-3.8	1.2	3.4	0.6	4.5	3.3
	구성비	11.6	11.4	12.2	11.7	11.5	10.9
상해	보험료	2,643	2,639	2,267	10,373	2,888	2,467
	증가율	1.7	8.3	-2.5	2.4	2.3	-6.7
	구성비	12.3	11.8	10.3	11.8	12.4	10.5
특종	보험료	2,737	2,535	2,622	10,898	3,089	2,981
	증가율	7.4	0.9	1.0	3.9	2.8	8.9
	구성비	12.8	11.4	11.9	12.4	13.2	12.7
합계	보험료	21,458	22,279	21,963	88,217	23,367	23,517
	증가율	2.4	2.8	2.8	3.0	3.8	9.6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이며, 연말 수치는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2) 일본의 원수정미보험료, 신종보험을 각각 원수보험료, 특종보험으로 의역함.

3)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이며, 구성비는 손해보험 전체 실적 대비 기준임.

자료: 일본손해보험협회.

〈자산 현황〉

■ FY2015 2/4분기 손해보험 총자산은 현금 및 예금, 단기자금과 환매조건부채권 등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매입금전채권, 유가증권, 부동산 등의 자산 규모 감소로 전분기대비 1.5% 감소한 30조 7,924억 엔으로 집계됨.

〈표 15〉 일본 손해보험회사 주요 자산 현황 및 비중 추이¹⁾

(단위: 억 엔, %)

구분		FY2014						FY2015			
		2/4		3/4		4/4		1/4		2/4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현금 및 예금		9,175	36.2	9,507	3.6	9,288	-2.3	9,227	-0.7	17,362	88.2
단기자금		4,822	-6.1	3,363	-30.3	3,199	-4.9	4,422	38.2	8,627	95.1
환매조건부채권		5,059	53.6	6,674	31.9	1,735	-74.0	5,549	219.9	6,325	14.0
매입금전채권		1,800	11.3	2,137	18.7	4,453	108.4	3,785	-15.0	2,508	-33.7
금전신탁		1,145	16.2	1,291	12.7	1,353	4.8	1,391	2.8	1,332	-4.2
유가 증권	국채	66,050	-2.3	65,576	-0.7	64,809	-1.2	61,555	-5.0	57,996	-5.8
	지방채	3,270	-2.9	3,213	-1.7	3,192	-0.6	3,073	-3.8	3,001	-2.3
	회사채	24,079	-2.5	24,287	0.9	24,075	-0.9	23,595	-2.0	24,165	2.4
	주식	72,069	4.9	75,959	5.4	82,164	8.2	84,334	2.6	73,958	-12.3
	외화증권	55,551	3.5	57,514	3.5	58,968	2.5	59,564	1.0	59,161	-0.7
	기타증권	2,334	0.2	2,339	0.2	2,315	-1.0	2,560	10.6	2,627	2.7
	소계	223,353	1.3	228,889	2.5	235,523	2.9	234,680	-0.4	220,908	-5.9
대출금		15,743	-2.3	15,822	0.5	18,624	17.7	18,219	-2.2	15,142	-16.9
부동산		9,975	-1.7	9,895	-0.8	9,836	-0.6	9,777	-0.6	9,702	-0.8
운용자산		271,072	2.5	277,578	2.4	284,011	2.3	287,050	1.1	281,908	-1.8
비운용자산 ²⁾		24,271	-5.7	25,461	4.9	25,593	0.5	25,519	-0.3	26,015	1.9
총자산		295,344	1.8	303,039	2.6	309,605	2.2	312,570	1.0	307,924	-1.5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 말 누적 잔액, 전분기대비 증가율로서,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2) 비운용자산은 현금, 건설 중인 자산, 유·무형고정자산, 대리점비용, 재보험비용, 이연세금자산, 지불승낙담보 등을 말함.

자료: 일본손해보험협회.

- 2/4분기 현금 및 예금과 단기자금은 전분기대비 각각 88.2%, 95.1% 증가한 17,362억, 8,627억 엔을 기록함.
- 환매조건부채권 규모는 전분기대비 14.0% 증가한 6,325억 엔을 기록한 반면, 매입금 전채권과 금전신탁 규모는 각각 33.7%, 4.2% 감소함.
- 유가증권의 경우 2/4분기 회사채와 기타증권을 제외한 모든 자산 규모 감소로 인해 전체적으로 전분기대비 5.9% 줄어듦.
 - 2/4분기 국채와 지방채는 전분기대비 각각 5.8%, 2.3% 줄어들었으나, 회사채는 전분기대비 2.4% 증가함.
 - 주식의 경우 엔화 약세, 중국 경제 둔화 등으로 전분기대비 12.3% 감소하였고, 외화증권도 전분기대비 0.7% 감소함.
- 2/4분기 대출금은 일반대출금이 감소함에 따라 전분기대비 16.9% 감소하며 감소폭이 커졌으며, 부동산은 전분기대비 0.8% 감소함.

조사 개요 및 출처

■ 일본 보험산업은 크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구분되는데, 각각 일본생명보험협회(<http://www.seiho.or.jp>)와 일본손해보험협회(<http://www.sonpo.or.jp>)를 통해 입수한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매월/분기에 공개되는 누적 통계를 분기별로 전환해 분석함.

○ 생명보험은 신계약종목별통계표(新契約種類別統計表)의 신규계약액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자산 현황은 생명보험사업개황(生命保險事業概況) 중 주요자산운용현황(主要資産運用状況) 통계를 분석함.

○ 손해보험은 종목별통계표(種目別統計表)의 원수정미보험료(元受正味保険料)와 원수정미보험금(元受正味保険金) 통계를 활용해 보험료 및 지급보험금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자산 현황은 손해보험회사자금운용상황표(損害保險会社資金運用状況一覽表)를 이용하여 분석함.

■ 생명보험은 종목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성보험과 단체성보험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 개인성보험은 개인보험(個人保險)과 개인연금보험(個人年金保險)으로, 단체성보험은 단체보험(団体保險), 단체연금보험(団体年金保險), 재형보험(財形保險), 재형연금보험(財形年金保險), 의료보장보험(医療保障保險), 취업불능보험(就業不能保障保險)으로 분류함.

○ 단체성보험 중 실적이 미미한 재형보험, 재형연금보험, 의료보장보험, 취업불능보험은 기타로 분류함.

■ 일본식 보험용어를 편의상 우리식 용어로 의역함.

원문	의역
원수정미보험료(元受正味保険料)	원수보험료
원수정미보험금(元受正味保険金)	지급보험금
신종보험(新種保險)	특종보험

4. 중국 동향¹⁸⁾

가. 중국 보험산업 총괄

〈수지상황〉

■ 2015년 3/4분기 전체 수입보험료는 5,338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20.1% 증가함.

○ 인보험 및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성장세가 모두 확대되면서 전체 수입보험료 성장률도 상승함.

■ 2015년 3/4분기 전체 지급보험금은 전년동기대비 20.5% 증가한 2,056억 위안, 사업비는 21.0% 증가한 811억 위안으로 집계됨.

○ 인보험 및 손해보험 지급보험금 증가율은 모두 확대되면서 전체 지급보험금 증가율도 높아졌음.

〈표 16〉 중국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사업비^{1),2)}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4				2015		
		2/4	3/4	4/4	연간	1/4	2/4	3/4
수입보험료	금액	4,489	4,445	4,301	20,235	8,425	5,277	5,338
	증가율 ³⁾	2.9	13.4	13.5	17.5	20.4	17.6	20.1
인보험	금액	2,623	2,726	2,439	13,031	6,446	3,238	3,445
	증가율 ³⁾	-4.5	12.4	10.9	18.4	22.9	23.4	26.4
손해보험	금액	1,866	1,719	1,862	7,203	1,979	2,039	1,893
	증가율 ³⁾	15.6	15.0	17.0	16.0	12.6	9.3	10.1
지급보험금	금액	1,672	1,706	1,978	7,216	2,311	1,893	2,056
	증가율 ³⁾	13.4	10.3	16.1	16.1	24.3	13.2	20.5
인보험	금액	793	778	832	3,428	1,397	973	999
	증가율 ³⁾	11.7	13.0	34.8	23.6	36.3	22.7	28.4
손해보험	금액	879	928	1,147	3,788	915	920	1,058
	증가율 ³⁾	14.9	8.2	5.5	10.2	9.7	4.7	13.9
사업비	금액	656	671	857	2,796	699	794	811
	증가율 ³⁾	12.1	12.4	10.9	11.9	14.0	21.0	21.0

주: 1) 기간별 실적치 기준.

2)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3) 전년동기대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18) 중국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첨부된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하기 바람.

〈자산운용〉

- 2015년 3/4분기 보험산업 총자산은 전분기대비 1.3% 증가한 11조 5,780억 위안으로 나타남.
- 이 중 운용자산은 전분기대비 0.2% 증가한 10조 3,935억 위안, 비운용자산은 전분기대비 11.6% 증가한 1조 1,845억 위안임.
- 운용자산 중 예치금의 비중은 전분기에 비해 줄어든 반면, 투자금의 비중은 늘어났는데, 투자금의 비중 증가는 중국 보험회사들이 부동산, 인프라 시설 등 대체자산의 투자 비중을 확대하였기 때문임.
- 예치금은 2조 5,425억 위안으로 전분기대비 5.1% 감소하였으며 총자산대비 예치금 비중은 전분기에 비해 1.4%p 감소한 22.0%를 기록함.
- 투자금은 7조 8,510억 위안으로 전분기대비 2.1% 증가하였으며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분기 67.3%에서 67.8%로 상승함.
- 2015년 3/4분기 총자산 대비 주식 자산의 비중은 11.9%로 전분기에 비해 1.6%p 감소하였으나 대체자산의 비중은 전분기 22.7%에서 24.7%로 상승함.

〈표 17〉 중국 보험산업 자산운용 포트폴리오^{1),2)}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4				2015		
		2/4	3/4	4/4	연간	1/4	2/4	3/4
운용자산계	금액	85,907	87,677	93,314	93,314	98,941	103,685	103,935
	증가율 ³⁾	4.5	2.1	6.4	21.4	6.0	4.8	0.2
	구성비	91.6	91.3	91.9	91.9	91.0	90.7	89.9
예치금	금액	25,618	25,095	25,311	25,311	26,386	26,791	25,425
	증가율 ³⁾	2.3	-2.0	0.9	11.8	4.2	1.5	-5.1
	구성비	27.3	26.1	24.9	24.9	24.3	23.4	22.0
투자금	금액	60,288	62,582	68,004	68,004	72,555	76,894	78,510
	증가율 ³⁾	5.4	3.8	8.7	25.4	6.7	6.0	2.1
	구성비	64.3	65.1	66.9	66.9	66.7	67.3	67.8
비운용자산계 ⁴⁾	금액	7,831	8,399	8,277	8,277	9,762	10,612	11,845
	증가율 ³⁾	8.3	7.3	-1.5	37.6	17.9	8.7	11.6
	구성비	8.4	8.7	8.1	8.1	9.0	9.3	10.2
총자산	금액	93,737	96,076	101,591	101,591	108,703	114,297	115,780
	증가율 ³⁾	4.8	2.5	5.7	22.6	7.0	5.1	1.3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기말잔액기준.

2)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3) 전분기대비.

4) 비운용자산은 미수금, 장기주식투자, 유무형 자산 등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나. 인보험¹⁹⁾

〈수입보험료〉

■ 2015년 3/4분기 인보험 수입보험료는 3,445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26.4% 증가함.

○ 인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건강보험²⁰⁾ 수입보험료 증가세의 확대에 상승함.

■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 수입보험료는 고성장세를 유지하였으며 건강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세는 크게 확대됨.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21.2% 증가한 2,685억 위안, 상해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8.1% 증가한 169억 위안이었음.

○ 건강보험 수입보험료는 세금 우대 정책 발표²¹⁾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60.8% 증가한 591억 위안을 기록함.

- 2015년 8월 중국은 건강보험을 가입하는 개인에게 연간 2,400위안 한도에서 소득세 세전 공제를 제공하기로 결정함.

■ 2015년 3/4분기 변액보험 및 변액연금보험의 수익률은 모두 마이너스로 나타남.

○ 귀진증권(Sinolink Securities)에 따르면 193개 변액보험 투자계정의 평균수익률은 -11.4%로 나타남.

○ ICBC-AXA Life 및 MetLife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변액연금보험²²⁾의 수익률은 각각 -14.3%와 -13.3%였음.

19) 중국의 인보험은 한국의 생명보험에 해당하며 생명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으로 분류함. 중국의 생명보험은 크게 전통형 상품과 투자형 상품으로 구분되어 있음. 배당금이 없는 정기보험, 종신보험, 양로보험, 연금보험은 전통형 상품으로 통칭되며 투자형 상품은 배당형 상품, 투자연계형 상품, 유니버설 상품 등이 해당됨.

20) 중국의 건강보험은 한국과 유사하며 의료보험, 질병보험, 소득보장보험, 간호보험 등이 있음.

21)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2015.8), “個人稅優型健康保險業務管理暫行辦法”

22) 변액연금보험은 중국에서 2011년 8월부터 출시되었는데, 현재 이를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ICBC-AXA Life 및 MetLife 2개사가 있음.

〈표 18〉 인보험 수입보험료^{1),2),3)}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4				2015		
		2/4	3/4	4/4	연간	1/4	2/4	3/4
인보험	보험료	2,623	2,726	2,439	13,031	6,446	3,238	3,445
	증가율 ⁴⁾	-4.5	12.4	10.9	18.4	22.9	23.4	26.4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생명보험	보험료	2,080	2,216	1,998	10,902	5,633	2,477	2,685
	증가율 ⁴⁾	-10.8	9.0	8.9	15.7	22.3	19.1	21.2
	구성비	79.3	81.3	81.9	83.7	87.4	76.5	77.9
건강보험	보험료	401	367	327	1,587	652	594	591
	증가율 ⁴⁾	37.3	35.6	22.9	41.3	32.5	48.1	60.8
	구성비	15.3	13.5	13.4	12.2	10.1	18.3	17.2
상해보험	보험료	142	143	114	543	161	168	169
	증가율 ⁴⁾	14.5	17.5	17.5	17.6	11.8	18.3	18.1
	구성비	5.4	5.2	4.7	4.2	2.5	5.2	4.9

주: 1) 기간별 실적치기준.

2) 인신보험, 인수보험, 의외상해보험을 각각 인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으로 의역함.

3)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4) 전년동기대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지급보험금〉

■ 2015년 3/4분기 인보험 지급보험금은 999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28.4% 증가함.

○ 생명보험, 건강보험 및 상해보험 지급보험금은 각각 771억 위안, 186억 위안, 42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27.7%, 32.4%, 25.1% 증가함.

〈표 19〉 인보험 지급보험금^{1),2),3)}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4				2015		
		2/4	3/4	4/4	연간	1/4	2/4	3/4
인보험	보험금	793	778	832	3,428	1,397	973	999
	증가율 ⁴⁾	11.7	13.0	34.8	23.6	36.3	22.7	28.4
생명보험	보험금	639	604	623	2,728	1,195	778	771
	증가율 ⁴⁾	7.6	8.1	36.4	21.1	38.5	21.8	27.7
건강보험	보험금	124	140	173	571	169	162	186
	증가율 ⁴⁾	34.8	38.3	34.9	38.9	27.1	30.6	32.4
상해보험	보험금	30	34	35	128	33	34	42
	증가율 ⁴⁾	25.0	18.2	11.9	17.3	13.8	13.3	25.1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

2) 인신보험, 인수보험, 의외상해보험을 각각 인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으로 의역함.

3)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4) 전년동기대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회사 그룹별 시장점유율〉

■ 2015년 3/4분기 수입보험료 기준 중국계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2015년 2/4분기와 비교할 때 소폭 하락한 데 반해,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소폭 상승함.

○ 중국계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93.5%로 전분기에 비해 0.9%p 하락하였으나,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분기 5.6%에서 6.5%로 상승함.

- 외국계 생명보험회사 중 상위 3사는 ICBC-AXA Life, AIA China, Generali China로 나타남.

○ 중국계 생명보험회사 중 상위 5사²³⁾의 시장점유율은 53.6%로 전분기에 비해 3.6%p 하락함.

23) 중국계 생명보험회사 중 상위 5사는 중국런쇼우생명, 중국핑안생명, 중국타이핑양생명, 신화생명, 중국런민생명이며,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22.8%, 12.2%, 8.1%, 6.6%, 3.9%임(2015년 3/4분기 기준).

〈표 20〉 생명보험회사 그룹별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1),2)}

(단위: %)

구분			2014				2015		
			2/4	3/4	4/4	연간	1/4	2/4	3/4
인보험	중국계	상위 5사	58.9	60.7	61.1	62.5	60.3	57.2	53.6
		중·소형사 ³⁾	33.9	32.3	31.7	31.8	34.3	37.3	39.9
		소계	92.8	93.0	92.7	94.2	94.6	94.4	93.5
	외국계		7.2	7.0	7.3	5.8	5.4	5.6	6.5

주: 1) 시장 점유율은 해당기간별 수치임.

2)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3) 중·소형사는 상위 5사와 외국계를 제외한 보험회사들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다.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 2015년 3/4분기 손해보험 수입보험료는 1,893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0.1% 증가함.

○ 전체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세는 전분기에 비해 소폭 확대됨.

- 2015년 3/4분기 농업보험, 책임보험 및 보증보험 수입보험료는 각각 전년동기대비 15.2%, 17.7%, 15.2% 증가함.

〈표 21〉 손해보험 수입보험료^{1),2)}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4				2015		
		2/4	3/4	4/4	연간	1/4	2/4	3/4
손해보험	보험료 ³⁾	1,866	1,719	1,862	7,203	1,979	2,039	1,893
	증가율 ⁴⁾	15.6	15.0	17.0	16.0	12.6	9.3	10.1

주: 1) 재산보험을 손해보험으로 의역함.

2)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3)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4) 전년동기대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지급보험금〉

- 2015년 3/4분기 손해보험 지급보험금은 1,058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3.9% 증가함.
- 2014년 3/4분기 손해보험 지급보험금의 증가 둔화에 따른 기저효과로 2015년 3/4분기 손해보험 지급보험 증가율이 전분기에 비해 크게 상승함.
- 2014년 3/4분기 자동차 부품 가격 하락²⁴⁾으로 자동차보험 지급보험금의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손해보험 지급보험금의 증가율도 감소함.

〈표 22〉 손해보험 지급보험금¹⁾²⁾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4				2015		
		2/4	3/4	4/4	연간	1/4	2/4	3/4
손해보험	보험금 ³⁾	879	928	1,147	3,788	915	920	1,058
	증가율 ⁴⁾	14.9	8.2	5.5	10.2	9.7	4.7	13.9

주: 1) 재산보험을 손해보험으로 의역함.

2)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 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3)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4) 전년동기대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회사 그룹별 시장점유율〉

- 2015년 3/4분기 수입보험료 기준 중국계 및 외국계 손해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2015년 2/4분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음.
- 중국계 및 외국계 손해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97.9%, 2.1%를 기록함.
- 중국계 손해보험회사 상위 3사²⁵⁾의 시장점유율은 64.3%로 전분기에 비해 0.1%p 상승함.
- 외국계 손해보험회사 중 상위 3사는 AXA Tianping P&C, AIG, Groupama-Avic로 조사됨.

24) 중국시장에서 활동하는 외국계 자동차부품기업들은 중국 반독점법 집행 강화로 2014년 하반기부터 자동차부품 가격을 크게 인하하였음.

25) 중국계 손해보험회사 중 상위 3사는 중국런민재산, 중국평안재산, 중국타이핑양재산이며,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33.0%, 20.2%, 11.2%임(2015년 3/4분기 기준).

〈표 23〉 손해보험회사 그룹별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1),2)}

(단위: %)

구분			2014				2015		
			2/4	3/4	4/4	연간	1/4	2/4	3/4
손해 보험	중국계	상위 3사	64.8	65.8	62.8	64.7	65.0	64.2	64.3
		중·소형사 ³⁾	32.5	32.0	34.4	33.1	33.1	33.8	33.6
		소계	97.3	97.8	97.1	97.8	98.1	97.9	97.9
	외국계		2.7	2.2	2.9	2.2	1.9	2.1	2.1

주: 1) 기간별 점유율은 해당기간에 대한 수치임.

2)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3) 중·소형사는 상위 3사와 외국계를 제외한 보험회사들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라. 연금보험²⁶⁾

■ 2015년 3/4분기 연금보험회사의 수탁보험료는 166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25.3% 증가하였고, 누적 운용보험료는 3,881억 위안으로 전분기대비 1.2% 증가함.

○ 2015년 3/4분기 연금보험회사 수탁보험료는 고성장세를 유지하였는데 이는 2014년 3/4분기 연금보험회사의 부진한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표 24〉 중국 연금보험 수입보험료 및 자산 운용 현황¹⁾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4				2015		
		2/4	3/4	4/4	연간	1/4	2/4	3/4
수탁보험료 ²⁾	금액	141	133	168	607	256	248	166
	증가율 ²⁾	-3.4	0.1	17.4	3.1	54.2	75.9	25.3
누적 운용 보험료	금액	2,804	2,949	3,160	3,160	3,479	3,837	3,881
	증가율 ³⁾	5.9	5.2	7.2	26.6	10.1	10.3	1.2

주: 1)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2) 수탁보험료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이며,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임.

3) 전분기대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26) 중국은 2004년 4월부터 연금보험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였으며, 2007년 10월부터 연금보험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연금보험회사를 정식으로 허용함. 현재까지 중국 내에 설립된 연금보험회사는 타이핑, 평안, 런쇼우, 장장, 타이강 등 5개 회사임.

조사 개요 및 출처

■ 중국 보험산업은 한국의 생명보험에 해당하는 인보험(人身保險)과 손해보험에 해당하는 재산보험(財產保險)으로 구분되는데, 중국 보험산업을 감독하는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http://www.circ.gov.cn>)에서 입수한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월별 누적 통계를 분기별로 전환해 분석함.
-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및 주요 경영실적 등 경영지표 분석을 위해 보험산업경영현황표(保險業經營情況表)를 사용함.
- 또한, 인보험회사수입보험료현황표(人身保險公司保費收入情況表)와 손해보험회사수입보험료현황표(財產保險公司保費收入情況表)를 활용해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분석을 시도함.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중국보험연감〉 분류 기준에 근거해 인보험을 생명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으로 분류해 기술함.

- 생명보험은 투자형 상품인 배당형 상품, 투자연계형 상품, 유니버설 상품과 저축성 위주의 전통형 상품으로 분류함.

■ 중국 보험용어를 편의상 우리식 용어로 의역함.

변경 전	변경 후
재산보험(財產保險)	손해보험
인신보험(人身保險)	인보험
인신의외상해보험(人身意外傷害保險)	상해보험

■ 실적치는 보험회사들이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속보 자료로 연말에 최종 집계되는 데이터와 다소 다를 수 있음.

부 록 I. 통계표

〈부록 표 I-1〉 주요 경제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3	2014				2015		
		4/4	1/4	2/4	3/4	4/4	1/4	2/4	3/4
국내총생산 성장률		3.5	3.9	3.4	3.3	2.7	2.5	2.2	2.7
경상수지		23,936	13,149	24,108	20,665	26,451	22,439	27,918	29,108
수출		146,367	137,536	145,672	141,759	147,697	133,411	135,113	128,240
수입		133,062	132,366	130,957	132,840	129,351	111,797	110,496	108,206
실업률		2.8	4.0	3.7	3.3	3.2	4.1	3.8	3.4
금리	국고채(3년)	2.90	2.87	2.82	2.50	2.17	1.98	1.80	1.72
	회사채(3년)	3.33	3.30	3.25	2.89	2.51	2.26	2.04	1.98
소비자물가지수		107.84	108.76	109.13	109.36	108.90	109.37	109.71	110.10
환율	원/달러	1,062.10	1,069.01	1,030.38	1,025.76	1,086.72	1,100.26	1,097.77	1,167.80
	원/엔화	1,058.26	1,039.62	1,008.72	988.33	949.95	923.39	904.73	955.75
KOSPI		2,009.31	1,946.13	1,993.47	2,041.86	1,948.13	1,964.87	2,095.29	1,983.39
외환보유고		346,460	354,341	366,546	364,407	363,593	362,435	372,052	368,958

주: 1) 환율, 주가지수는 분기평균임.

2)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2010년 연쇄가격 기준임.

자료: 한국은행.

〈부록 표 I-2〉 금융기관 순수신 추이

(단위: 억 원)

구분	2013	2014				2015			
	4/4	1/4	2/4	3/4	4/4	1/4	2/4	3/4	4/4
보험 ¹⁾	167,547	133,551	145,570	135,769	196,083	139,618	149,469	151,589	-
- 생보	135,447	101,936	110,963	104,478	165,865	104,840	114,114	121,369	-
수입보험료	287,363	257,467	264,960	255,554	327,771	273,358	278,525	271,624	-
지급보험금	151,916	155,531	153,998	151,076	161,906	168,518	164,412	150,255	-
- 손보	32,100	31,615	34,607	31,291	30,218	34,778	35,355	30,219	-
원수보험료	192,842	183,082	180,217	179,023	223,433	193,204	192,156	188,827	-
원수손해액	160,742	151,466	145,610	147,732	193,215	158,425	156,802	158,608	-
은행	229,979	272,496	250,005	76,442	391,862	138,338	370,258	407,283	412,913
- 일반 ²⁾	128,580	199,612	231,527	32,411	314,189	28,931	327,515	338,489	296,116
- 신탁	101,399	72,884	18,478	44,031	77,673	109,407	42,743	68,794	116,797
증권 ³⁾	-47,513	6,904	19,088	53,478	-6,648	65,495	55,742	-3,238	4,222
자산운용 ⁴⁾	-41,835	96,918	16,946	196,161	160,044	278,994	163,004	80,769	-45,360
종금 ⁵⁾	2,444	8,863	2,733	826	3,420	- 6,816	8,403	5,195	-1,453

주: 1) 보험의 순수신은 수입(원수)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원수손해액)을 차감하여 산출함.

2) 실세충예금 + CD 순발행액

3) 고객예탁금 + RP 매도 + CMA

4) 채권형 + MMF + 혼합형 + 주식형 + 기타

5) 발행어음 + CMA 예탁금 + 어음매출

자료: 보험개발원; 한국은행.

〈부록 표 I -3〉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증가율 및 구성비 추이^{1),2)}

(단위: 억 원, %)

구분		2014					2015		
		1/4	2/4	3/4	4/4	연간 ⁴⁾	1/4	2/4	3/4
생존	보험료	58,006	60,647	58,776	62,910	240,340	62,882	61,157	61,327
	증가율	-40.6	14.1	8.9	13.4	-7.6	8.4	0.8	4.3
	구성비	22.5	22.9	23.0	19.2	21.7	23.0	22.0	22.6
사망	보험료	81,286	82,133	83,131	85,238	331,788	89,041	88,434	90,538
	증가율	3.6	4.1	4.6	6.2	4.6	9.5	7.7	8.9
	구성비	31.6	31.0	32.5	26.0	30.0	32.6	31.8	33.3
생사 혼합	보험료	50,697	51,639	49,171	49,038	200,544	51,932	53,500	51,152
	증가율	-25.5	8.5	6.4	6.8	-3.5	2.4	3.6	4.0
	구성비	19.7	19.5	19.2	15.0	18.1	19.0	19.2	18.8
변액 보험	보험료	51,884	51,246	51,622	51,957	206,709	51,122	53,539	52,629
	증가율	-6.2	-2.5	0.5	0.9	-1.9	-1.5	4.5	2.0
	구성비	20.2	19.3	20.2	15.9	18.7	18.7	19.2	19.4
개인계	보험료	241,873	245,665	242,701	249,143	979,382	254,977	256,631	255,646
	증가율	-19.2	5.8	5.0	6.8	-1.7	5.4	4.5	5.3
	구성비	93.9	92.7	95.0	76.0	88.6	93.3	92.1	94.1
단체	보험료	15,594	19,295	12,853	78,629	126,371	18,381	21,895	15,979
	증가율	13.2	51.2	43.5	45.2	45.8	17.9	13.5	24.3
	구성비	6.1	7.3	5.0	24.0	11.4	6.7	7.9	5.9
합계	보험료	257,467	264,960	255,554	327,771	1,105,753	273,358	278,525	271,624
	증가율	-17.8	8.1	6.5	14.1	1.9	6.2	5.1	6.3

주: 1) 단체보험에는 특별계정의 퇴직보험, 퇴직연금이 포함됨.

2) 전년동기대비(분기) 증가율이며, 2014년 4/4분기는 FY2013 3/3분기와 비교함.

3) 반올림에 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4) 2014는 2014년 1~12월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3년 1~12월 수치와 비교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부록 표 I-4〉 생명보험 종목별 지급보험금·지급보험금 증가율 및 보험금 지급률 추이^{1),2),3)}

(단위: 억 원, %)

구분		2014					2015		
		1/4	2/4	3/4	4/4	연간 ⁴⁾	1/4	2/4	3/4
생존 보험	지급보험금	30,778	30,000	31,034	33,554	125,365	33,783	34,524	35,582
	증가율	7.4	15.0	17.4	12.4	12.9	9.8	15.1	14.7
	지급률	53.1	49.5	52.8	53.3	52.2	53.7	56.5	58.0
사망 보험	지급보험금	45,364	41,527	42,686	43,569	173,147	44,961	42,363	42,408
	증가율	-1.3	-3.1	-0.4	-1.5	-1.6	-0.9	2.0	-0.7
	지급률	55.8	50.6	51.3	51.1	52.2	50.5	47.9	46.8
생사 혼합 보험	지급보험금	32,856	30,000	29,169	28,512	120,537	32,693	29,682	27,718
	증가율	18.9	8.5	15.9	2.9	11.4	-0.5	-1.1	-5.0
	지급률	64.8	58.1	59.3	58.1	60.1	63.0	55.5	54.2
변액 보험	지급보험금	28,805	32,993	33,595	29,620	125,012	33,278	37,211	29,418
	증가율	-5.0	26.0	19.9	-10.2	6.4	15.5	12.8	-12.4
	지급률	55.5	64.4	65.1	57.0	60.5	65.1	69.5	55.9
개인 보험계	지급보험금	137,803	134,520	136,484	135,255	544,062	144,715	143,780	135,126
	증가율	4.0	9.6	11.4	0.4	6.1	5.0	6.9	-1.0
	지급률	57.0	54.8	56.2	54.3	55.6	56.8	56.0	52.9
단체 보험계	지급보험금	17,728	19,478	14,592	26,651	78,449	23,803	20,631	15,129
	증가율	21.8	51.6	62.8	55.4	46.6	34.3	5.9	3.7
	지급률	113.7	100.9	113.5	33.9	62.1	129.5	94.2	94.7
전체	지급보험금	155,531	153,998	151,076	161,906	622,511	168,518	164,412	150,255
	증가율	5.7	13.5	14.9	6.6	10.0	8.4	6.8	-0.5
	지급률	60.4	58.1	59.1	49.4	56.3	61.6	59.0	55.3

주: 1) '보험금 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2)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퇴직연금에 포함된 실적이며, 개인보험 종목별 변액보험이 포함됨.

3)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 증가율이며, 2014년 4/4분기는 FY2013 3/3분기와 비교함.

4) 2014년 연간치 증가율은 2013년 1~12월 누적 수치와 비교함.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부록 표 I -5〉 생명보험 종목별 사업비·사업비증가율 및 사업비율 추이^{1),2),3),4)}

(단위: 억 원, %)

구분		2014					2015		
		1/4	2/4	3/4	4/4	연간 ⁶⁾	1/4	2/4	3/4
생존 보험	사업비	7,572	8,116	7,566	8,482	31,737	7,907	7,623	7,433
	증가율	-27.2	3.3	-4.6	-3.0	-9.1	4.4	-6.1	-1.8
	사업비율	13.1	13.4	12.9	13.5	13.2	12.6	12.5	12.1
사망 보험	사업비	23,332	25,941	24,297	27,531	101,100	25,238	25,608	26,518
	증가율	-7.7	12.1	2.4	8.8	3.7	8.2	-1.3	9.1
	사업비율	28.7	31.6	29.2	32.3	30.5	28.3	29.0	29.3
생사 혼합 보험	사업비	4,378	4,505	4,400	4,548	17,830	4,102	3,977	3,799
	증가율	-26.4	-4.4	-2.9	-7.3	-11.3	-6.3	-11.7	-13.6
	사업비율	8.6	8.7	8.9	9.3	8.9	7.9	7.4	7.4
개인 보험계	사업비	35,282	38,562	36,263	40,560	150,667	37,247	37,209	37,750
	증가율	-15.2	8.0	0.2	4.1	-1.2	5.6	-3.5	4.1
	사업비율	14.6	15.7	14.9	16.3	15.4	14.6	14.5	14.8
단체 보험계	사업비	1,059	1,267	994	1,127	4,447	986	958	980
	증가율	-13.3	26.1	-8.1	-15.5	-4.2	-6.8	-24.4	-1.4
	사업비율	6.8	6.6	7.7	1.4	3.5	5.4	4.4	6.1
전체	사업비	36,341	39,830	37,257	41,687	155,115	38,234	38,167	38,731
	증가율	-15.2	8.5	0.0	3.5	-1.3	5.2	-4.2	4.0
	사업비율	14.1	15.0	14.6	12.7	14.0	14.0	13.7	14.3

주: 1) 사업비는 신계약비 이연을 감안하지 않은 실제 집행 사업비를 기준으로 함.

2) '사업비율 = 사업비 / 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3)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퇴직연금이 포함된 실적임.

4)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 증가율이며, 2014년 4/4분기는 FY2013 3/3분기와 비교함.

5) 변액보험 사업비는 일반계정에 포함됨에 따라 표에 기재되지 않음.

6) 2014년 연간치 증가율은 2013년 1~12월 누적 수치와 비교함.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부록 표 I-6〉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 증가율 및 비중 추이^{1),2)}

(단위: 억 원, %)

구분		2014					2015		
		1/4	2/4	3/4	4/4	연간 ³⁾	1/4	2/4	3/4
화재	보험료	759	739	703	905	3,106	728	736	683
	증가율	-6.1	-2.1	-4.3	-1.9	-3.6	-4.0	-0.4	-2.8
	구성비	0.4	0.4	0.4	0.4	0.4	0.4	0.4	0.4
해상	보험료	1,747	1,927	1,839	1,830	7,343	1,880	1,837	1,820
	증가율	17.0	-9.2	-18.5	11.7	-2.2	7.6	-4.7	-1.0
	구성비	1.0	1.1	1.0	0.8	1.0	1.0	1.0	1.0
자동차	보험료	32,377	33,665	34,259	35,183	135,484	35,298	37,269	37,355
	증가율	3.2	4.1	6.4	6.9	5.2	9.0	10.7	9.0
	구성비	17.7	19.1	19.1	15.7	17.7	18.3	19.4	19.8
보증	보험료	3,842	3,651	3,611	4,048	15,152	3,898	4,054	3,713
	증가율	-4.3	-3.9	4.3	1.8	-0.6	1.5	11.0	2.8
	구성비	2.1	2.1	2.0	1.8	2.0	2.0	2.1	2.0
특종 ²⁾	보험료	12,566	13,099	11,533	12,793	49,991	13,347	13,651	11,536
	증가율	2.6	0.3	-1.2	2.9	1.2	6.2	4.2	0.0
	구성비	6.9	7.3	6.4	5.7	6.5	6.9	7.1	6.1
해외 원보험	보험료	1,376	1,455	1,442	1,559	5,832	1,217	1,122	1,557
	증가율	-3.0	4.7	-14.6	-11.5	-6.8	-11.5	-22.9	8.0
	구성비	0.8	0.8	0.8	0.7	0.8	0.6	0.6	0.8
장기 손해	보험료	110,858	109,526	111,241	112,412	444,037	116,499	115,632	116,554
	증가율	7.5	6.1	4.9	5.9	6.1	5.1	5.6	4.8
	구성비	60.6	60.8	62.1	50.3	58.0	60.3	60.2	61.7
개인 연금	보험료	10,349	10,247	10,200	10,295	41,090	10,066	10,015	9,994
	증가율	-2.6	-3.5	-3.5	-3.2	-3.2	-2.7	-2.3	-2.0
	구성비	5.7	5.7	5.7	4.6	5.4	5.2	5.2	5.3
퇴직 연금	보험료	9,209	5,905	4,195	44,408	63,718	10,270	7,840	5,639
	증가율	106.1	-5.5	66.0	98.5	78.9	11.5	32.8	34.4
	구성비	5.0	3.3	2.3	19.9	8.3	5.3	4.1	3.0
계	보험료	183,082	180,217	179,023	223,433	765,754	193,204	192,156	188,851
	증가율	8.0	3.8	4.6	15.9	8.3	5.5	6.6	5.5

주: 1)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분기) 증가율임.

2) 특종보험에는 권원보험 원수보험료가 포함되고 부수사업 원수보험료는 제외됨.

3) 2014는 2014년 1~12월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3년 1~12월 수치와 비교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부록 표 I-7〉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손해율·사업비율 및 합산비율 추이^{1),2),3)}

(단위: %)

구분		2014			2015		
		2/4	3/4	4/4	1/4	2/4	3/4
화재보험	경과손해율	50.2	53.4	45.4	66.6	43.5	57.7
	사업비율	43.7	48.1	44.3	55.1	49.7	48.2
	합산비율	93.9	101.5	89.7	121.7	93.2	105.9
해상보험	경과손해율	18.5	44.3	85.4	55.1	70.1	94.3
	사업비율	27.1	36.8	45.5	25.1	20.0	30.2
	합산비율	45.6	81.1	130.9	80.1	90.1	124.5
보증보험	경과손해율	7.4	70.8	41.6	81.5	50.3	54.3
	사업비율	15.1	11.0	20.0	38.3	17.0	17.8
	합산비율	22.5	81.8	61.5	119.8	67.3	72.0
특종보험	경과손해율	71.0	67.7	66.5	65.1	67.1	70.3
	사업비율	16.9	19.7	19.4	21.5	17.3	21.1
	합산비율	87.9	87.4	85.9	86.6	84.4	91.4
해외원보험	경과손해율	89.4	98.1	124.7	84.2	135.0	235.2
	사업비율	49.7	40.7	62.2	52.3	58.2	38.4
	합산비율	139.1	138.8	186.9	136.5	193.2	273.6
해외수재	경과손해율	45.1	67.1	83.2	50.2	61.7	76.1
	사업비율	28.1	27.6	29.3	30.2	30.6	31.1
	합산비율	73.2	94.8	112.5	80.5	92.3	107.3
자동차보험	경과손해율	84.4	89.3	95.5	85.6	84.8	87.7
	사업비율	19.8	19.4	19.4	19.7	19.8	18.9
	합산비율	104.2	108.7	114.9	105.3	104.6	106.6
장기보험 ³⁾	경과손해율	84.4	85.2	86.1	86.0	84.5	84.1
	사업비율	17.9	18.0	18.5	18.2	18.1	18.3
	합산비율	102.3	103.2	104.7	104.1	102.5	102.4
전체	경과손해율	80.6	83.9	85.6	83.6	82.3	83.7
	사업비율	18.7	18.8	19.4	19.6	18.9	19.1
	합산비율	99.3	102.7	105.1	103.2	101.1	102.8

주: 1)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제외한 분기 수치임.

2) 손해율 = 발생손해액 / 경과보험료, 사업비율 = 순사업비 / 보유보험료, 합산비율 = 손해율 + 사업비율

3) 경과손해율은 위험손해율 개념이 아닌 재무손해율(적립보험료 및 각종 환급금 감안) 개념임.

4) 재보험회사의 발생손해액 환급금을 일부 제외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월말보고서』, 각 월호.

부 록 II. 글로벌 이슈 발간 목록

■ 글로벌 이슈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353호 (10. 5)	일부보험(underinsurance) 증가에 따른 영향 및 시사점 (이아름) · Swiss Re 보고서는 일반손해 위험의 일부보험(underinsurance)이 세계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자연재해 위험 측정모델을 활용하여 30개국을 대상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 금액의 예상치가 측정되었으며, 보상격차는 지역별로 다른 것으로 나타남. · 일부보험에 따른 보상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험회사는 상품 및 판매 채널 혁신, 소액보험, 결합상품 등의 전략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정부는 규제 및 특정 보험 의무화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임. (Swiss Re 등)
제353호 (10. 5)	미국 노동시장 변화와 시사점 (최원) · 미국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 시기 도래에도 불구하고 은퇴 연령을 늦추고자 하는 유인이 높았으며, 은퇴 연령을 늦추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은퇴 자금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음. · 따라서 앞으로 미국 보험소비자들은 거치연금(deferred annuity) 등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연금 상품에 관심을 많이 가질 것으로 보임. (LIMRA 등)
제353호 (10. 5)	미국 보험사기 방지시스템의 활용과 시사점 (이선주) · 미국에서는 보험사기 유형과 수법이 진화함에 따라 그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보험회사가 감당해야 할 비용부담이 늘어나는 추세임. · 미국 대부분의 손해보험회사는 복합기술이 내재된 보험사기 방지시스템을 활용하여 보험사기로 지출되는 비용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Ernst&Young(2015)은 방지시스템 구축의 차원을 넘어 전사적으로 보험사기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전략, 조직화, 프로세스, 기술 및 데이터 등 통합적 대응방안을 제시함. (EY, CAIF, IBM 등)
제354호 (10. 12)	2015년 상반기 일본 생명보험산업 및 상품 동향 (김진익) · 일본 생명보험 산업의 경우 은행, 독립설계사 같은 채널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사, 외국사 그리고 손해보험 자회사들 간 경쟁이 심해지고 있음. · 대형 생명보험회사들은 젊은 보험소비자들의 보험상품 구매에 있어 자가선택 니즈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여, 여러 보험상품의 비교 권유가 가능한 보험숍 판매 채널의 비중을 점차 늘리고 있음. · 상품 측면에서 고령화와 저출산의 영향으로 개인 개호보험(LTC)과 여성 특화 의료보험 등의 판매가 확대되고 있으며, 기대여명 증가에 따라 생명보험 가입 연령도 상향 조정되는 등 인구학적 변화에 맞춘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음. (The Toa Reinsurance Company)

글로벌 이슈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354호 (10. 12)	인도 보험산업의 제도 변화와 시사점 (이소양) · 2015년 3월 인도 국회는 외국인의 투자한도 확대, 보험회사의 상업지지출 및 보험설계사 수당지급 기준 개편,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및 판매채널 활성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보험법 수정안을 통과함. · 인도 보험시장 총수입보험료가 2011년부터 연속 3년 감소한 후 2014년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2010년 수준에 못 미쳤기 때문에 보험산업의 제도 변화가 요구돼 왔음. · 전문가들은 동 보험법 수정안이 인도 보험산업의 발전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함. (EY, A.M. BEST, Swiss Re 등)
제355호 (10. 19)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에 따른 영향 (이아름) · 2015년 10월 5일 미국 주도의 세계 최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이 타결됨. · 바이오 의약품 특허 보호기간, 낙농품 시장 개방, 자동차 부품 원산지 규정 등 3대 쟁점이 합의됨에 따라 TPP는 미국 제약업, 뉴질랜드 낙농업, 일본 자동차업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TPP의 발효 시점은 2016년 이후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의 움직임에 대응하여 중국은 한·중·일 FTA,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을 추진 중이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타결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됨. (USTR 등)
제355호 (10. 19)	폭스바겐 소송 확대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채원영) · 독일 폭스바겐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이 밝혀지면서 폭스바겐 주가가 급락하고 미국 및 호주 등 주요국에서 집단소송이 확대되고 있음. · 폭스바겐에 대한 집단소송 확산과 주요 규제당국의 리콜 조치 등으로 임원배상책임보험과 기업일반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액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The Times 등)
제355호 (10. 19)	FY2014 일본 손해보험 경영 성과와 업계 동향 (이해랑) · FY2014 일본 손해보험 시장은 원수보험료 증가, 지급보험금 감소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를 보임. · FY2014 일본 국내 손해보험 시장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일본 손해보험업계는 주요 3개 대형 손해보험회사 중심으로 해외 보험 시장 진출 및 확장을 통한 성장에 집중하고 있음. (The TOA Reinsurance Company 등)
제356호 (10. 26)	2015년 내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여부와 시사점 (이아름) · 최근 미국 기준금리가 2015년 9월 FOMC 정례회의에서 동결된 가운데, 세계 경제 둔화, 중국 경제 및 금융시장 불안, 미국 고용지표 부진 등으로 미국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재논의 되고 있음. · 미국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이 어려워진 만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은 커질 것이라고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보험회사들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 대외 변수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야 함. (FRB, WSJ 등)

■ 글로벌 이슈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356호 (10, 26)	독일 보험시장 동향 및 저금리 대응 (최원) - 독일 보험시장의 양호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지속으로 인해 보험회사들은 여전히 자산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어려움은 중·소형 생명보험회사에 집중될 가능성이 커 보임. - 저금리로 인해 상품 측면에서도 요구자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독일 생명보험회사들은 요구자본에 최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금리연동형 상품 개발 및 판매에 집중하고 있음. (A.M. Best 등)
제357호 (11, 2)	중국의 디지털 건강관리서비스 산업 혁명 (김진익) - 중국의 디지털 건강관리서비스 산업은 IT기술, 규제, 제도 측면에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4년 30억 달러에서 2020년 1,100억 달러로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디지털 건강관리 산업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건강관리 서비스와 E-커머스 분야에 새로운 사업모델이 부상하고 있으며,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기존 대형 기업들이 시장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음. - 많은 장애요인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건강관리 시스템은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디지털 건강관리 산업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임. (BCG)
제357호 (11, 2)	사물인터넷(IoT)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이소양) - Accenture는 보험산업에서 사물인터넷 발달로 소비자의 보험수요가 복잡해지고 보험회사의 부가서비스의 중요성이 높아졌으며 IT 기업이 기존 보험회사의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함. - Accenture는 사물인터넷 시대에 보험회사들이 선도적이고 혁신적으로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함. - 또한 보험회사들은 사물인터넷 기술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개인 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철저한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함. (Accenture 등)
제357호 (11, 2)	글로벌 지급결제의 동향과 미래 (김현경) - 전 세계적으로 신용카드 등 비현금 지급수단에 의한 결제규모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모바일 앱 등 비전통적 지급수단의 결제규모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비은행 기업들이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급결제산업의 경쟁구도가 달라지고 있으며, 핀테크 기술이 융합된 디지털 지급결제서비스의 확대에 따라 소비자의 거래행태가 변화할 것으로 예상됨. (영국 Deloitte)
제358호 (11, 9)	세계 손해보험산업의 기회요인 (채원영) - Aon Benfield는 사이버리스크 등 신종리스크 증가와 보험산업 자본 확대, 빅데이터 보급 및 분석 기술 발전으로 세계 손해보험산업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 - 신종 리스크 확대와 공유경제 확산 등으로 새로운 보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보험, 기업배상책임보험, 건강보험 등 전통적인 영역의 수요 둔화가 상쇄될 것으로 전망됨. (Aon Benfield 등)

글로벌 이슈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358호 (11. 9)	중국 자동차상업보험 제도 변화와 시사점 (이소양) · 현행 중국 자동차상업보험의 약관과 요율은 3가지 종류가 있지만 실제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손해보험회사들이 자사의 영업상황에 따라 자동차상업보험을 자율적으로 개발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따라 2015년 3월 CIRC는 손해보험회사들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상업보험의 약관과 요율 개선 방안을 발표함. · 향후 중국 자동차상업보험의 상품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외국 계사를 포함한 중소형 손해보험회사들은 중국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함. (CIRC, IAC 등)
제359호 (11. 16)	최근 FTA 동향과 신흥국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아름) · 최근 미국 컨설팅회사 PwC에 따르면 향후 Mega FTA가 체결됨에 따라 세계 무역시장은 확대될 것이며, 이는 신흥국 금융시장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함. · Mega FTA가 발효될 경우, 관세율 인하 또는 철폐, 투자 확대, 신시장 진출 기반 마련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가운데, 금융서비스 분야에서도 투자 및 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향후 신흥국 경제발전과 더불어 Mega FTA 체결로 인한 신흥국의 금융시장 개방과 국제화는 신흥국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됨. (PwC 등)
제359호 (11. 16)	일본과 중국 보험회사 자산운용 동향 (최원) · 중국과 일본의 경우 보험산업 운용자산 증가와 함께 자산운용 환경의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는데, 자산운용 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처를 위해 보험회사의 자산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고 있음. · 중국의 경우 금융개혁으로 보험회사 자산운용의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예금 및 채권에 편중되었던 보험회사 자산 포트폴리오의 변화가 나타남. · 일본 보험회사들의 경우 아베노믹스 시행 이후 국채 수익률 하락에 대한 우려가 확대됨에 따라 자산운용수익률 유지를 위하여 주식과 해외자산 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음. (A.M. Best 등)
제360호 (11. 23)	유럽 주요국 보험시장의 회복세와 규제 현안 (김진익) · 유럽 주요 보험시장인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은 최근 보험료 수입이 증가하거나 보험영업손익 및 재무건전성이 개선되는 등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음. · 생명보험시장의 경우 저금리의 지속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전통적인 금융상품대신 대체 투자상품으로 생명보험 상품 구매를 늘리면서 보험료 수입이 증가함. · 손해보험시장의 경우 각국 경제 상황에 따라 회복세가 소폭에 그치나 손해보험회사들이 경영성과의 질적 개선에 집중하고 재난발생도 많지 않아 수익성 제고가 전망됨. · 한편 각국 보험관련 규제는 유럽 보험시장의 성장과 재무건전성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A.M. Best)

■ 글로벌 이슈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361호 (11. 30)	2015년 세계 보험산업 현황 및 2016~17년 전망 (채원영) · 2015년 세계 생명보험산업 수입보험료는 2014년 4.7%보다 1.4%p 하락한 3.3% 성장할 전망이다 2016년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세로 4.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15년 세계 손해보험산업 원수보험료는 2014년 대비 0.3%p 하락한 2.5% 성장하는데 그칠 전망이다 2016년에는 3.0% 성장할 전망이다. (Swiss Re 등)
제361호 (11. 30)	3D/4D 프린팅 기술발전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해량) · 최근 스위스리는 최근 많은 분야에서 이용되기 시작한 3D 프린팅 기술과 향후 더욱 발전할 4D 프린팅 기술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함. · 현재 항공 우주, 자동차, 의학, 건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하고 있으며, 4D 프린팅 기술 역시 초기 단계이지만 주목받고 있음. · 현재 3D/4D 프린팅 기술은 성장 및 발전 단계로 보험 회사에게는 시장 확대의 기회이지만, 아직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에 있고 기술과 관련한 규제나 표준이 없기 때문에 보험 상품 개발 및 적용에 있어 다양한 위험 요인을 고려해야 할 것임. (Swiss Re 등)
제362호 (12. 7)	미국 영업용 자동차보험 수익성 개선과 향후 과제 (최원) · 2014년 미국 영업용 자동차보험 시장은 효율 인상에 힘입은 원수보험료 증가와 사업비용 하락으로 수익성이 개선됨. · 그러나 이와 같은 수익성 개선의 원인이 대부분 효율 인상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효율 인상으로 인한 효과가 소멸될 경우 여러 가지 위험요인이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큼. · 앞으로 지속적인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는 언더라이팅 이익의 중요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최근 운전자 특성, 운전자 습관 등을 언더라이팅과 효율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A.M. Best 등)
제363호 (12. 14)	기후변화에 대한 IAIS의 이슈와 보험회사의 대응 (김진익) ·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초래되는 재난의 크기와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보험가입은 그에 미치지 못하면서 재난에 대한 경제의 취약성이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신흥국 및 저개발국의 경우 기후변화로 초래되는 리스크에 더욱 크게 노출되어 있어,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경제적 손실과 함께 경제성장 감소도 초래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함. · 또한 보험산업은 장기 기관투자자로서 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논의된 화석연료 감축 실행 목표의 실행에 따라 다른 투자처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IAIS, ClimateAction 등)

글로벌 이슈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363호 (12. 14)	금리하락에 따른 중국 생명보험회사의 수익성 악화 우려 (이소양) -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PBC)은 2012년부터 경기부양을 위해 통화완화정책을 단행하면서 시중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중국 보험회사의 운용자산이 예치금 및 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금리하락으로 고금리 생명보험의 이차마진이 축소되면서 생명보험회사의 수익성 악화 우려가 제기됨. - 전문가들은 생명보험회사가 보장성 보험 판매 강화 및 대체자산 투자 확대를 통해 수익성 악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CITIC Securities, GUOTAI JUNAN Securities 등)
제364호 (12. 21)	보험회사의 온라인 직접판매 채널 전략 (이해량) - 최근 딜로이트(Deloitte)는 보험회사 직접판매 채널 이용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보험회사의 채널전략을 제안함. - 딜로이트의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 응답자들은 온라인 직접판매 채널을 선호하였으나, 기존 보험중개인 채널에서 온라인 직접판매 채널로의 변경에 대해서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응답함. - 딜로이트는 급변하는 보험시장에서 보험회사들의 채널전략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성공적인 채널 전략을 위해서 보험회사는 소비자가 고려하는 채널의 장점 및 우려 사항 등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함. (Deloitte 등)
제364호 (12. 21)	스마트 공장 보급과 보험산업 (채원영) - 최근 국내를 포함한 주요국에서 제조업 혁신의 일환으로 스마트공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스마트 공장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는 책임소재 불명확화, 사이버리스크 확대, 사고발생 시 기업 중단에 따른 손해 증가 등이 있음. - 따라서 기존 기업 보험에서 중요시 되었던 종업원 상해보험,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등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고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간접기업휴지보험, 사이버 보험 등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전망이다. (CRO Forum 등)
제365호 (12. 28)	2015년 세계 재해 현황과 재난보험 증가 (이아름) - 최근 Swiss Re는 2015년에 전 세계 재해로 인해 발생한 총 경제적 손실금액은 약 850억 달러이며, 그 중 보험 손해액은 320억 달러에 불과하다고 추정함. - 자연재해와 인재가 증가함에 따라 선진국 중심으로 재난보험 시장도 활성화되고 있으나,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보험 손해액 격차 확대에 정부 및 다자간 기관의 지원이 증대되고 있음. - 선진국 중심의 재난보험 상품 및 투자자 수요 증가에 따라 2010년부터 대재해채권(catastrophe bond) 시장도 투자상품으로 발전하고 있음. (Swiss Re, Timetric 등)

■ 글로벌 이슈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365호 (12. 28)	중국의 외국 보험회사 주요 환경변화 및 전망 (최원) · 201리스크 중심의 지급여력제도인 C-ROSS 도입, 자유무역지구(FTZ) 확대, 인터넷 금융 활성화와 같은 규제 환경 변화가 앞으로 중국에 진출한 외국 보험회사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의 외국 보험회사들은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이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해당 종목의 판매 확대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임. (EY 등)
제365호 (12. 28)	국회 계류 중인 금융개혁 관련 주요 법안 내용 (동향분석실) ·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개혁 관련 법안은 106건이며, 이 중에서도 일몰 규정 등에 의해 처리에 시급을 요하는 법안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자본시장법, 서민금융진흥원 설립법, 대부업법 등 4건임. (금융감독원 등)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연구보고서

-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장동식, 김동겸 2008.1
-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6
-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 이경희, 김동겸 2008.3
-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안철경, 권오경 2009.1
-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2
- 2009-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 유경원, 이해은 2009.3
- 2009-4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 류건식, 이창우, 김동겸 2009.3
- 2009-5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방법 연구 / 기승도, 김대환 2009.8
- 2009-6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 기승도, 김대환, 김혜란 2010.1
- 2010-1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 유경원, 이해은 2010.4
- 2010-2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 / 황진태, 이경희 2010.5
- 2010-3 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 검토 / 진익, 김동겸 2010.7

■ 정책보고서

-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 최원 2008.3
-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이태열, 신종협, 황진태, 유진아, 김세환,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2008.11
-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익, 이민환, 유경원, 최영목, 최형선, 최원, 이경아, 이해은 2009.2
-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이경희 2009.3
- 2009-3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 오영수, 김경환, 이종욱 2009.3
- 2009-4 201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황진태, 변혜원, 이경희,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 2009.12
- 2009-5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안철경, 변혜원, 권오경 2010.1
- 2010-1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 송윤아 2010.3
- 2010-2 201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김대환, 이경희, 이정환, 최원, 김세중, 최이섭 2010.12

- 2011-1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 오영수, 안철경, 변혜원, 최영목, 최형선, 김경환, 이상우, 박정희, 김미화 2010.4
- 2011-2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 오영수, 김경환, 박정희 2011.7
- 2011-3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방안 / 이경희 2011.5
- 2011-4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 윤성훈, 류건식, 오영수, 조용운, 진익, 유진아, 변혜원 2011.7
- 2011-5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유통채널 개선방안 / 안철경, 이경희 2011.11
- 2011-6 201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황진태, 이정환, 최원, 김세중, 오병국 2011.12
- 2012-1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 조재린, 이기형, 정인영 2012.8
- 2012-2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 이기형, 변혜원, 정인영 2012.10
- 2012-3 금융위기 이후 보험규제 변화 및 시사점 / 임준환, 유진아, 이경아 2012.11
- 2012-4 소비자중심의 변액연금보험 개선방안 연구: 공시 및 상품설계 개선을 중심으로 / 이기형, 임준환, 김해식, 이경희, 조영현, 정인영 2012.12
- 2013-1 생명보험의 자살면책기간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 이창우, 윤상호 2013.1
- 2013-2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 김대환, 이상우 2013.1
- 2013-3 201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전용식, 이정환, 최원, 김세중, 채원영 2013.2
- 2013-4 사회안전망 체계 개편과 보험산업 역할 / 진익, 오병국, 이성은 2013.3
- 2013-5 보험지주회사 감독체계 개선방안 연구 / 이승준, 김해식, 조재린 2013.5
- 2013-6 2014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전용식, 최원, 김세중, 채원영 2013.12
- 2014-1 보험시장 경쟁정책 투명성 제고방안 / 이승준, 강민규, 이해랑 2014.3
- 2014-2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 평가 및 개선방안 / 조재린, 김해식, 김석영 2014.3
- 2014-3 공·사 사회안전망의 효율적인 역할 제고 방안 / 이태열, 강성호, 김유미 2014.4
- 2014-4 2015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김석영, 김진억, 최원, 채원영, 이아름, 이해랑 2014.11
- 2014-5 의료보장체계 합리화를 위한 공·사건강보험 협력방안 / 조용운, 김경환, 김미화 2014.12
- 2015-1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 - IFRS와 RBC 연계방안 / 김해식, 조재린, 이경아 2015.2
- 2015-2 2016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김석영, 김진억, 최원, 채원영, 이아름, 이해랑 2015.11

■ 경영보고서

- 2009-1 기업휴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이기형, 한상용 2009.3

- 2009-2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 진익 2009.3
- 2009-3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 진익, 유시용, 이정아 2009.3
- 2009-4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최원 2009.6
- 2010-1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안철경, 권오경 2010.2
- 2010-2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오영수, 김경환 2010.2
- 2010-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 / 류건식, 이창우, 이상우 2010.3
- 2010-4(1) 보험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방안 / 산업연구실, 정책연구실, 동향분석실 2010.6
- 2010-4(2) 종합금융서비스를 활용한 보험산업 성장방안 / 금융제도실, 재무연구실 2010.6
- 2010-5 변액보험 보증리스크관리연구 / 권용재, 장동식, 서성민 2010.4
- 2010-6 RBC 내부모형 도입 방안 / 김해식, 최영목, 김소연, 장동식, 서성민 2010.10
- 2010-7 금융보증보험 가격결정모형 / 최영수 2010.7
- 2011-1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 안철경, 변혜원, 서성민 2011.1
- 2011-2 보증보험의 특성과 리스크 평가 / 최영목, 김소연, 김동겸 2011.2
- 2011-3 충성도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마케팅전략 연구 / 기승도, 황진태 2011.3
- 2011-4 보험회사의 상조서비스 기여방안 / 황진태, 기승도, 권오경 2011.5
- 2011-5 사기성클레임에 대한 최적조사방안 / 송윤아, 정인영 2011.6
- 2011-6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리스크관리방안 / 조용운, 황진태, 김미화 2011.8
- 2011-7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류건식, 김대환, 이상우 2011.9
- 2011-8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김대환, 류건식, 이상우 2011.10
- 2012-1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평가와 시사점 / 조영현, 전용식, 이해은 2012.7
- 2012-2 보험산업 비전 2020 : ㉠ sure 4.0 / 진익, 김동겸, 김혜란 2012.7
- 2012-3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의 시행과 과제 / 김해식, 김석영, 김세영, 이해은 2012.9
- 2012-4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발생원인과 관리방안 / 김대환, 류건식, 김동겸 2012.9
- 2012-5 은퇴가구의 경제형태 분석 / 유경원 2012.9
- 2012-6 보험회사의 날씨리스크 인수 활성화 방안: 지수형 날씨보험을 중심으로 / 조재린, 황진태, 권용재, 채원영 2012.10
- 2013-1 자동차보험시장의 가격경쟁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전용식, 채원영 2013.3
- 2013-2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확대방안 연구 / 기승도, 조용운, 이소양 2013.5

■ 조사보고서

-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 김진억, 지재원, 박정희, 김세중 2008.2

-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기승도, 이상우 2008.4
-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 2009-1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이상우, 권오경 2009.3
- 2009-2 Solvency II의 리스크 평가모형 및 측정 방법 연구 / 장동식 2009.3
-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면, 이정환, 최이섭, 정중영, 최태영 2009.3
- 2009-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김해식 2009.3
- 2009-5 헤지펀드 운용전략 활용방안 / 진익, 김상수, 김종훈, 변귀영, 유시용 2009.3
- 2009-6 복합금융 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 이민환, 전선애, 최원 2009.4
- 2009-7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서대교, 오영수, 김영진 2009.4
- 2009-8 구조화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 임준환, 이민환, 윤건용, 최원 2009.7
- 2009-9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조용운, 김세환, 김세중 2009.7
- 2009-10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 · 해약분석 / 류건식, 장동식 2009.8
- 2010-1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 신종협, 최형선, 최원 2010.3
- 2010-2 금융산업의 영업행위규제 개선방안 / 서대교, 김미화 2010.3
- 2010-3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제와 시사점 / 이창우, 이상우 2010.4
- 2010-4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변혜원, 박정희 2010.4
- 2010-5 산재보험의 운영체제에 대한 연구 / 송윤아 2010.5
- 2010-6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 이승준, 이종욱 2010.5
- 2010-7 보험종류별 진료수가 차등적용 개선방안 / 조용운, 서대교, 김미화 2010.4
- 2010-8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대응전략 / 진익, 김해식, 유진아, 김동겸 2011.1
- 2010-9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정책방향 / 류건식, 이창우, 이상우 2010.7
- 2011-1 생명보험설계사 활동실태 및 만족도 분석 / 안철경, 황진태, 서성민 2011.6
- 2011-2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대환, 최원 2011.5
- 2011-3 보험회사 녹색금융 참여방안 / 진익, 김해식, 김혜란 2011.7
- 2011-4 의료시장변화에 따른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대응 / 이창우, 이기형 2011.8
- 2011-5 아세안 주요국의 보험시장 규제제도 연구 / 조용운, 변혜원, 이승준, 김경환, 오병국 2011.11
- 2012-1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황진태, 전용식, 윤상호, 기승도, 이상우, 최원 2012. 6
- 2012-2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체제 특징과 시사점 / 이상우, 오병국 2012.12
- 2012-3 솔벤시 II의 보고 및 공시 체계와 시사점 / 장동식, 김경환 2012.12
- 2013-1 201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 황진태, 변혜원, 정원석, 박선영, 이상우,

- 최원 2013. 8
- 2013-2 건강보험 진료비 전망 및 활용방안 / 조용운, 황진태, 조재린 2013.9
- 2013-3 소비자 신뢰 제고와 보험상품 정보공시 개선방안 / 김해식, 변혜원, 황진태 2013.12
- 2013-4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관한 연구 / 변혜원, 조영현 2013.12
- 2014-1 주택연금 연계 간병보험제도 도입 방안 / 박선영, 권오경 2014.3
- 2014-2 소득수준을 고려한 개인연금 세제 효율화방안: 보험료 납입단계의 세제방식 중심으로 / 정원석, 강성호, 이상우 2014.4
- 2014-3 보험규제에 관한 주요국의 법제연구: 모집채널, 행위규제 등을 중심으로 / 한기정, 최준규 2014.4
- 2014-4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판매채널 전략 연구 / 황진태, 박선영, 권오경 2014.4
- 2014-5 거시경제 환경변화의 보험산업 파급효과 분석 / 전성주, 전용식 2014.5
- 2014-6 국내경제의 일본식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 전용식, 윤성훈, 채원영 2014.5
- 2014-7 건강생활관리서비스 사업모형 연구 / 조용운, 오승연, 김미화 2014.7
- 2014-8 보험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안 / 김경환, 강민규, 이해랑 2014.8
- 2014-9 2014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 변혜원, 정원석, 박선영, 오승연, 이상우, 최원 2014.8
- 2014-10 보험회사 수익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 김석영, 김세중, 김혜란 2014.11
- 2014-11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평가와 제언 / 전용식, 조영현, 채원영 2014.12
- 2015-1 보험민원 해결 프로세스 선진화 방안 / 박선영, 권오경 2015.1
- 2015-2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 조영현, 조재린, 김혜란 2015.2
- 2015-3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 성장 저해 요인 분석 -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중심으로 - / 최창희, 정인영 2015.3
- 2015-4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 / 이태열, 황진태, 이선주 2015.3
- 2015-5 2015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5.8
- 2015-6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가 보험 수요에 미치는 영향 / 오승연, 김유미 2015.8

■ 조사자료집

- 2014-1 보험시장 자유화에 따른 보험산업 환경변화 / 최원, 김세중 2014.6
- 2014-2 주요국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 제도 연구 -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 장동식, 이정환 2014.8
- 2015-1 고령층 대상 보험시장 현황과 해외사례 / 강성호, 정원석, 김동겸 2015.1
- 2015-2 경증치매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의 치매실태 도입방안 / 정봉은, 이선주 2015.2
- 2015-3 소비자 금융이해력 강화 방안: 보험 및 연금 / 변혜원, 이해랑 2015.4
- 2015-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 / 박대근, 박춘원, 이항용 2015.5
- 2015-5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 전성주, 박선영, 김유미 2015.5

- 2015-6 고령화에 대응한 생애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 방안 / 정원석, 김미화 2015.5
 2015-7 일반손해보험 요율제도 개선방안 연구 / 김석영, 김혜란 2015.12

■ 연차보고서

- 제1호 2008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09.4
 제2호 2009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0.3
 제3호 2010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1.3
 제4호 2011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2.3
 제5호 2012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3
 제6호 2013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12
 제7호 2014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4.12
 제8호 2015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5.12

■ 영문발간물

- 제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IRI, 2008.9
 제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9 / KIRI, 2009.9
 제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0 / KIRI, 2010.8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1 / KIRI, 2011.10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2 / KIRI, 2012.11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3 / KIRI, 2013.12
 제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4 / KIRI, 2014.7
 제1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5 / KIRI, 2015.7
- 제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3 / KIRI, 2014.2
 제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3 / KIRI, 2014.5
 제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4 / KIRI, 2014.8
 제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4 / KIRI, 2014.10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4 / KIRI, 2015.2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4 / KIRI, 2015.4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5 / KIRI, 2015.8

■ CEO Report

-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율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 서성민 2008.12
-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요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 김동겸 2009.3
- 2009-3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류건식, 이상우 2009.6
- 2009-4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 류건식, 이상우 2009.10
- 2010-1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김대환, 이상우, 김혜란 2010.4
- 2010-2 FY2010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0.6
- 2010-3 보험소비자 보호의 경영전략적 접근 / 오영수 2010.7
- 2010-4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 김대환, 이기형 2010.9
- 2010-5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류건식, 이상우 2010.9
- 2010-6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 및 개선논의 / 최형선 2010.11
- 2011-1 G20 정상회의의 금융규제 논의 내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 김동겸 2011.2
- 2011-2 영국의 공동계정 운영체제 / 최형선, 김동겸 2011.3
- 2011-3 FY2011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1.7
- 2011-4 근퇴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 운영방안과 과제 / 김대환, 류건식 2011.8
- 2012-1 FY2012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2.8
- 2012-2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조용운, 이상우 2012.11
- 2012-3 보험연구원 명사초청 보험발전 간담회 토론 내용 / 윤성훈, 전용식, 전성주, 채원영 2012.12
- 2012-4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Ⅰ): 정책공약집을 중심으로 / 이기형, 정인영 2012.12
- 2013-1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Ⅱ):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제 정책에 대한 평가 / 김대환, 이상우 2013.1
- 2013-2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Ⅲ):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 이승준 2013.3
- 2013-3 FY2013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3.7
- 2013-4 유럽 복합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 원인과 시사점 / 전용식, 윤성훈 2013.7
- 2014-1 2014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4.6
- 2014-2 인구구조 변화가 보험계약규모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김석영, 김세중 2014.6
- 2014-3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이태열, 조재린, 황진태, 송윤아 2014.7
- 2014-4 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 / 임준환, 황인창, 이해은 2014.10
- 2015-1 연말정산 논란을 통해 본 소득세제 개선 방향 / 강성호, 류건식, 정원석 2015.2

- 2015-2 2015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5.6
 2015-3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및 이의 영향 / 김석영 2015.10
 2016-1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의미와 시사점 / 김석영 2016.1

■ Insurance Business Report

-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2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 권오경 2008.7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7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익 2008.7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 서성민 2008.9

※ 2008년 이전 발간물은 보험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ri.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기간행물

■ 간행물

- 보험동향 / 계간
- 고령화리뷰 / 연 2회
- 보험금융연구 / 연 4회

『도서회원 가입안내』

회원 및 제공자료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제공자료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동향 · 고령화 리뷰 · 보험금융연구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동향 · 고령화 리뷰 · 보험금융연구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동향 · 고령화 리뷰 · 보험금융연구
	- 본원 주최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PDF) - 영문보고서	-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3775-9113, 9056 팩스 : (02)3775-9102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01-125198)

예금주 : 보험연구원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 · 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보험자료실,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부산 : 영광도서

『보험동향』 2015년 겨울호 (통권 76호)

발행일	2016년 1월
발행인	강 호
발행처	보 험 연 구 원
등 록	2015년 4월 30일(등록번호 영등포 바 00119)
주 소	073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연락처	대표전화 / 02-3775-9000
인쇄소	정성문화사 / 02-786-2999

ISSN 1228-310X

정가 10,000원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연구원의
동향분석실(☎3775-9094)로 연락하여 주십시오.